
벡델
데이
2021

목차

벡델데이 2021 개요 04

벡델데이 2021 특징
인사말 07
조직 구성 08

슬로건 10

포스터 & 캐릭터 12

트레일러 14

벡델초이스 10 & 벡델리안 4인 16

벡델데이 2021 프로그램

1부 벡델 클래스 30
2부 벡델 심포지엄 33
3부 벡델 라운드테이블 70

공모전
벡델 단편 영상 공모전 75
벡델 에세이 공모전 82

홍보 및 마케팅 84

현장녹취록 101
오프닝 & 1부 벡델 클래스
2부 벡델 심포지엄
3부 벡델 라운드테이블

행사개요



명칭 : 벡델데이 2021 BECHDEL DAY 2021
행사 기간 : 성평등주간 2021.9.1. ~ 2021.9.7.
주최/주관 :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참여인력

조직위원장 : 민규동
집행위원장 : 변영주
프로그래머 : 윤단비, 임선애, 한가람
프로그램위원 : 김동령, 신아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서민준
홍보 코디네이터 : 이연정
DGK 사무국 : 최우리
문화체육관광부 : 이희진, 차예지

협력업체 및 참여 인력

벡델데이 2021 촬영/편집/중계 : 세븐 시스템
벡델데이 2021 예고편 등 영상 제작 : DGK 김동령, 신아가, 성시흡
벡델데이 2021 음향 : 이성택
벡델데이 2021 조명 : 장인호
벡델데이 2021 현장 스틸 : 고한벌
벡델데이 2021 메이킹 : 류형석
홍보 : 플래닛(PlanIt) 김종애, 최주영, 이주리
포스터 및 시그니처 디자인 : 스푸트닉 이관용, 김다슬, 윤소정
굿즈 디자인 : 소시민워크
홍보영상 : 더메어 크리에이티브
애니메이션 티저 : 강민지
메인 트레일러 : 임대형

인사말
조직구성

프랑스 작가 모파상은 플로베르를 흠모하고 존경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파상이 첫 작품을 써냈을 때 바로 플로베르에게 보냈고, 바작바작 타는 긴장감 속에서 그 대가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작품을 다 읽은 플로베르는 모파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 작품은 틀림없는 걸작이야… 단, 두 단어만 바꾸면.”

정혜윤 작가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에 인용된 이 에피소드는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손발을 묶고 고문할 때 요긴할 수 있는 모티브다. 우리는 그 두 단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플로베르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더 훌륭한 영화에 모자라는 딱 두 개의 단어, 그 미치도록 그리운 해답을 풀어내려는 많은 영화인들의 셀프고문을 보다 못해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게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벡델데이’다.

물론 그 기원은 ‘벡델 테스트’다. 3가지 필터의 간단한 퀴즈나 풀어보자는 엘리슨 벡델의 제안이었다.
벡델데이는 20세기형 기존 필터를 7개로 업데이트했고, 당대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신개념 걸작의 유도분만을 시도했다. 올해는 클래스와 영상과 에세이 공모전까지 시도하여 영화 영역 밖의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합심하여 그 출산을 도왔다.

그 탄생 설화는 초긴장 신경증적 강박에 눌려 있던 문체부의 성평등 정책자문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지러운 와중에 창밖을 보는데, 주요 등장인물이 다 죽는 희극 <리어왕>의 마지막 대사가 떠올랐다.
“해야 할 일을 말하지 말고 느끼는 바를 말하도록 합시다.”
나는 느끼는 대로 지껄여보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벡델테스트 주사위가 던져지고 30년이 훌쩍 지난 작년 어느 날, 아시아 변방의 작은 감독 한 명이 고요히 작업 중인 벡델 작가의 방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당신의 이름을 딴 영화제를 만드려고 해요. 괜찮겠죠?”
흥미롭다는 듯 흔쾌히 허락해 준 그가 이 새로운 놀이터를 어찌 바라볼지… 자못 궁금하다.

이렇듯 세익스피어적 우연으로 태어난 게임이라,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이다!라고 외쳤었다. 올해 멋지게 새 행사를 잉태했으니 뿌듯하기 그지없으나, 독특하게도 이 게임은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날, 그것이 궁극의 성공 지표라는 모순적 설정을 지녔으니, 어쩌면 우린 마지막 출산일을 당기려고 열심히 태교 중인 셈이다.

얼마 전 엘리슨 벡델의 자전적 그래픽 노블, <펀 홈>의 영화화 판권이 제이크 질렌할에게 팔렸다고 한다.
그럼 그 영화는 벡델 테스트를 쉽게 통과하겠지? 라고 생각해 봤다가, 각색과 연출이 어찌 될지 모르니 섣부른 판단을 미뤘다. 게다가 dgk가 만든 7개의 업데이트된 테스트 통과는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벡델도 바작바작 타는 모파상의 심정으로 벡델데이를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제멋대로 생각해 본다.

어떤 영화든 시험을 치른다는 건 곤욕스런 일이다. 지나가는 게임이더라도 성적표는 신경이 쓰이는 법이니.
허나, 21세기형 걸작으로 가는 행운의 코스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할 일이다.
혹시 모르니까, 걸작을 위한 두 단어의 힌트를 건질 수 있을지…

집행위원장 민규동 감독



조직위원장 민규동 감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한국영화 아카데미 13기를 졸업한 후, 파리 8대학 대학원 영화과에서 MFA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시절 단편<창백한 푸른 점>을 공동연출한 김태용 감독과 함께 1999년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로 장편 데뷔했다. 여고생들의 성장과 심리에 괴담을 결합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5),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2008),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등을 통해 섬세하고 우아한 세공솜씨를 보여줌과 동시에 쉽지 않은 소재를 유쾌하게 그려내는 연출력으로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간신>(2015), <허스토리>(2017)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꾸준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크로스오버한 여덟 편의 시네마틱 드라마 <SF8>을 총괄 기획하고, 그중 <간호중>을 연출하며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를 맡아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영화계 각종 현안에 대해 한국영화감독들을 대표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위원장 변영주 감독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영화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기록영화 제작소 보임의 대표로 있다. 1993년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하여 <낮은 목소리> 연작, <밀애>(2002), <발레교습소>(2004), <화차>(2012)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다. <낮은 목소리>로 1995년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오가와 신스케상을 수상, <화차>로 제4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 수상 등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2회째 벡델데이 2021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집행위원 김동령 감독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후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파리 8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2004년부터 남한의 미군 기지촌에서 다큐멘터리적 방법으로 다양한 오디오 비주얼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장편 <아메리칸 앨리>(2009)와 <거미의 땅>(2013)으로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오가와 신스케상, 국제경쟁 특별상,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다큐멘터리 부문 등을 수상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MoMA), 핫독스영화제 등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2019년 완성한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일본이미지포럼영화제의 테라야마 슈지상을 수상했으며, 로테르담영화제등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집행위원 신아가 감독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이후 <신성일의 행방불명>(2006), <방과후 옥상>(2006), <두 얼굴의 여친>(2007) 등 연출부와 조감독을 거쳐 2011년 종교와 가족, 연명사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인 <밍크코트>를 이상철 감독과 공동으로 각본 및 연출했다. 2013년 인권위원회 제작 옴니버스 시리즈 <어떤 시선>(2013)의 <봉구는 배달중>, 2018년 두 여성의 갈등과 미술계 이야기 <속물들>을 공동 연출했다. 현재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이야기 및 기타 아이템들을 기획, 개발중이다.



프로그래머 윤단비감독

대한민국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로,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편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2020)은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 KTH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시민평론가상 4개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제 45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선택상 제49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밝은미래상 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 및 수상하였다. 또한 2021년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생활의 길잡이>(2012), <불꽃놀이>(2015) 등의 단편부터 <남매의 여름밤>까지, 가족과 인물 정서에 대한 관심이 담긴 작품들을 연출했다.



프로그래머 임선애 감독

홍익대학교 광고멀티미디어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과정 극영화시나리오를 전공했다. 스크립터, 시나리오작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등을 거쳐 첫 장편 연출작인 <69세>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경쟁 섹션 KNN 관객상, 2020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또한 <69세>를 통해 여성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현실 자각과 고민의 장을 연 공로로 YWCA가 수여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래머 한가람 감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2017년 <장례난민>으로 제16회 미쟝센단편영화제에서 비정성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0년 첫 장편 데뷔작인 <아워 바디>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과 세련된 연출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이 작품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3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43회 홍콩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 및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한국 독립영화계의 유망주로 손꼽히며 현재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E NEXT!

벡델데이 2021의 슬로건은 Be Next입니다.
벡델데이의 머리글자인 Be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여성 캐릭터와 서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염원을 담아 Be Next를 2021 벡델데이의 방향성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슨 벡델’이 고안한 벡델테스트는 해당 영화에 여성이 얼마나 자주,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와야 하며
둘째,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셋째,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얘기가 아니다.
작년 ‘벡델데이 2020’은 현시대를 반영하여 벡델테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기준을 만들었고, 관객들에게 이를 알리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벡델데이 2021’은 벡델테스트에 부합하는 영화를 알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미지의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법과 그 고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벡델데이 2021 프로그래머 윤단비





벡델데이의 캐릭터인 ‘벡델’을 토대로 제작된 ‘벡델데이 2021’의 포스터 2종이다. 첫 번째 포스터에서는 시소 위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벡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벡델'을 중심으로 모든 배경과 물체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요소에는 벡델리안의 평등 세계라는 새로운 가상 세계 이미지를 만들어낸 포스터 디자이너의 깊은 의도가 숨어있다. 포스터 디자인을 담당한 스푸트닉은 벡델데이의 상징인 '균형의 눈'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포스터 곳곳에 여러 디자인의 눈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벡델데이가 지향하는 한국영화계의 성평등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포스터에는 '벡델'이 일곱 번째 계단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포스터 속의 7개의 계단은 '벡델 테스트'의 7가지 항목을 상징한다. ‘벡델’이가 마지막 일곱 번째 계단에 다다른 모습을 통해 '벡델 테스트'의 7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벡델리안을 보여준다. 이처럼 벡델데이의 상징과 방향성을 모두 담아 의미를 더했다.

포스터 디자인: 스푸트닉



벡델데이의 상징인 '균형의 눈'을 가진 캐릭터 ‘벡델’

'벡델'을 만든 애니메이션 작가 함준서는 “낯선 타자의 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기도 한 형태로 디자인했다“고 말하며 “이 크리처가 갖는 많은 눈들은 영화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작업 의도를 밝혔다.

캐릭터 디자인: 함준서 애니메이션 작가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벡델데이 2021 애니메이션 트레일러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감독인 강민지 감독이 제작했다. 2006년 단편 <뽀루지>를 시작으로 10여 편의 실험적인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온 강민지 감독은 MBC, SBS, GS칼텍스 등 기업 광고 및 이음센터, 사랑의 열매 등 기관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전시와 뮤직비디오 감독 등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트레일러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벡델데이 2021가 지향하는 ‘그 다음’을 위해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하나의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강민지 감독은 “‘벡델데이’가 지향하는 건강한 한국영화 생태계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마음속에 시도해 보고 싶었던 생각들을 펼칠 수 있어 즐겁고 뿌듯했던 경험이었다” 라고 제작 소감을 전했다.

메인 트레일러

<벡델데이 2021>의 메인 트레일러는 임대형 감독이 제작했다. 임대형 감독은 장편 데뷔작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2017)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 국내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예 감독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두 번째 장편 <윤희에게>(2019)로 한 여성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제41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특히 <윤희에게>(2019)는 지난해 '벡델초이스 10' 중 한 편이자, 주연이었던 김희애 배우는 '벡델리안'으로 선정된 바 있어 임대형 감독과 <벡델데이>는 여러모로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이번 <벡델데이 2021> 메인 트레일러에 대해 임대형 감독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촬영감독님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영감을 얻었다. 영화를 만드는 구조 속에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촬영 감독에 대해 조명하고 싶었다” 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예수정 배우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시는 조선 최초의 여성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故 김명순 작가의 1922년 작품 ‘고혹 蠱惑’ 이다. 임대형 감독은 “이 시가 마치 2021년의 여성 촬영감독들을 응원하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고 말하며 “여성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벡델초이스10
&벡델데이

벡델초이스 10 심사 개요

심사일시: 2021.7.30(금) 17:00
장　　소: JK 필름 4F 회의실
심사위원: 김동령·신아가·조원희 감독, 함연선 평론가,
권김현영 여성학자, 이동하·최정화 대표, 이보람 작가,
봉태규 배우

심사총평

지난 1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개봉 영화들의 편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도 올해의 벡델초이스 10편이 선정되었다. 먼저 벡델데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7가지 모두를 통과할 수 있는 작품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한국영화계는 시대가 요구하는 성평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으려는 인물과 이야기들이 독립영화 뿐 아니라 상업영화 내에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었다.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들은 최종 10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과연 영화의 성평등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영화의 내용과 형식, 산업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치열하게 논의하였다. 향후 벡델 테스트라는 기준이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올해 선정된 벡델초이스 10편을 소개한다.

심사위원 김동령 · 신아가 감독



69세

한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남성인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사회가 합의한 법에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해 보이는 이 사건은 여성의 나이가 69세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경계선이 흐릿해진다. 통상적으로 할머니라 불리던 이 여성은 편견으로 단단해진 사회에 정면으로 부딪친다.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무너져도 멈출 수 없다. 생각해본다. 어쩌면 사회가만들어 놓은 단단한 편견에 나도 한 겹을 덧대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69세의 여성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용기를 낸다고 말한다. 이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다. 그러게.. 나도 살아있고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기에 나는 이 영화가 참으로 귀하고 고맙다.

-심사위원 봉태규 배우









감독　임선애
작가　임선애
주연　예수정 기주봉
제작　박관수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69세 효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세의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긴 고민 끝에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경찰과 주변 사람 모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효정을 치매 환자로 매도하고, 법원 역시 나이 차이를 근거로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효정은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향한 일갈을 준비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69세의 나를,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작가 김훈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를 보면서 이제 저 문장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노동자는 혼자 울어야 한다. 끌어안고 울 사람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죽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그런 사회구조를 담담하면서도 정확하고 깔끔하게 담아내고 있다. 드디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노동 영화(노동을 주제로 다룬)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

-심사위원 이보람 작가









감독　이태겸
작가　김자언 이태겸
출연　유다인 오정세
제작　김주원 김태호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하청 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은 정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보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불편해하고, 현장 일은 낯설다.
그러나 반드시 1년을 채워 원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은은
‘막내’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가는데…
1년의 파견,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도약하다!



남매의 여름밤

성장 중에 있는 여성 캐릭터가 중심 서사를 이루는 영화는 최근 한국 독립영화의 주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다. 하지만 엄마의 부재, 재개발 지역과 무력한 어른이라는 한국 성장 영화 특유의 버릇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영화는 많지 않다. 윤단비 감독의 선예도 높은 감정 연출과 그것을 청정하게 드러내 준 옥주 역 최정운과 고모 역 박현영의 연기력 연대가 이 작품을 특별하고 신비롭게 만들었다.

-심사위원 조원희 감독









감독　윤단비
작가　윤단비
출연　양흥주 박현영 최정운 박승주
제작　오누필름

방학 동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남매 옥주와 동주,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의 여름이 시작되고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내가 죽던 날

직장에서 유능함을 인정받던 형사 '현수'는, 변호사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도리어 이혼소송을 당한 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아온 세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복직을 바라는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어느 섬에서 일어난 '한 소녀의 시체 없는 실종사건'을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 영화는 쓰러질 듯 다시 일어나 결코 질문과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김혜수 배우의 정점에 이른 깊은 연기에 힘입어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국 관객이 도달하게 되는 것은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가 아니다. 이 영화의 뛰어난 반전은 바로 우리가 쫓아온 것이 한 소녀의 '실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여성들, 달리 말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약자들의 실종된 '이야기'였음을 알려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미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심사위원 김동령 감독









감독　박지완
작가　박지완
출연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
제작　장진승 권남진

그리고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외딴섬 절벽 끝에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녀가 사라진다.
오랜 공백 이후 복직을 앞둔 형사 '현수'는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소녀의 실종을 자살로 종결 짓기 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소녀의 보호를 담당하던 전직 형사, 연락이 두절된 가족, 그리고 소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마을 주민 '순천댁'을 만나 그녀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던 '현수'는 소녀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에 가슴 아파한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는 소녀에게 점점 더 몰두하게 된 '현수'는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 앞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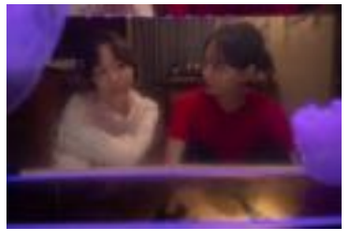
디바

친구인 두 여성이 갈등하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 소비되어왔다. 그러나 이 영화 <디바>는 두 인물의 이른바 '캣파이트'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 이영의 내면 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 심리를 파고들고, 이 서사 자체가 미스터리 스릴러 구조의 장르물로 훌륭하게 구축된다.
어느 누구도 1등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면 그 뒤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뛰어난 자와 처지는 자. 반대편의 입장에 모두 서게 된 그녀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이 공평하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감독의 시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심사위원 신아가 감독









감독　조슬예
작가　유영선 조슬예
출연　신민아 이유영
제작　김윤미 김요환

두려움의 높이, 10미터 다이빙대의 끝에서 아름답게 낙하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다이빙계의 디바 '이영'은 어느 날 동료이자 절친 '수진'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다.
사고 후 실종된 '수진'을 향한 '이영'의 애틋함과 달리 동료들은 '수진'에 대해 의문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영'은 완벽한 실력을 되찾아야만 한다.
결국 최고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왔던 '수진'이 자기가 알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영'을 점점 광기로 몰아넣는데…
다이빙계의 디바. 알 수 없는 깊이의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다



빛과 철

교통사고로 두 대의 차가 부딪힌다.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산다. 영화에서 피해와 가해를 가르는 교통사고는 돌발적인 사건일 뿐 그 자체로 진실은 아니다. 아니,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앎은 정말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가. 사고 후 병상에 2년째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는 영남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쉽게 단정하고,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시동이 좀 늦게 걸리지만 한번 탑승하고 나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권김현영 여성학자









감독　배종대
작가　배종대
출연　염혜란 김시은 박지후
제작　남정일 서호빈 문영화

두 여자가 한 교통사고로 남편들을 잃었다.
희주의 남편은 죽었고, 영남의 남편은 2년째 의식불명.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희주는 우연히 영남을 맞닥뜨리고,
영남의 딸 은영은 희주의 주위를 의뭉스럽게 맴돈다.
하나의 사건, 각자의 이유, 조각난 진실…
빛과 빛, 철과 철이 부딪치던 그날 밤의 비밀이 밝혀진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 영화는 여성과 환경, 내부고발 이라는 쉽지 않은 화두에 9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소환해서 레트로와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과 소통한다. 그것도 젊은 여성 배우 세 명을 전면에 내세워서. 각각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주인공 고아성, 이솜, 박혜수의 조화로운 연기력의 에너지는 놀랍다. 배우들의 활기찬 앙상블을 이끌어내고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코지 미스터리(평범한 인물의 탐정물)'라는 장르로 연출해낸 감독의 내공도 상당하다.

-심사위원 이동하 제작자









감독　이종필
작가　홍수영 손미
출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제작　박은경

"마이 드림 이즈 커리어우먼"
1995년, 토익 600점만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
입사 8년차 동기인 말단 여직원들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모인다!
실무 능력 퍼펙트, 현실은 커피 타기 달인인 생산관리3부 오지랖 '이자영'(고아성),
추리소설 마니아로 뼈 때리는 멘트의 달인 마케팅부 돌직구 '정유나'(이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실체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달인 회계부 수학왕 '심보람'(박혜수)은
대리가 되면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푼다.
내부고발이라도 하게? 나서지 마. 우리만 다쳐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 '자영'은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세 친구는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를 시작하는데…

아이 캔 두 잇, 유 캔 두 잇, 위 캔 두 잇! 회사와 맞짱 뜨는 용감한 세 친구!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 모교

이 세상 어디에나 괴담은 있다. 군대에도, 화장실에도, 유럽의 어느 고성에도...
여고. 가장 역동적이고 센시티브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질시도 있는 곳. 그 안에 삶이 있다.
이곳에서 괴담이 흘러 나온다.
1998년에 시작된 여고괴담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신인 여성 배우들의 등용문이던 이 시리즈는 2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 여성 배우들의 산실이 되었다. '벡델초이스 10'을 논함에 있어 여고괴담을 빼고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심사위원 최정화 PGK 대표









감독　이미영
작가　이미영
출연　김서형 김현수 최리 김형서
제작　이춘연

고교시절의 기억을 잃은 '은희(김서형)'는 모교에 교감으로 부임한 후부터
알 수 없는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아로 내몰린 '하영(김현수)'은 홀리듯 들어간 학교의 폐쇄된 화장실에서
귀신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곳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은희(김서형)'와 마주친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화장실에 있는 존재와 연관됐음을 알게 되고,
곧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기억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콜

20년이라는 시차를 넘어 전화로 연결된 두 여자, 서연과 영숙의 만남은 불편하고 때로는 기이하다. 그 불편함과 기이함의 대부분은 영숙에서 기인한다. 섬뜩하게 현재를 옥죄는 과거는 90년대의 외피를 쓰고 영숙이라는 캐릭터로, 그리고 배우 전종서의 얼굴과 목소리로 구체화된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여성간의 '적대'로 이뤄졌기에 더 전형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을 극의 흐름이 전종서의 연기 덕분에 그 나름의 개별성과 매력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연대만큼이나 소중한 적대다.

-심사위원 함연선 평론가









감독　이충현

작가　강선주 이충현

출연　전종서 박신혜

제작　임승용

"거기 지금 몇 년도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박신혜).
집에 있던 낡은 전화기를 연결했다가 '영숙'(전종서)이란 이름의 낯선 여자와 전화를 하게 된다.
'서연'은 '영숙'이 20년 전,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우정을 쌓아간다.
"내가 말했지, 함부로 전화 끊지 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서연'과 '영숙'은 각자의 현재에서 서로의 인생을 바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영숙'은 20년 전 죽은 '서연'의 아빠를 살려주고, '서연'은 '영숙'의 미래를 알려준 것.
그러나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알게 된 '영숙'이 예상치 못한 폭주를 하면서 '서연'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금기를 깨버린 전화 한 통
살인마가 눈을 뜬다



혼자 사는 사람들

콜센터 상담원 진아는 얼토당토않은 고객의 요구에도 흔들림 없이 친절하게 응대한다. 아마도 비결은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일게다. 모친상을 당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진아는 동요가 없다.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콜 받는 게 더 편하다며 신입교육 업무를 꺼리고 아파트 이웃이 건넨 인사도 무시한다. 진아가 방어적 무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할수록 사람들의 표정 역시 조금씩 굳어간다. 대사만큼이나 표정이 중요한 영화인데, 능숙한 무표정과 서툴기 짝이 없는 감정 표현을 대비시킨 공승연의 연기는 발견이라고 할 만큼 대단하다. 1인가구, 감정노동자, 여성의 삶에 대한 민족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권김현영 여성학자









감독　홍성은

작가　홍성은

출연　공승연 정다은

제작　조성원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 혼자가 편한 진아.
사람들은 자꾸 말을 걸어오지만, 진아는 그저 불편하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1:1 교육까지 떠맡자 괴로워 죽을 지경.
그러던 어느 날, 출퇴근길에 맨날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죽음 이후, 진아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이는데…

저마다 1인분의 외로움을 간직한, 우리들 이야기

감독상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



신용카드 회사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진아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 그녀의 주변엔 아버지도, 직장상사도, 동료직원도, 아파트 옆집 사람도 존재하지만 진아는 그들과 관계형성을 거부하고 오로지 나만의 세상에서만 살아간다. 그녀가 유일하게 이어폰과 함께 하지 않을때는 집이라는 공간에 홀로 있을 때이다. 이어폰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동시에 세상을 차단하는 아이러니한 매개체이다.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0프로에 육박하고, 혼자사는 삶이 멋지고 자유롭다고 포장하는 예능이 대세로 자리 잡은지 벌써 여러 해인 2021년. 펜데믹 상황을 메타포로 활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않는 개인들의 내면을 조용하지만 사려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영화 속 모든 인물들은 '혼자'라는 키워드속에서 고유의 캐릭터성을 발휘하며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히 주연을 맡은 공승연 배우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절도있고 완성도 높은 연기를 보여준다. 자신이 스스로 거리를 두고 거부했던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작별인사를 건네는 영화의 결말은 앞으로 그녀가 '따로 또 같이' 잘 지낼 것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고독사 다큐멘터리를 본 뒤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다는 홍성은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기대되는 이유다.

-심사위원 신아가 감독

작가상

내가 죽던 날
박지완 작가 겸 감독



<내가 죽던 날>은 여러모로 담대하고 뛰어난 영화다. 김혜수가 연기한 현수를 비롯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들은 모두 자신이 믿었던 안전한 세계가 무너져도 끝까지 자신을 버리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주인공 현수는 마땅히 '죽음'과 함께 사라져야 할 보잘 것 없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길어 올린다. '자살 당해 온' 약자들의 이야기는 약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약자의 연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탈주한다. 영화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미스테리물로 담대하게 풀어낸 박지완 감독/작가에게 무한 경외를 보낸다!

-심사위원 김동령 감독

배우상

빛과 철
염혜란 배우



올해 벡델초이스10을 선정하면서 본 많은 영화 속에서 그녀가 있었다. 남편을 사고로 잃은 부인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조카를 보는 이모로, 술집을 운영하는 마담으로, 미술학원 선생으로, 그녀는 각기 다른 존재로 각각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조연으로, 특별출연으로 그곳에 있었다. 이번 심사를 끝내고, 어느 한 영화가 기억에 남기보다는 각기 다른 얼굴로 나타났던 그녀의 모습이 가장 많이 잔상에 남았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많은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공의 옆을 지나가는 찰나의 역할 속에서도 기어이 어떠한 얼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힘든 삶의 순간에서 만나고 싶은 선배, 동료, 친구, 어른의 모습이었다. 염혜란이란 배우의 얼굴은 그런 낭만을 품고 있다.

-이보람 작가

제작자상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박은경 제작자



코로나 여파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많은 영화들이 배급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작년 가을.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극장. 사람들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보러 다시 극장을 찾기 시작했다.

대기업에서 영어강사를 했었던 작가의 경험을 녹여 '페놀방류사건'과 '미투운동'을 축으로 초고를 완성했고 제작자는 감독에게 연출제안을 하며 "1990년대가 배경이고 상고 나온 대기업 말단 여자 직원들이 파이팅하는 이야기"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제작자는 쉽지 않은 이 영화의 제작을 시작했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파이팅'을 외치는 자영, 유나, 보람(주인공 3인방)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다. 박은경대표는 '삼토반'의 제작자로서 벡델리안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삼토반' 모든 제작진의 노고를 대표해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 이동하 제작자

벡델
클래스

1부 벡델 클래스

‘김초엽 작가 마스터 클래스’ WITH 이화정 기자





1부 벡델 클래스는 이화정 기자의 진행으로 김초엽 작가의 창작 방법론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이 영화계 성평등 지수에 관한 분석, 대담으로 현재 영화계 안팎의 성평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공유한다면, 벡델 클래스에서는 한국 영화 안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여성 서사를 창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다. 최근 문학과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영화계가 조금 느린 걸음을 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에서 SF문학 장르 안에서 빛나는 여성 서사를 만들어낸 김초엽 작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

김초엽 작가는 실질적인 창작 방법론과 고민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껏 만들어지지 않았던 세계가 어떻게 발굴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벡델 클래스가 여성 창작자들뿐 아니라 여성 서사를 창작하는 창작자들, 또 새로운 서사를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건강한 자극과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길 바란다.

- 벡델데이 2021 프로그래머 윤단비

1부 벡델 클래스

‘김초엽 작가 마스터 클래스’ WITH 이화정 기자





벡델데이 2021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1부에 김초엽 작가와 이화정 기자가 함께하는 벡델 클래스를 마련했다.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김초엽 SF 소설 작가와 함께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SF 장르 속 여성 서사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통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초엽 작가만의 글쓰기 노하우와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김초엽 작가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하게 되는 이야기나 질문이 조금 비슷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여성 캐릭터와 창작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벡델데이와 함께한 소감을 전했다.



벡델
심포지엄

벡델데이 2021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영화의 여성감독을 위한 사다리가 끊어졌다’였습니다. 이 주제의 첫 시작은 1회 벡델데이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관객분이 던진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왜 벡델테스트를 만족하는 영화는 독립, 저예산 영화에서만 활발히 제작되고 상업영화에서는 보기가 어려운가?”

한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과 관객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영화의 이미지를 주로 만들어내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주류 상업영화들입니다. 그러나 대학 영화과의 여학생 비율이 50퍼센트를 상회하고, 자신의 장편을 영화제에서 상영하거나 개봉하는 여성감독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상업영화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한 여성감독은 극소수입니다. 2021 심포지엄은 이점에 주목하여 상업영화에서의 여성감독의 위치와 현실, 젊은 여성감독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영화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해보기로 했습니다. 1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AI가 분석한 벡델 초이스10과 작년 한국영화 흥행 20편 영화속에서의 성평등 지수 분석발표>, 조혜영 박사의 <2020 한국영화 산업의 성평등 현황과 다양성의 문제>발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변영주감독, 원동연 대표 두분의 토론자와 함께 한국영화 전반에 걸친 성평등의 문제들과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2021 심포지엄은 한국영화산업 안에서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솔직하게 꺼내어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영화계가 성평등의 문제에서 더 이상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바로 지금부터, 한국영화는 새로운 가능성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벡델데이 2021 집행위원 김동령 · 신아가 감독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벡델 데이 2021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감정의 다양성
시간 점유율
공간 점유율
안경
나이
메이크업
주변 물체의 종류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감정의 다양성
Emotional Diversity

AI가 8가지의 카테고리의 감정을 측정

감정의 다양성(Emotional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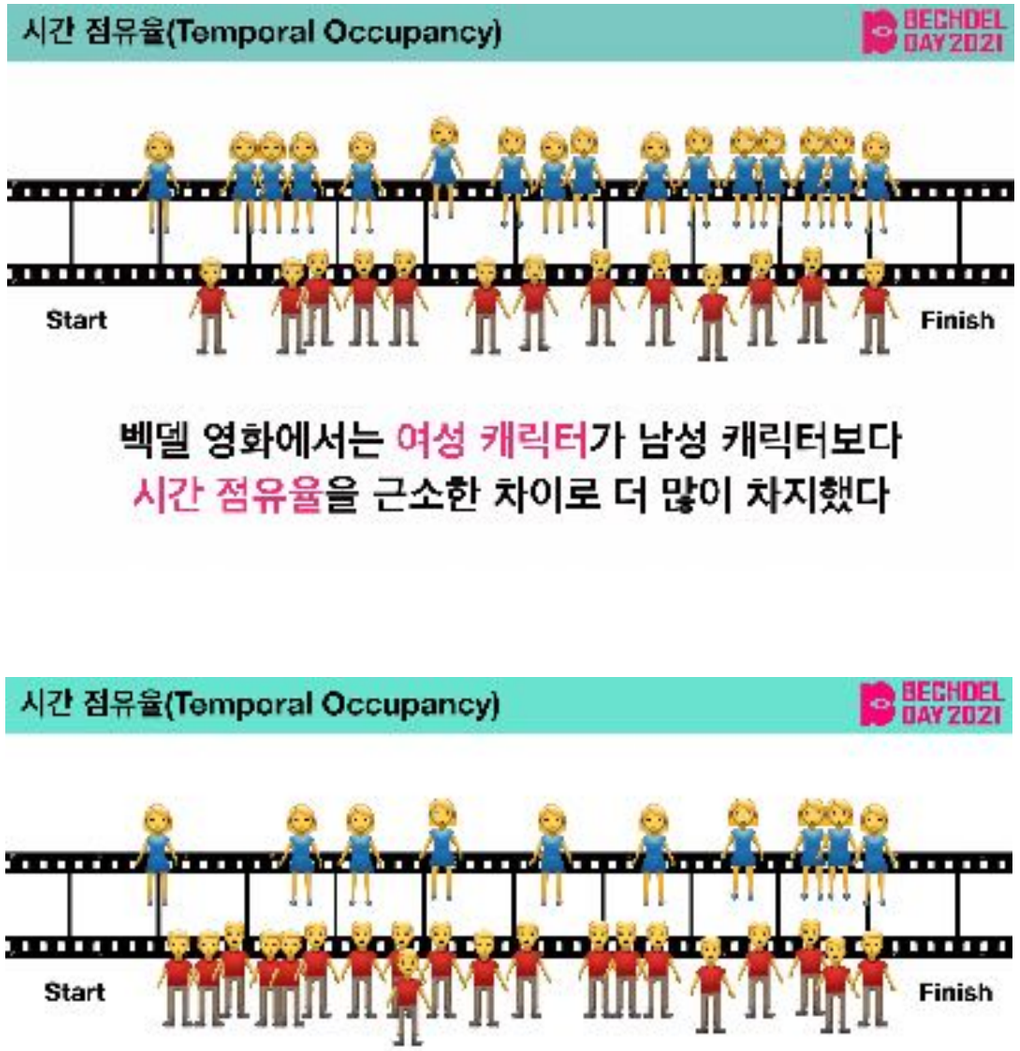




시간 점유율
Temporal Occupancy

영화 전체에서 남녀 캐릭터의 빈도수 분석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시간 점유율(Temporal Occupancy)

BECHDEL DAY 2021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중심의 서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점유율
Spatial Occupancy

화면에서 배우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 측정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공간 점유율(Spatial Occupancy)

BECHDEL DAY 2021



벡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더 많은 공간 점유율을 차지했다(여:249, 남:193)

공간 점유율(Spatial Occupancy)

BECHDEL D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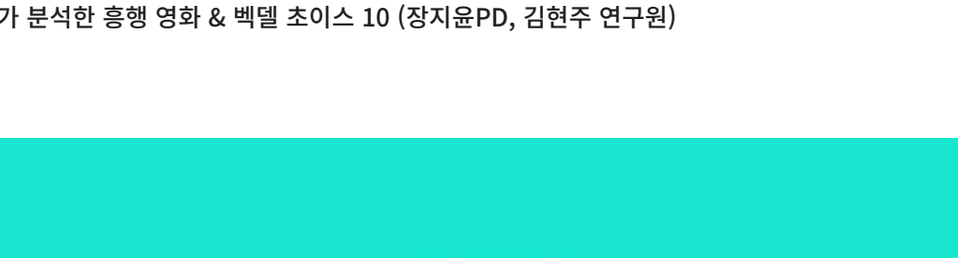


흥행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더 많은 공간 점유율을 차지했다(여:225, 남:246)

나이

Age

AI가 측정한 남녀 캐릭터 나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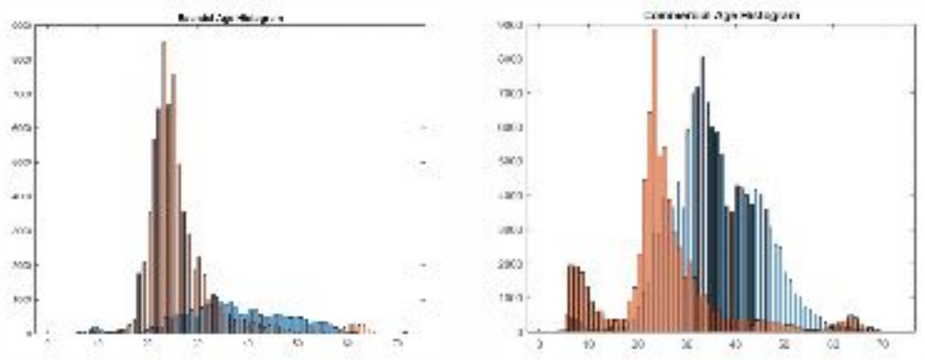
벡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7.4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5.9세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흥행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5.2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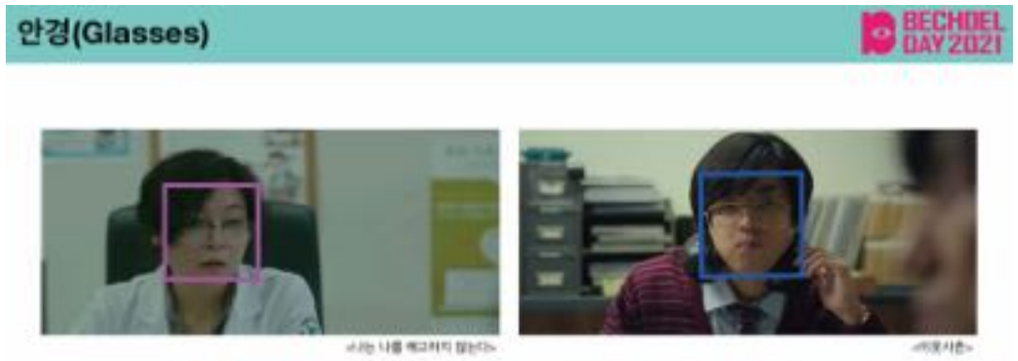
나이(Age)



영화에서 여성은 10~20대, 남성은 30~50대를 대표

안경
Glasses

남녀 캐릭터의 안경착용 여부 측정을 통한 외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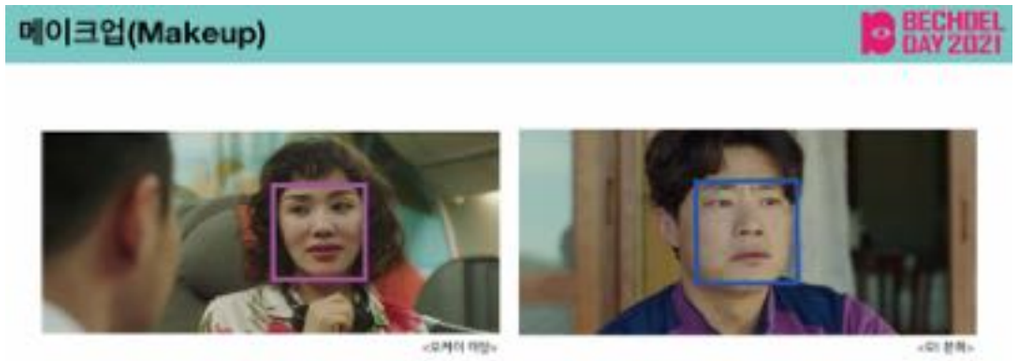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남성 캐릭터의
안경 착용이 여성 캐릭터보다 많았다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메이크업
Makeup

눈과 입술 메이크업 여부 측정을 통한 외양 분석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여성 캐릭터의
메이크업 선명도가 남성 캐릭터보다 높았다

주변 물체의 종류

Type of surrounding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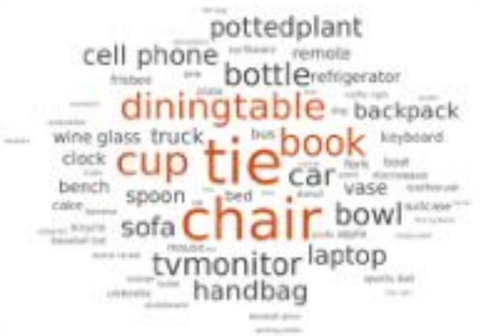
남녀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동시에 등장한 물체 분석







홍행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물체



홍행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물체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주변 물체의 종류(Type of surrounding object)





2부 벡델 심포지엄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 & 벡델 초이스 10 (장지윤PD, 김현주 연구원)

주변 물체의 종류(Type of surrounding object)



벡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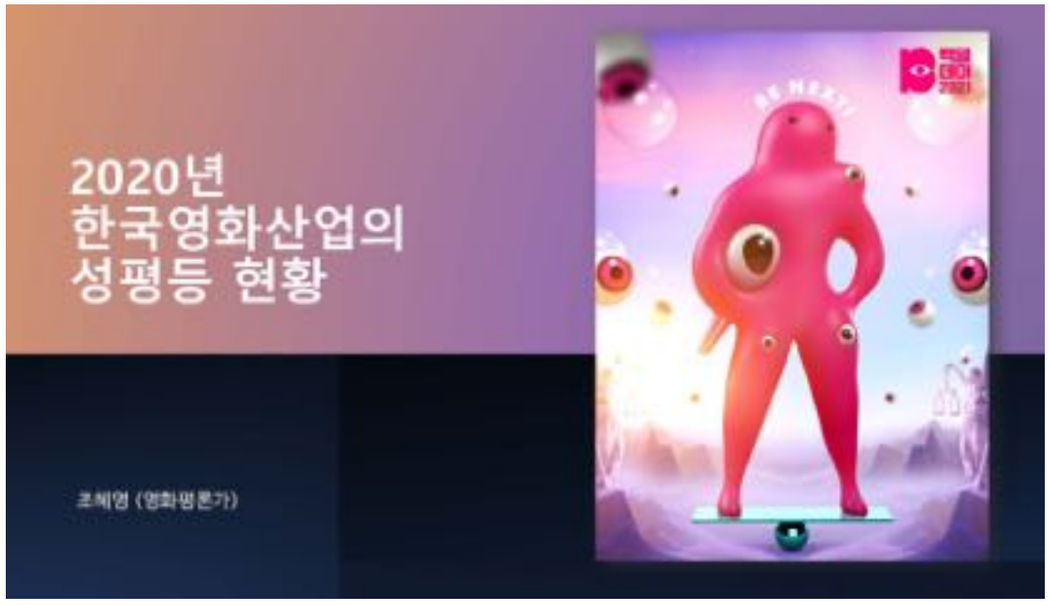


벡델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물체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조혜영 박사

영화평론가 및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영상문화와 관련된 강의 및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운영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프로젝트38 연구원으로 있다.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다양한 한국영화를 위한 질문들

- 누가, 어디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
- 그 이야기는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와 주제를 포함하는가?
- 다양한 인력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감독 성비 (극장개봉)



감독 성비 (순제작비 30억 이상)



프로듀서 성비 (극장개봉)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촬영감독 성비 (극장개봉)



주연 성비 (극장개봉)



주연 성비 상세

개봉

2020년	여 감	여 여	남 여	남 남
- 드라마	38	28	47	40
- 상업성	44.8%	17.5%	37.5%	31.5%

순제 30억 원 이상

2019년	여 감	여 여	남 여	남 남
- 드라마	7	1	14	23
- 상업성	14.3%	2.1%	41.2%	31.1%

2021	여 감	여 여	남 여	남 남
- 드라마	3	4	9	9
- 상업성	37.5%	18.2%	47.6%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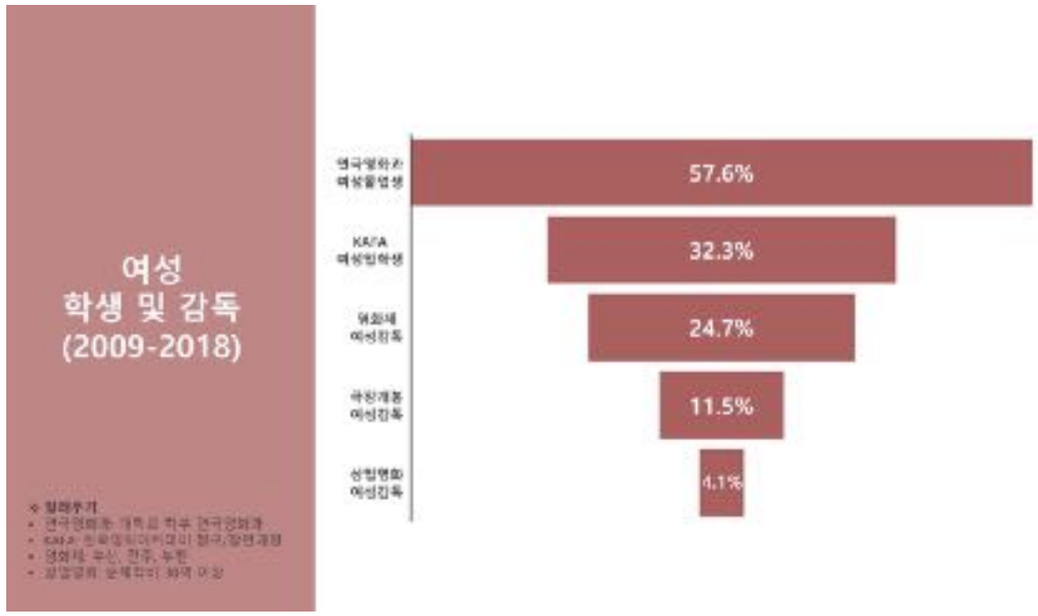
감독과 주연 성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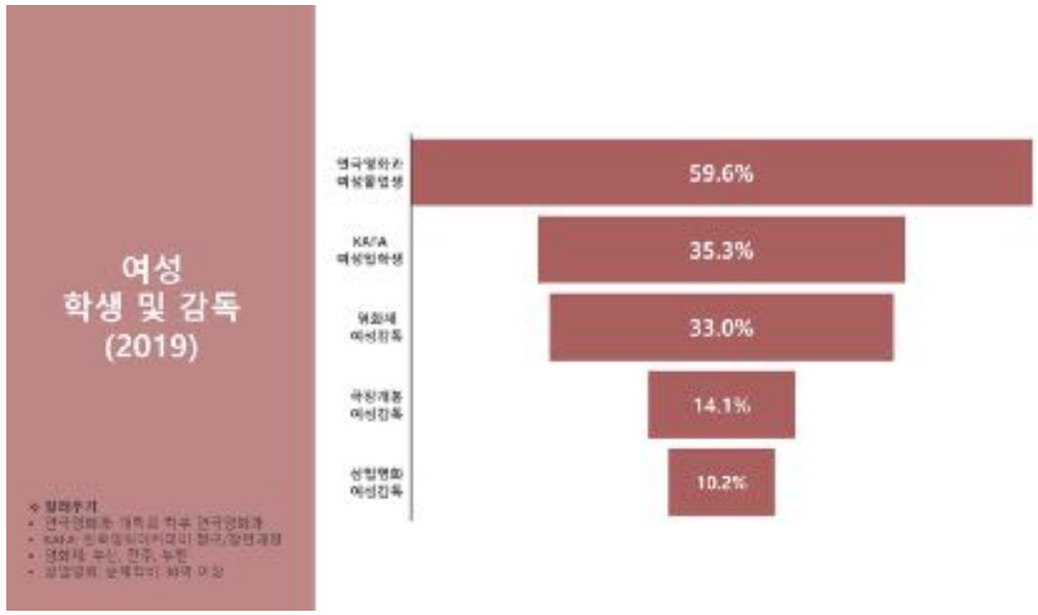
2020년 한국 개봉 영화

구분	여성 감독		남성 감독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여성 주연	22	71.0	73	34.7
남성 주연	9	29.0	81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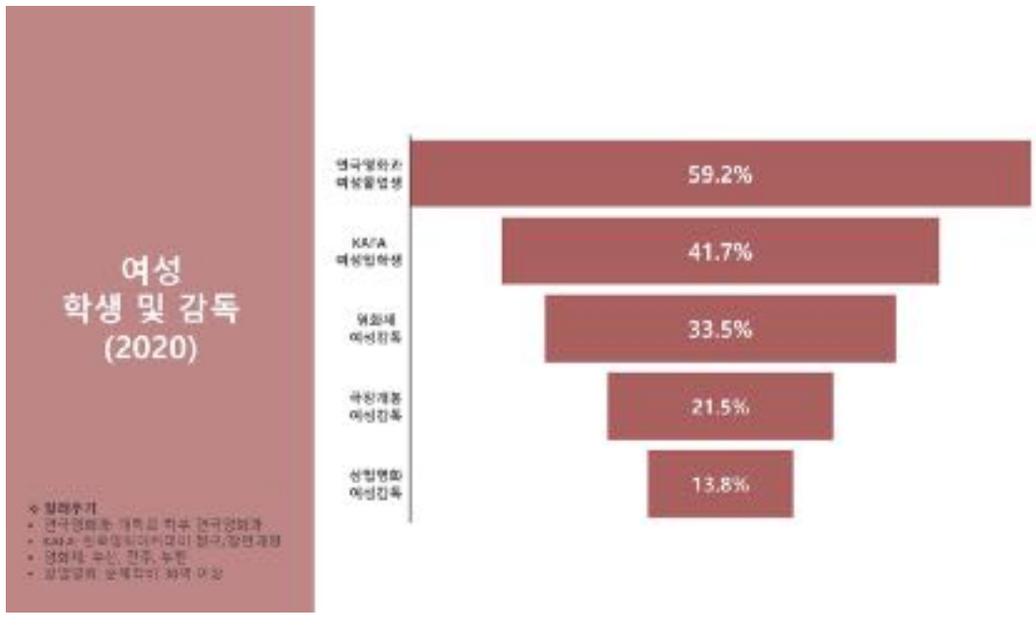
2020년 한국 순제작비 30억 이상 영화

구분	여성 감독		남성 감독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여성 주연	2	100.0	5	32.0
남성 주연	0	0.0	17	68.0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2020년 3대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감독성비

구분	관객 선별	부산		전주		[illegible]	
		성비 (참여감독수)	비율	성비 (참여감독수)	비율	성비 (참여감독수)	비율
성별 (정보 미표기 제외)	여성	15 (26)	30.6%	30 (71)	42.6%	21 (36)	30.9%
	남성	34 (56)	69.4%	40 (94)	57.4%	48 (88)	69.1%
장편	여성	15 (24)	32.6%	23 (61)	62.2%	6 (17)	24.0%
	남성	31 (52)	67.4%	14 (37)	37.8%	19 (75)	76.0%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2020년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여성 감독		남성 감독	
	편수 비중(%)	제작금액 비중(%)	편수 비중(%)	제작금액 비중(%)
신규 제작	52.0	40.0	48.0	59.7
구작	35.0	27.1	65.0	72.9

2018년 한국영화 흥행 30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벡델 테스트



1. 이름 있는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하는가?
2. 두 여성이 서로 대화하는가?
3. 남성에 대한 이야기 외의 대화를 나누는가?

2020년 한국영화 흥행 30위

벡델테스트

53.6%

구분	조건 1 (영화 – 주인공 성별)	주수 (내용)	벡델 테스트 통과 주수
여성 주인공	예	2편 (6.7%)	1편
	아니오	2편 (6.7%)	0편
남성 주인공	아니오	7편 (23.3%)	3편
	아니오	19편 (63.3%)	2편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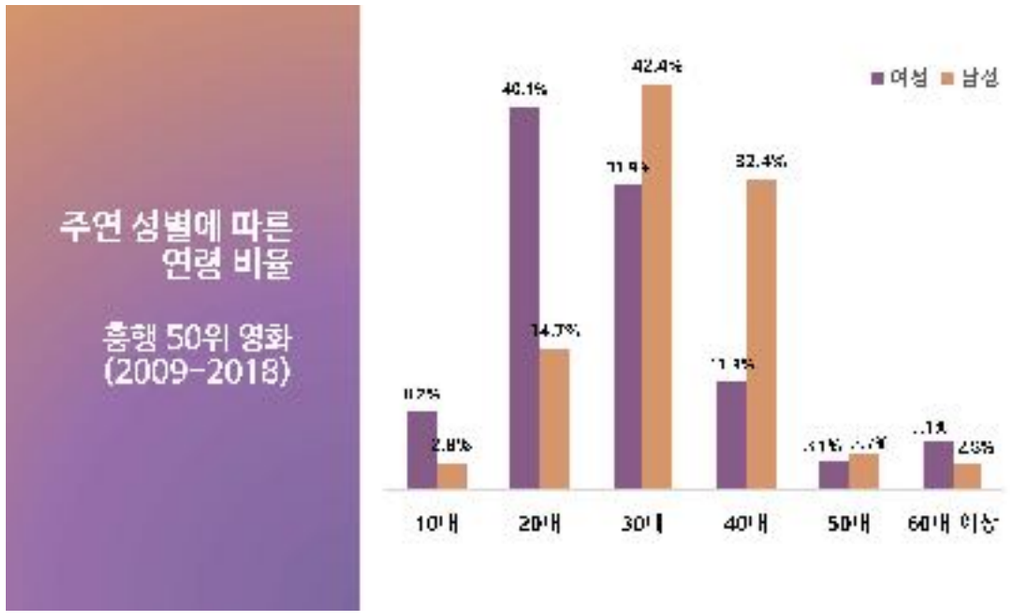


1. 남성의 구술을 받는가?
2. 남성 인물을 곤경에 빠트리는가?
3. 남성집단의 구책 발추기나 감초로만 소비되는가?
4. 들봄이 외무나 본성으로만 부여되는가?
5.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 대상으로만 국한되는가?
6. 과도한 성애화의 대상으로 규정되는가?
7. 자기 서사 없이 범죄의 피해자로 전시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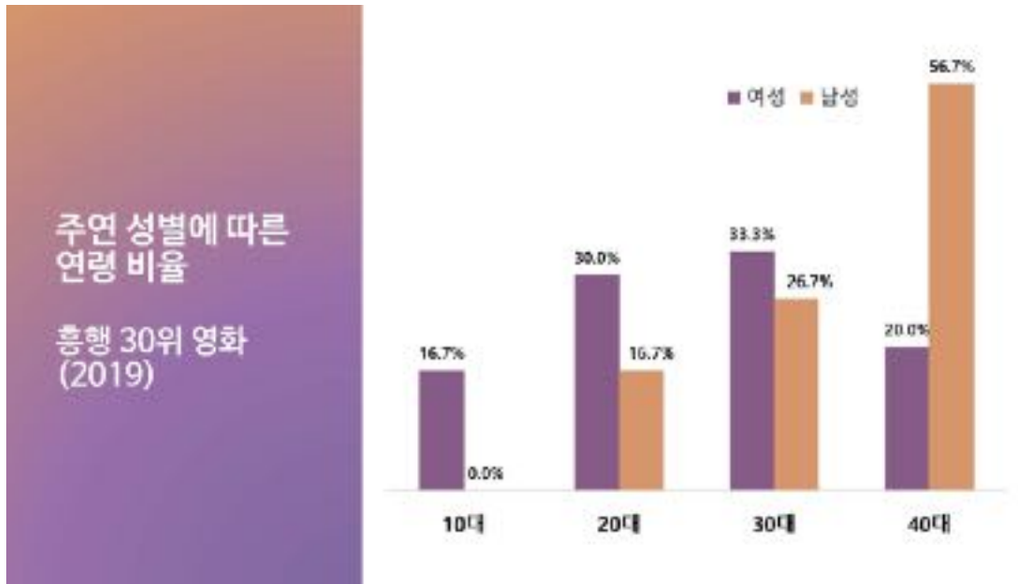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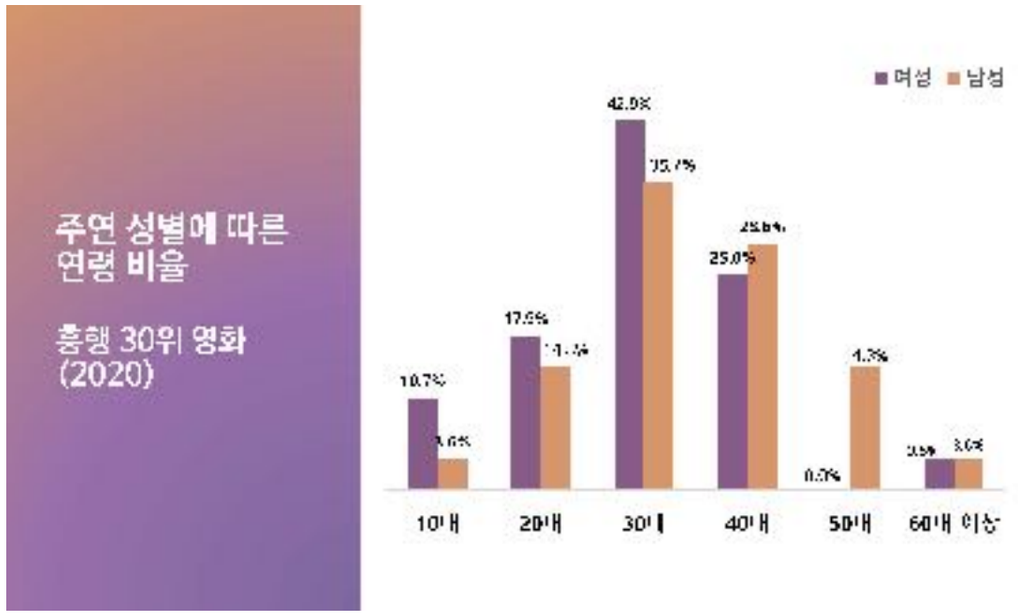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다양성 테스트

분석대상
- 성적 소수자
- 장애인
- 다양한 인종·종족·국가

조사항목
- 해당 정체성의 인물 존재 여부
- 스크린 타임
- 스크린 대사 유무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한국사회 소수자 포용도

포용도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	나의 직장동료	나의 절친한 친구	나의 배우자
장애인	3.6	22.7	38.7	32.5	2.5
동성애자	9.9	29.7	29.0	16.2	2.0
성적 이민자	16.3	30.5	37.7	12.9	1.7
조선족	57.0	24.0	11.6	4.3	0.0

「2020년 한국 사회 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다양성 테스트

2011-2018(흥행 50위) & 2019-2020(흥행 30위)



한국사회 -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민족,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

넷플릭스
다양성 보고서 발간 & 포용성·다양성 정책 선언



나영정 감독을 수석 마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첫 양성으로 하시나 대표 스튜디오 등에 5년만 근무를 시작할 계획

- 이야기의 다양성
- 인적구성의 다양성
- 접근성(언어 디바이스)
- 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첫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찾아라
둘째, 그들에게 버려지는 관심을 만들어 내
셋째,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가질하라.

영화진흥위원회 성평등 공공정책

추진배경

—정기제나 '실질적 성평등 지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추진 기제나 '성평등 분위 조성',
'양성 성평등한 영화 창작환경 지원', '성별 평등한 영화 창작환경 조성' 포함, 관련 바로 등등

수행현황

1. 영화진흥위원회 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소위원회 구성
2. 제니퍼 소신 기념 영화제 조직 및 목적지
3.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심의 시 심사위원 남녀동수제 실시
4. 한국콘텐츠 다양성을 위한 '50 : 50 by 2022' 목표 수립



✓ '영국 동등법(Equal ty Act)'을 의거
✓ 영국영화협회(B I)의 펀딩을 신청하는 영우 하나
4개 (A~D) 다양성 규준 중 최소 1 2가를 충족해야 함

A: 주제, 서사에서의 다양성
B: 창조적인 리더십 및 프로젝트 팀
C: 영화산업 내 기회 및 접근성
D: 관객 개발

일반 스탭 /조연급 및 기타 출연진 소수자 진단 비율 목표
- 50:50 성평등 실현
- 20% 영국의 흑인, 아시아인, 다수의 인종적 소수자
10% 정적 소수자로 장애인 혹은 LGBTQ+
- 7% 슬레인
- 관객 개발 및 마케팅부서 중 최소 1명

공공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 지속적인 성평등 & 다양성 보고서 발간: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성 높은 통계 발표. 다양성 및 포용성에 근거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취합 실시
- 영화기금 지원사업에서 학생 창작자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소수자 프로젝트 지원을 별도로 시행 검토
- 감독/제작, 연기 /촬영, 미술/음향 등 현장 실무 교육, 인턴/재현, 제작/배급 등 다양한 영역 다양한 경력 개발
- 한국사회에서 소수 재현과 이야기 가능 및 시각에 대한 지원
- 유급인턴제 등을 통해 성별불균형이 극심한 단계 및 직업의 현장 경험 지원
- 업계 및 영화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성평등/다양성 교육 및 소수자 두둔
- 영화진흥위원회 내 성평등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성평등 & 다양성 캠페인

2부 벡델 심포지엄

2020년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 (조혜영 영화평론가)

영화산업 내 돌봄의 문제

- 아이 혹은 부모 돌봄: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돌봄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 출산 경력이 단절되는 요인이 됨
-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사전제작-촬영이 모여 살릴 수도 있는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회복하기가 어려움
-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함
-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는 보고서를 통해 영화인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포스트코르나 시대의 다인의 돌봄 뿐만 아니라 영화현장 내에서 자기 건강의 돌봄 문제 역시 함께 제기되어야 함

다양성과 포용

- 유리천장과 유리절벽
-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 성소수자/비장애인의 그로써 공유 허용 및 / 장애 노동환경 구성
- 조기의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그—기 지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노동조건
- 장애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는 영화인력 육성
- 촬영과 제작 환경을 다양한 참여자 확대
-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의 확보: 기존의 제작되고 기획되지 못했던 목소리와 이미지의 다양한 표현
- 여성 및 다양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그려해본 관객의 목소리에 부응
- 다양성 및 포용은 영화산업의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2부 벡델 심포지엄

‘한국 영화의 끊어진 사다리, 이대로 괜찮은가’
– 변영주 감독 VS 원동연 제작자











앞선 조혜영 박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영화 산업내의 감독 직군에 관한 성별 불균형과 현재 뜨거운 이슈인 영진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영화인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변영주 감독과 원동연 제작자의 팽팽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영화가 성평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내년, 내후년에도 한국영화의 양성평등 구축과 다양성 가치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벡델
라운드테이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극장 개봉한 영화와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OTT 서비스로 공개한 영화들을 포함해 벡델 테스트에 통과한, 이른바 '벡델초이스10(텐)'을 선정했다. 그 가운데 올해의 '벡델리안'으로 선정되신 감독, 시나리오작가, 제작자, 배우를 모셔 영화의 제작배경과 과정은 물론, 성평등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랐다.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영화계 역시, 안팎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벡델데이 2021, 그 마지막 시간인 '벡델 라운드테이블'에 현장 무대 위에 있던 영화인들은 물론, 라이브 송출을 통해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관객분들의 반응에 뿌듯하고, 깊은 위로의 시간이 됐다. 벡델데이는 앞으로도 한국영화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벡델데이 2021 프로그래머 임선애 감독

벡델리안과의 대화



감독 부문 홍성은 감독

저의 너무 부족하기만한 첫 번째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의미 깊은 상을 주셔서 제 영화가 덕분에 조금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영광 주셔서 정말 감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씩씩하게 또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부문 박지완 감독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상을 받게 된 것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벡델데이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다음 작품들도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자 부문 박은경 제작자

원래 제작자상이라는 게 사실 대표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함께해 준 우리 고아성, 이솜, 박혜수 배우 외 모든 배우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현장을 따뜻하게 항상 힘차게 외쳐줬던 스텝분들 그리고 홍수영 작가님, 손미희 작가님 그 누구보다 이종필 감독님 감사합니다.



배우 부문 염혜란 배우

제가 벡델 테스트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기준을 듣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랍고 좀 당황스럽고 했습니다. 제가 출연한 작품들이 벡델 테스트에 많이 통과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백델데이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있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벡델리안과의 대화



“차별 없는 한국 영화 그다음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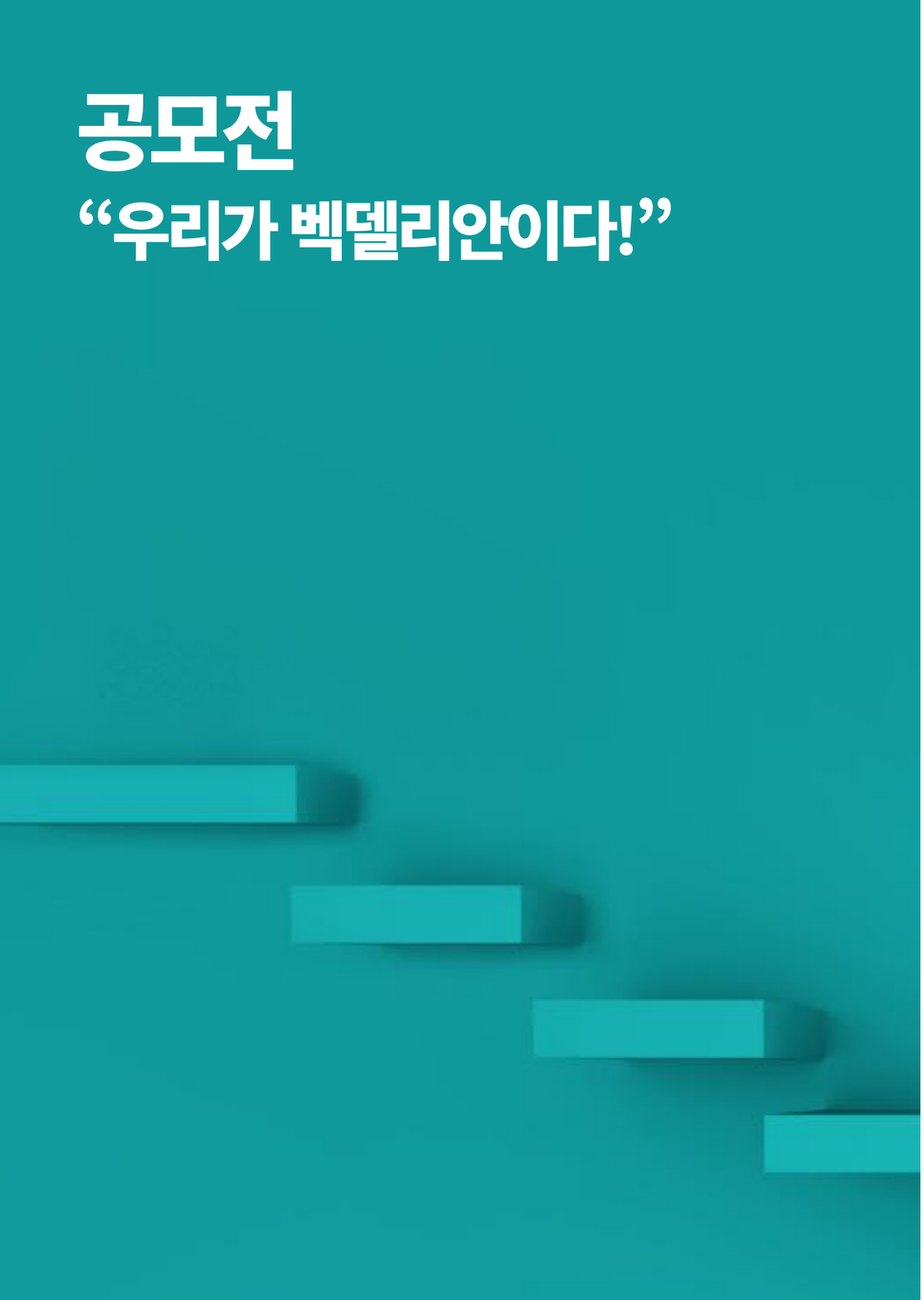
3부 벡델 라운드테이블의 '벡델리안과의 대화'에서는 변영주 감독과 봉태규 배우가 진행을 맡았다. 올해의 벡델리안으로 선정된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 <내가 죽던 날>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박지완 감독,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제작한 박은경 제작자, <빛과 철>의 염혜란 배우와 함께 “차별 없는 한 국 영화 그다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벡델리안으로 선정된 소감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영화 현장, 앞으로 한국 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보다 평등한 성별 재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낌없는 통찰을 들려주며 한국 영화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였다.







공모전
“우리가 벡델리안이다!”



벡델 단편 영상 공모전

공모 기간	2021년 7월 1일 ~ 8월 25일
공모 내용	벡델 테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3년 이내(2018년 7월 1일 이후) 제작 된 20분 내외의 영상물
영상 규격	해상도 1920*1080 MP4 형식
시상 내역	5작품 총 1500만원 최우수상 1편: 500만원 / 우수상 2편: 각 300만원 / 장려상 2편: 각 2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벡델데이 2021 <벡델 영상 공모전>에는 총 298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위원 일동은 Be Next! 슬로건에 맞추어 벡델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진일보적인 시각을 지닌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접수된 작품은 모두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작품들이었다. 깊은 논의를 통해 최우수상 부문에 <해미를 찾아서> 우수상 부문에 <굿 마더>, <작년에 봤던 새>, 장려상 부문에 <미주>, <영숙> 총 5작품을 선정하게 됐다. 이 작품들은 성 평등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리한 통찰력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들이다. 이번 <벡델데이 2021>에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이야기인 <해미를 찾아서>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성소수자 부모의 시각을 섬세하게 다룬 <굿마더>, 환경 문제와 여성의 삶 여러 화두를 세밀하게 엮어낸 <작년에 봤던 새> 두 작품 역시 여성 캐릭터를 관습적으로 그려내지 않으면서도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의 시의성을 담으면서도 연대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인 <미주>와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해야 했던 최영숙의 전기를 다룬 <영숙>을 장려상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끝까지 논의가 오갔던 <조금 부족한 여자>, <정원씨> 두 작품도 언급하고 싶다. 이 두 작품은 높은 완성도와 별개로 벡델 지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고민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벡델 지수가 주인공 한 명만이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배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이름을 가진 여성 두 명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남성과 여성 캐릭터가 연대하는 이야기는 벡델 지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했다. 현재의 벡델 지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은 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현재의 성 평등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벡델 기준을 정립하고 영화를 창작하는 데에 우리의 고민과 기준이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소중한 작품들을 출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사위원 일동 배종대, 신아가, 윤단비, 이태겸, 임선애 감독

최우수상

<해미를 찾아서> 허지은 이경호 감독

1년만에 복학한 선아가 교수의 껄끄러운 부탁을 받고 동아리방에 찾아간다.



<해미를 찾아서>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백교수가 복직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들에 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증언을 모으려는 학생들 사이에 놓인, 선아라는 인물을 따라가며 진행된다. 이 영화는 몇 해전 한국 사회에 폭로된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전히 소리 내지 못한 목소리들이 도처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의 두려움에 스스로를 해미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학생들은 결정적 증언을 해줄 아홉 번째 해미를 기다린다. 과연 해미는 우리 앞에 나타나 줄까. 영화의 마지막. 그토록 기다렸던 인물이 우리 앞에 당도하고 비로소 우리는 그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 그저 소설 속의 가상 인물일 뿐이라며 존재를 부정당했던 해미는 우리 앞에 돌아와 실존하는 목소리를 들려준다. 자신만의 언어로 써 내려간 그 문장들은 아름다운 시이면서, 또한 통렬한 선언문이며, 스스로 쟁취한 목소리이다.
굳게 닫힌 무거운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성였을, 도처에서 이름을 잃고 외로웠을 해미들에게 지지의 마음을 전하며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미를 찾아서>를 선정하였다. 의문과 긴장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서사구조와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조준된 영화언어를 구현하여, 보는 이에게 용기와 연대의 힘을 전해준 두 감독과 배우들, 제작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 배종대 감독

우수상

<작년에 봤던 새> 이다영 감독

선재와 양수가 살고 있는 공간은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되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의 논의로 인간이 인간의 환경개발에 밀려나야만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작년에 봤던 새>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작품은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였으며, 자연 개발로 인해 앞으로 사라질 새와 그러한 처지의 여성들과 사람들을 풍요롭게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서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건 선재와 양수라는 두 인물이 소중한 자연의 생명을 앞으로도 보고 싶어 하듯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또는 관계 때문이 아닐까. 선재와 양수가 아마 서로에게 『그 새』였듯이 자연의 실종을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부정적 기운을 빼주는』 그들이, 그들의 호흡법이 오래도록 필요할 것 같다.

-심사위원 이태겸 감독

우수상

<굿 마더> 이유진 감독

딸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살던 수미는 동료 김선생의 딸 결혼 축하 모임자리에 가게 된다.



딸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쿨한 척, 굿 마더인 척 살아가던 수미는 학교에서도 교장의 소위 꼰대성 발언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는 깨어있는 선생이다. 그러나 동료 김선생의 딸 결혼 축하 모임 자리에 갔다가 그의 딸과 사위를 보고는 별수 없이 동성애자인 딸(지수)에게 괜한 서운함과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 뒤늦게 지수가 엄마 모르게 애인과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온 사실을 알고 수미는 그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한다. 그런 수미에게 지수 역시 화가 나 그동안 엄마 하나는 잘 둔 줄 알았다고 하자, 수미는 이렇게 말한다.

“지수야. 너 그러는 거 엄마한테는 상처야”

동성애자를 둔 엄마의 입에서 ‘상처’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대게는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 주변부 인물들은 그들과 충돌하는 장애물로써 만 그려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영화 <굿 마더>는 시선을 움직여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 수미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지수만큼, 또 한편에서 버겁고, 낯설고, 외로웠던 엄마 수미에게까지 손을 뻗는 감독의 시선과 그 품에 감탄했다. 특히, 수미 역을 맡은 오민애 배우님의 연기는 반복해 볼 때마다 매번 심장이 저릿해 함께 울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들에 비해 너무 더디다. 수미와 지수가 살면서 그 짐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길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몫일 것이다.

-심사위원 임선애 감독

장려상

<미주> 고선영 감독

코로나 시대, 택시 운전사인 희영은 오래전 친구인 미주를 승객으로 만나게 된다. 미주는 희영을 기억하지만, 희영은 미주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희영은 자신을 만나 너무나 기뻐하는 미주를 보며 기억이 나는 척 연기한다.



영화 <미주>는 택시 운전을 하는 ‘희영’과 택시에 탑승한 승객 ‘미주’의 연대를 다룬 작품이다. ‘희영’은 자기가 기억나지 않느냐며 반가움을 표하는 ‘미주’에게 당황스러움을 느끼지만 이내 그녀를 기억하는 척 호응한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 ‘희영’에게도 ‘미주’에게도 현재 처한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를 얘기하는 ‘미주’에게는 어딘가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Covid19를 통과하고 있는 현재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마스크를 쓴 두 사람 각각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그녀들의 얼굴이 드러날 때마다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택시 안에서의 상황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가 느슨해지지 않는 것은 관계가 변하는 순간과 이후의 긴장감에 있다.
마스크 너머의 상대에게 무감해지는 세태와 패배의식이 감지되는 작품들 사이에서 이 작품이 빛나는 것은 ‘희영’이 ‘미주’를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미주’가 기억나지 않는 ‘희영’은 그럼에도 ‘미주’를 모른척하지 않고 다가간다. 그리고 그 작은 호의와 온기는 한 사람을 구해 낸다. 연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는 데에 있음을 얘기하는 작품.

-심사위원 윤단비 감독

장려상

<영숙> 라정인 감독

1923년 최영숙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갈증과 조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학업의 길을 연장하는 영숙. 마침내 영숙은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조선 최초의 경제학사가 된다. 그러나 고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돌아온 영숙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영숙>은 조선 최초의 경제학사였던 최영숙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9분여의 짧은 러닝타임에 영숙의 전 생애에 걸친 서사가 모두 얘기되어진다. 9분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가능하다. 전 생애라 하기엔 너무도 짧은 27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스톡홀름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경제학사 영숙은 조선도 여성과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가 되길 꿈꿨다. 그러나 5개국어(영어, 스웨덴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구사능력을 지녔던 그녀는 결국 일자리를 얻지 못해 콩나물, 미나리, 배추 등 부식을 팔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고생 끝에 향년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당시 영숙은 임신 중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간다. 암물 했던 일제시대에 맨손으로 항거했던 여성들의 서사는 더 많이 발굴되고, 회자되어야 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벡델데이는 한국영화에서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대라는 목표 아래 단편영화를 공모했다. 수많은 영화 중 <영숙>을 수상작으로 선택한 이유를 이 영화를 만든 라정인 감독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최영숙(1906~1932)을 기억하자. 가십이 아닌, 일생을 바쳐 시대에 정면으로 맞섰던 삶의 주인공으로.”

-심사위원 신아가 감독

벡델 에세이 공모전

공모 일정	2021년 7월 1일 ~ 8월 15일
공모 내용	성평등에 관한 자유주제
출품 형식	글, 사진, 만화 등 자유형식 (글은 2500자 이내)
시상 내역	총 10작품 선정 후 원고료 지급 및 에세이집 제작

2회째를 맞이한 벡델데이 2021은 올해 슬로건인 BE NEXT!를 좀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단편영화 공모와 글, 사진, 만화 등 자유 형식의 에세이 공모를 진행했다. 길지 않은 공모 기간 동안 약 70여 편의 작품과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글이 접수됐음에 먼저 감사드린다. 대체로 여성 화자의 글들이 많긴 했지만, 다행히도 세대별로 남성 화자의 글들도 도착해 이번 공모전은 성별 간, 세대 간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에세이에 담긴 내용들은 나다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성별 고정관념, 전통적 성 역할에서 오는 편견들 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심사를 맡게 된 우리들은 글이 가진 완성도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우리 사회에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작가 고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점과 심사위원들의 다수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끝으로 올해 벡델데이 2021에서 첫 시도된 벡델 에세이 공모전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심사위원들은 우리끼리만 보고 말기에 아까운 글들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심사위원 일동 배종대, 신아가, 윤단비, 이태겸, 임선애 감독

수상작

1등 너다운 너로 지내고 있니—친애하는 Y에게 - 김하경

2등 엄마는 왕치였대 - 김연화

3등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 – 박정윤

그 외 선정작

- 직장 다니는 딸, 살림하는 사위 – KIM

- 나의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이상희

- 우아한 퇴사 – (feat. 클래식이 '주성치' 영화로 장르가 바뀌는 순간) Lindsay KIM

- 서비스직 여성 – 박혜진

- 내 조건이면 91년생 교사 만날 수 있어? – 이준수

-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 정다은

- 엄마가 왜 저래? - 최은아

홍보·마케팅

홍보기간 : 2021년 8월 3일 ~ 9월 6일
홍보방법 :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 대중 대상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진행

매체 홍보

보도자료 발송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2회를 맞은 '벡델데이 2021'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였다.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벡델데이 2021'의 트레일러부터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제작된 메인 포스터, 그리고 올해의 벡델초이스 10 선정작과 벡델리안 발표 등 작년보다 더욱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총 12회에 걸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순서	제 목	발송일
1	<벡델데이 2021> Be Next! 새로운 슬로건으로 돌아온 '벡델데이'! 공모전 안내&애니메이션 트레일러 전격 공개!	8월 3일
2	<벡델데이 2021> 김초엽 작가와의 '벡델 클래스' 개최! 여성 캐릭터 창작과 SF 서사의 미래에 대한 대담 예정!	8월 10일
3	<벡델데이 2021> 배우 이정은 X 예수정 X <윤희에게> 임대형 감독의 특급 콜라보! 메인 트레일러 공개!	8월 12일
4	<벡델데이 2021> '벡델 테스트 7'을 통과한 올해의 '벡델초이스 10' 선정!	8월 17일
5	<벡델데이 2021> 평등 세계 속 균형의 눈을 가진 벡델리안은 이런 모습?! 메인 포스터 2종 공개	8월 19일
6	<벡델데이 2021> <빛과 철> 염혜란 배우부터 <내가 죽던 날> 박지완 감독까지! 올해의 벡델리안 4인 공개!	8월 23일
7	<벡델데이 2021> '벡델 단편 영상 공모전' 오늘 마감 D-DAY! 수상작은 국내 유일 여성 영화 전문 OTT '퍼플레이'로 만난다!	8월 25일
8	<벡델데이 2021>만의 특별 게스트 AI, '벡델초이스 10' & 박스오피스 21위까지 한국 영화 전격 비교 분석! 결과 선공개!	8월 27일
9	<벡델데이 2021> 배우 봉태규 X 감독 변영주, '벡델 라운드테이블' 진행자 합류! 공모전 수상 발표부터 벡델리안과의 토크까지!	8월 31일
10	<벡델데이 2021> 바로 내일 9/4(토) 오전 11시 공식 행사 개최! 네이버 TV로 김초엽 작가부터 염혜란, 봉태규, 변영주 감독 만난다!	9월 3일
11	<벡델데이 2021> 드디어 오늘 9/4(토) 오전 11시 개최! 네이버 TV로 김초엽 작가, 봉태규 배우부터 변영주 감독, 염혜란 배우까지!(재발송)	9월 4일
12	<벡델데이 2021> '다음'을 위한 뜻깊은 '오늘'! 한국영화의 성평등한 가능성 보여주며 올해도 성황리 종료!	9월 6일

인터뷰 진행

날짜	매체	인터뷰대상
8월 26일	씨네21	윤단비 감독, 임선애 감독

언론 보도

주요 일간지, 주간지 및 지방지 등의 복수 언론매체와 영화 전문지들을 통해 <벡델데이 2021> 관련 보도가 74 회 보도되었다. 1부 벡델 클래스에 김초엽 작가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트레일러를 2종으로 제작해 <벡델데이 2021> 행사를 알렸다. 특히 <윤희에게> 임대형 감독이 제작한 메인 트레일러는 이정은 배우의 출연과 예수정 배우의 시 낭송이 화제가 되며 기사 또한 많이 보도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선정된 벡델초이스10 작품과 벡델리안도 많은 매체와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엑스포츠뉴스 2021.08.23. 네이버뉴스

'벡델데이 2021' 염혜란·박은경·홍성은·박지완, 벡델리안 4인 선정

올해 '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이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벡델데이 2021'이 한국영화계의 각 부문별로 '벡델리안'을 선정했다. ...

배우 염혜란·'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 등, '올해의 벡델리안... 뉴스핌 2021.08.23.
염혜란·박은경·홍성은·박지완, 올해의 벡델리안 ... 스타뉴스 2021.08.23. 네이버뉴스
염혜란·박은경·홍성은·박지완, 뮬 영화계 성... SBS연예뉴스 2021.08.23. 네이버뉴스
'올해의 벡델리안'에 배우 염혜란 등 4명 선정 뉴시스 2021.08.23.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5건 전체보기 >

뉴시스 2021.09.06. 네이버뉴스

'벡델데이 2021' 폐막...평등 위한 현실 문제 제기 성과

백승훈 인턴 기자 = '벡델데이 2021'이 지난 4일 공식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성평등주간을 맞아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주관하는 '벡델데이 2021'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

이데일리 2021.09.03. 네이버뉴스

'벡델데이2021', 온라인 생중계로 4일 개최

올해 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이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벡델데이 2021'가 오는 4일(토) 오전 11시부터 한국영화감독조합 네이...

'벡델데이 2021' 9월 4일 개최...네이버 TV 채널... 텐아시아 2021.09.03. 네이버뉴스
'벡델데이 2021' 4일 개최...한국영화감독조... 엑스포츠뉴스 2021.09.03. 네이버뉴스

온라인 홍보

SNS 계정 운영

작년에 이어서 인스타그램(계정: @bechdelday)과 트위터(계정: @bechdelday)를 통해 일반 대중들과 소통했다. 약 한 달간 활발하게 SNS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벡델데이 2021'의 소식을 업로드하며 행사와 관련한 소식을 알렸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공모전 소식부터 선재 공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를 통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의 경우 팔로워 수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트위터 팔로워 또한 250여 명이 증가했다. 많은 유저들이 게시물을 좋아하고, 리트윗하며 벡델데이 2021 행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년도	인스타그램	트위터
2020	443	443
2021	864	697
팔로워 증감	+421	+254





SNS 주요 콘텐츠 내용



▲공모전 안내(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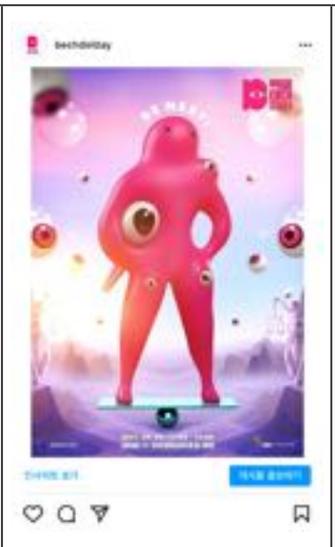
▲벡델 클래스 진행(8.10)



▲메인 트레일러 공개(8.12)



▲벡델 초이스10 공개(8.18)



▲메인 포스터 공개(8.19)



▲벡델리안 공개(8.23)



▲벡델 캐릭터 공모전 안내(8.20)



▲공모전 D-DAY & 퍼플레이
온라인 상영관 안내(8.25)



▲사전 질문 이벤트(9.1)

네이버TV 채널 운영

작년에 개설한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 올해도 2종 트레일러와 특별 홍보 영상 등을 업로드하며, 벡델데이 2021 행사를 알렸다. 메인 트레일러의 조회수는 12,000회를 넘기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행사는 특별하게 네이버 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실시간 접속자 수는 500여 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다. 라이브 중 실시간 댓글은 250여 개, 하트는 2만 개가 넘으며 관객들에게 많은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이후 구독자 수도 소폭 증가해 채널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순번	업로드날짜	영상제목
1	8.24	벡델데이 2021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2	8.24	벡델데이 2021 메인 트레일러
3	8.24	벡델데이 2021 단편 영상 & 에세이 공모전
4	8.26	[벡델데이 2021 예고] Be Next! 새로워진 벡델데이 2021이 찾아옵니다
5	8.27	프로그래머가 소개하는 벡델데이 2021
6	8.31	[벡델데이 2021 예고] Be Next! 벡델데이 2021 홍보영상 그 두 번째!
7	9.4	Be Next! 벡델데이 2021 - 1부
8	9.4	Be Next! 벡델데이 2021<2&3부: 벡델 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유튜브 채널 운영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벡델데이 2021의 트레일러 영상과 특별 홍보 영상들을 업로드했다. SNS와 네이버 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더 많은 관객들에게 벡델데이 2021을 알렸다.



순번	업로드날짜	영상제목
1	7.30	벡델데이 2021 단편 영상 & 에세이 공모전
2	8.3	벡델데이 2021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3	8.12	벡델데이 2021 메인 트레일러
4	8.26	프로그래머가 소개하는 벡델데이 2021
5	8.28	[벡델데이 2021 예고] Be Next! 새로워진 벡델데이 2021이 찾아옵니다
6	8.30	Be Next! '벡델데이 2021' 예고 영상 2탄!
7	9.17	(벡델데이2021) Be Next! '벡델 어워즈'
8	9.17	(벡델데이2021) Be Next! 1부 '벡델클래스' - with 김초엽 작가
9	9.17	(벡델데이2021) Be Next! 2부 '벡델 심포지엄'

네이버 모바일 영화판 노출

공개와 동시에 화제가 되었던 메인 트레일러 공개 보도자료는 네이버 영화 메인 판에 올랐고, 눈길을 끄는 타이포 영상 형식으로 제작한 벡델데이 2021 예고 영상은 네이버 최초 공개로 진행해 8월 27일 하루 동안 네이버 영화 메인 판에 노출되었다.

순번	날짜	제목	노출내역
1	8.13	촬영감독 변신 이정은…'벡델데이 2021' 트레일러	

순번	날짜	제목	노출내역
2	8.27	Be Next! 새로워진 '벡델데이 2021'이 찾아옵니다!	

순번	날짜	제목	노출내역
3	9.4	Be Next! 벡델데이 2021	

타 SNS 언급

전주국제영화제나 영화 추천 앱 등에서 SNS에 '벡델초이스 10' 피드를 직접 작성해 벡델데이 2021을 언급하며 영화 주요 관객층에게 행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1. 전주국제영화제	2. 키노라이츠	3. 무비톡
벡델초이스 10	벡델초이스 10	봉태규 변영주 진행자 확정
		

이벤트

퍼플레이 협업 이벤트

관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여성 영화 전문 OTT ‘퍼플레이’와 협업을 진행했다. ‘벡델 단편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5편은 온라인 상영관을 개설하여 9/9(목)부터 2주간 무료로 특별전을 진행했다. ‘벡델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3편과 선정작 7편은 퍼플레이의 퍼줌을 통해 9월 17일 공개했다. 이 외에도 퍼플레이의 SNS를 통해 벡델데이 2021 행사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더 많은 관객들에게 벡델데이 2021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벡델 영상 공모전 특별전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 홈페이지 메인 배너	영상 공모전 특별전 페이지
	

벡델 에세이 공모전 특별전

퍼플레이 홈페이지 메인 배너	영상 공모전 특별전 페이지
	

프로모션

영화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네영카’를 통해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 카페에 게시글 작성 및 전체 회원 대상(17만 명)으로 쪽지를 발송하여 벡델데이 2021을 행사를 알림.

구분	매체명	수량
영화 커뮤니티	네영카	굿즈 10세트

자체 이벤트

순번	이벤트명	경품	기간
1	D-15 캐릭터 공모전	즉석 카메라(1명)/ 기계식 키보드(1명)/도서(8명)	8.20~9.3
2	D-3 사전 질문 댓글 이벤트	사인북(5명)/굿즈 세트(10명)/ 사인포스터(5명)	9.1~9.3
3	실시간 시청 인증 이벤트	굿즈 세트(10명)	9.4

굿즈 제작

벡델데이 2021을 상징하는 슬로건과 캐릭터, 그리고 포스터와 트레일러 속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굿즈를 제작했다. 슬로건을 입힌 에코백 2종과 벡델데이 로고와 캐릭터를 형상화한 뱃지 2종, 그리고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속 귀여운 요소들을 그대로 딴 판스티커 2종을 제작했다. 추가로 벡델데이 로고와 캐릭터 홀로그램 스티커,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엽서 4종 세트까지 제작해 SNS를 통해 공개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벡델데이 2021 행사에 관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고, 많은 관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추첨을 통해 굿즈 세트를 배포하였다.









현장 녹취록

오프닝

민규동 감독 안녕하세요. 벡델데이 조직위원장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민규동 감독 네, 또 만났네요. 작년에 벡델데이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성공의 지표가 뭘까? 그게 바로 두 번째 행사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이화정 기자 '벡델데이, 이름도 어렵다, 이름 바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많은 영화인들을 만났잖아요. 시나리오를 쓰거나 연출을 할 때 한 번 더 벡델데이의 조항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점검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벡델데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규동 감독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정책자문회의, 이렇게 지루한 데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벡델테스트를 가지고 영화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무슨 게임 같은 발상을 했었는데요. 굉장한 지지를 얻고 응원을 받아서 그때 우연히 만들어졌고, 뭐랄까 그런 무모함의 씨앗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이화정 기자 네, 이 눈이 처음에는 조금 감시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친근해졌어요. 꿈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규동 감독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화정 기자 더 화사해졌죠.

민규동 감독 네, 포스터도 그렇고 뭔가 트레일러도 그렇고 그 작년보다 좀 더 다채로워진 느낌이 있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화정 기자 네.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벡델이가, 저희끼리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민규동 감독 우리 캐릭터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이화정 기자 네. 약간 유기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민규동 감독 뜻이 있나요?

이화정 기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좀 지켜보는 눈, 점검하는 눈을 생각했는데요. 올해는 균형의 눈을 품고 있는 괴물일 수도 있겠네요. '벡델'이를 만들었습니다.

민규동 감독 네. 뭔가 다양한 앵글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춘 그런 캐릭터로 좀 보이고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화정 기자 계단이 7개예요. 그래서 벡델 테스트의 7가지 조항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성평등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목적지에 달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민규동 감독 'Be Next!'라는 슬로건도 새로 입었네요. 저 뒤에도 계속 더 어딘가 오를 계단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맞아요. 그리고 'Be Next'이기 때문에 벡델데이 2022, 2023 그리고 1만 년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게 좋은 건가요?

민규동 감독 아니요. 원래 성공은 이런 행사가 필요 없는 날이 오면 이 행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올해 다채로워질 수 있었던 건 윤단비, 임선애 감독님 그리고 한가람 감독님, 저, 신아가 감독님, 김동령 감독님 이렇게 다섯 명의 여성 감독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더 섬세해지고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맞아요. 올해는 정말 벡델데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름이 뭐야? 이 벡델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쏙쏙 귀에 들어오게 많은 트레일러도 제작을 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민규동 감독 아까 '바이러스 이름이냐', 무슨 테스트가 붙으니까 요즘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조금씩 알아갈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려다가 직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었는데, 올해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아쉽게도 작년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져서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화정 기자 내년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규동 감독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했죠. 올해는 단편 영화 공모전도 있고요. 300여 편의 작품들이 들어왔고요. 에세이 공모전도 하고 캐릭터 공모전도 하고 해서 영화 업계의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아마 이제 예고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벡델초이스 10에 선정되셨던 임대형 감독님께서 만드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정은 배우와 또 예수정 배우님이 합작을 하셨잖아요.

민규동 감독 블록버스터 트레일러가 나왔고요. 또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죠.

이화정 기자 특히 진짜 이정은 배우님이 여성 촬영 감독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이렇게 벡델데이에는 지금까지 조명 받지 못했던 어떤 여성 창작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스탭들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예고편 보시면서 다시 또 벡델데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규동 감독 오늘 프로그램이 총 3부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루 종일 벡델 클래스와 벡델 심포지엄 그리고 벡델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클래스 진행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정말 팬심과 사심으로 어떻게든 모시고 싶어서 초대한 귀인이실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너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는 어떻게 감독님께서 섭외를 하셨을까, 이분이 잘 안 나오시는데... 혹시 목을 잡아 끄신 건 아닌가.

민규동 감독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쓴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SF 문학상이라는 심사를 같이 했었고요. 그분의 책 소설도 물론 팬이지만 다른 논픽션 책까지 보고 사실 굉장히 반했습니다. 벡델데이라는 행사에 와줄 수 있겠냐고, 거기서 수다를 떨어볼 수 있겠냐고 제안을 드렸을 때 벡델데이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워 하시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반갑게 맞이했고요. 벡델데이의 오프닝을 이렇게 멋진 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작년에 그 행사는 벡델데이를 위해서 가셨던 거군요.

민규동 감독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클래스 한번 저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화정 기자 네. 제가 그러면 벡델 클래스에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이고 또 균형의 눈으로 같이 지켜봐 주세요.

민규동 감독 네 기대할게요.

1부 벡델 클래스

이화정 기자 올해 2회를 맞이하는 벡델데이 마스터 클래스의 서막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한 번 이름을 들으면 절대 잊으실 수 없고 작품을 보시는 순간 미래 세계로 빠져듭니다. 김초엽 작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작품을 주목하는 건 주목할 만한 여성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벡델데이가 SF라는 신세계의 문을 똑똑 두드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앨리슨 벡델이 제안한 벡델 테스트는 사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SF 장르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해온 AI 그리고 또 외계인 이런 존재들은 사실상 양성평등 그 자체를 초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SF 장르를 상상력의 무대로 삼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올해 저희가 이렇게 김초엽 작가님에게 벡델데이의 마스터 클래스로 만남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관내분실』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파란을 일으키셨죠. 올해 또 이렇게 『지구 끝의 온실』 장편을 발표하면서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고 있는 김초엽 작가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려야겠죠? 벡델데이 2021의 첫 문을 마스터 클래스로 열게 되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초엽 작가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요. 벡델데이라는 행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행사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보면 항상 아쉬웠던 것은 여성 인물들의 활약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 주목하는 일종의 영화제를 연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 행사는 정말 가야겠다' 생각을 들게 했었고요. 또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엄청난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캐릭터를 인스타그램에도 보고 실제로 이렇게 크게 보는 건 처음인데, 보니까 정말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화정 기자 네. 작가님께서 이 SNS에 이렇게 행사 홍보를 잘 안 하시는데, 이 벡델데이는 하셨다고요. 그만큼 이제 애착을 가지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좀 많이 안 보실까 봐 걱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많이들 들어오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제안받으셨을 때 아까 민규동 감독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각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꼭 들려줘야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초엽 작가 앞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런 여성 캐릭터 창작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만 딱 집중한 행사는 사실 잘 없다 보니까 오늘 이 행사가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화정 기자 유일무이한 행사로 벡델데이를 정의를 해 주셨고요. 일단 이제 저희를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작가님께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이제 그 작가님의 작품에는 항상 우주, 미래 이런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침 또 장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유일무이한 벡델데이 행사를 위해서 작가님이 거기에 딱 맞춰서 장편을 발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서점가가 뜨거웠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첫 장편인데.

김초엽 작가 저도 예상을 전혀 못 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실 줄은 몰랐는데 기다려 주시는 분들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되게 열심히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이화정 기자 열심히 써야겠다. 다음 작품을 빨리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독자들의 반응 중에 이 장편 발표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감이 지금 생각나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초엽 작가 제가 그래도 인스타그램에서는 리뷰를 좀 보는 편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번 장편에서 이 부분은 진짜 독자님들이 읽어도 재미있겠다고 쓴 부분은 말을 하면 스포일러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님들이 리뷰를 스포일러라고 쓰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뭔가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내가 이제 독자분들이랑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장르 작품들을 꾸준히 써오셨습니다. 2017년부터 정말 한시도 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도 굉장히 독특한 세계예요. 넝쿨 식물이 끝도 없이 자라 모든 것들을 삼키게 될 것 같은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어떤 제목 안에 그 세계가 상상이 되는데요. 항상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서 뭔가 세상의 모순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넝쿨 식물이 자라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 유토피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편에서도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가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미래를 좀 그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초엽 작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초사를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어떤 모순성인 것 같아요. 모순성과 양면성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었고요. 사실 식물이라는 소재를 선택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약간 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멸망한 세계가 나오고. 이렇게 식물이 등장하면 뭔가 멸망한 세계를 식물이 회복시킬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뻔하게 떠오르는데, 왠지 그 뻔한 이미지 이면에 있는 뭐랄까요, 좀 백조의 발버둥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아진 세계를 목격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이 정말로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물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차별과 소외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 세계인데,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썼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달라진 색깔을 목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면의 어떤 힘든 과정들 그리고 그분들이 마주해야 됐을 모순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덮여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소설을 쓰면서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면성과 모순과 투쟁하며 그 변화를 만들어낼까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바라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F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작가님이 단편부터 지금 장편에 이르는 작업을 생명공학 SF로 분류를 하셨어요. 생명공학 SF라고 하시고, 그 안에 어떤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걸까요.

김초엽 작가 사실은 이게 생명공학 SF라는 게 진짜 있는 말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약간 가운 입고 글 쓰실 것 같은 같은 그런 느낌.

김초엽 작가 맞아요. 그때는 저에게 SF 여러 장르 중에서도 뭔가 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서브 장르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머리를 쥐어 짜내다가 그래도 생명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나마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건 좀 되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창작자분들은 대부분 비슷할 텐데 내 작품들의 어떤 라벨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떤 작품들은 이런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고 말을 들으면 그다음에는 그걸 벗어나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져요. 그니까 나를 규정할 수 없게 자꾸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명공학 SF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도 『관내분실』 같은 어떤 인간의 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SF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쓴 작품들은 포괄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화정 기자 지금 새로운 말을 또 만들어야 되네요.

김초엽 작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작품하면 그냥 SF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거대한 범주에서 다시 이제 그 SF를 생각하시면서 SF 안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은 늘 그랬듯이 사실 지금까지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 서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게 『지구 끝의 온실』에 와서도 다르지 않다. 넝쿨 식물로 뒤덮인 어떤 이런 디스포토피아적인 세상에서 여성이 활약을 해요. 막 호버카를 몰고 아니면 정비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장들을 볼 때마다 미래는 정말 여성이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는 이 디스토피아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 작가로서 이렇게 미래의 유토피아에 여성들을 전면 배치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초엽 작가 제가 글을 쓰기 전에 과학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공계 분야는 여성은 정말 적은 분야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이렇게 재미있는 전공이 이렇게 여성 여학생들이 적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문화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과학과 기술을 허용하지 않는, 조금 멀리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맨날 들었던 이야기도 여자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여학생들은 수학이 약하니까라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화정 기자 일단 전제로요.

김초엽 작가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 밀리니까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항상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여성과 과학기술 거리를 조금 멀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여성 과학자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이화정 기자 네. 이 한 마디 한 마디 무심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는 그런 말들인데, 여성들의 직업 세계들도 제한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이 책을 보면서 여성들이 SF 세계 안에서는 경찰, 과학자, 힘을 쓰는 농부 그리고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하는 역할들에 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가님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캐릭터를 만드실까?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까? 실질적으로 그 인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초엽 작가 저는 일단 인물을 만들 때 기본형을 여성으로 잡고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SF의 많은 인물들이 너무 남자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물론 남자 캐릭터를 뭔가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뭔가 여성과 남성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 가장 재미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읽고 싶은, 제가 독자로서 보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뭔가 기본형이 여성인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앞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쓸 때와 지금 『지구 끝의 온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편집까지는 기본형을 무조건 여성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딱 떠올랐을 때 이 인물의 사회적으로 여성적인지 남성적인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물을 꾸린 다음에 그냥 이 인물에게 뭔가 여성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름을 준다든지 그런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책으로 여성 인물들을 많이 써왔던 것 같고요. 다음 작품부터는 아예 성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도 좀 써보고 싶고요. 남성 인물의 경우도 사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세계는 없잖아요.

이화정 기자 그렇죠

김초엽 작가 남성분들이 함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남성 캐릭터를 어떻게 짜야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성평등한 색깔이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 인물이 여성과 남성 어느 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혹은 사회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여성으로 분류되는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시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아마 또 이제 곧 발표할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의 답변에서도 그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도 말씀하지만 일단 디폴트가 남성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남성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 - 편향된 데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

우는가』 이런 책에서도 이 얘기가 데이터 수치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케스트라단을 구성을 할 때 정말 남성 위주로 뽑는다는 거죠. 근데 가리고 테스트를 하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추세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과했던 여성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게 저는 정말 획기적이고, 이건 과학에서는 말하는 발명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제 작품의 세계에서도 발명이라는 세계를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옛날에 할머니, 엄마, 이모 이런 인물들이 작품의 이름들로 하나하나 다 불립니다. 그게 굉장히 쾌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명사로만 존재했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일,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촌수로만 존재했던 여성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자기 분야에 확고한 일을 하는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들도 아마 이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끄집어 낼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관찰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할머니, 엄마, 이모들이 소환이 되는 걸까요?

김초엽 작가 일단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과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작품을 쓰면서 뭔가 이 인물은 처음부터 여성임을 이렇게 막 엄청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님들이 읽으면서 이 인물들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읽으실 때도 있어요.

이화정 기자 맞아요, 「스펙트럼」이나 여러 곳에서 노인이라고 나오면 남자 노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가 갑자기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김초엽 작가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는 사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어떤 중립적인 느낌을 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노인을 당연하게 남성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심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는 게 방금 생각이 났고요. 인물들을 쓸 때는 뭔가 실존 인물들을 그대로 따온다기보다는 최근에 페미니즘이 많이 부상하면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거 여성들의 업적을 다시 발굴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에 대해 재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당대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업적이 지워지고 마는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작품에서 뭔가 세대에서 세대를 건너가는 그런 서술 방식을 좀 자주 쓰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전세대의 대한 여성을 이해하게 되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넘겨받는 그런 서술을 자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과거의 여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어떤 여성 인물들의 업적 혹은 꼭 업적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뭔가 머릿속에 깊이 박아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 이름은 아는데 할머니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될 텐데 그럼 나의 이름도 지어지겠다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 작품 안에서 흔하게 쓰는 그 노인이라는 말을 툭 던지는 이유도 그 노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인물이 여성이 됐을 때 관객들에게 또 한 번 남성과 여성의 그런 경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여성들이 전 세대의 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구성을 많이 쓴다고 하셨어요. 이번 작품 『지구 끝의 온실』에서도 '이희수', '지수' 이런 인물들이 어린 여성인 '아영'이나 '나오미'에 의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헤쳐 나가는 것이 이 『지구 끝의 온실』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이라는 단편 작품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우주여행사로 발탁이 됐던 화자의 이모에 대한 얘기고, 그 이모의 이름이 '최재경'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오히려 조카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이모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우주 비행사로서 어떤 고민과 억압이 있었을까, 그 안에는 억압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서 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존재하는 닮고 싶은 여성, 영향을 주는 여성이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 계속 제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물을 만드실 때 혹시 이제 실제로 미래의 인물이지만 레퍼런스로 삼는 인물들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렇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들을 만드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초엽 작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여성 인물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부상 이후에 우리가 여성들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여성들의 인물 여성들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완벽한 여성상만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내심 들었어요.

이화정 기자 그렇게 완벽해지지 않으면 약간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좀 억압을 한다는 거죠.

김초엽 작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을 짤 때 항상 뭔가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특성들을 잘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존 인물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여성 과학자들의 전기에 의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성 과학자들이 어떤 위험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로맨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뭔가 이 여성 인물을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굉장히 완벽한 여성상이 아니라 정말 입체적인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여성 롤 모델들은 아무래도 좀 단면적인 부분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전에 살아서 그 그림자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제 인물의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그림자까지 다 쫓아서 작품의 인물을 구상하고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작가가 관찰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벡델이의 균형의 눈을 작가님이 이미 몸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여성 과학자에 관한 책은 저도 한 번 더 이번 계기로 찾아봐야겠네요. 일과 사랑 사랑과 전쟁, 이런 키워드로 과학자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작가님의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모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벡델데이 행사를 하면서 김초엽 작가의 이름을 떠올린 이유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겠지만 이제 더 욕심을 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계가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너무 사랑해요. 그건 느끼셨죠?

김초엽 작가 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화정 기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만나보고 싶어 하고, 작가님의 작품을 영상화시켜보고 싶다 이런 꿈들을 다들 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그림이 그려지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로 평소에 제안들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초엽 작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기자 네, 물 밑으로 이제 많은 계약에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 나올 때마다 이 작품은 누가 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구 끝의 온실』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넝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과연 어느 감독님이 그려내실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가님과 영화 안에서 이제 SF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안에서는 최근까지는 좀 비어 있는 부분이고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개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SF 장르 서사 안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지금부터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장르가 SF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께도 이 SF 장르가 영상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부터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SF 안에서의 여성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뭐 명불허전이죠. <에이리언 2>의 '리플리', 시고니 위버. 외계인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노동자이자 전사 이전에는 다른 캐릭터들도 있어요. 작가님이 많이 그리시는 과학자들도 할리우드 영화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콘택트>의 조디 포스터 생각나실 거예요. '엘리 박사'죠. 그리고 또 좀 최근이죠. <그래비티>의 '스톤 박사'인 산드라 블록, 과학자가 이렇게 액션을 하는 그런 캐릭터도 생각이 나고요. 또 한국 영화에서는 <승리호>의 '장선장' 우리의 김태리 배우님께서 우주에서 호기를 부리는 그런 우주 해적단의 선장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SF 장르 안에서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실지, SF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납득할 만한 캐릭터 납득할 만한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신 그런 작품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김초엽 작가 제가 이 벡델데이 행사에 오면서 뭔가 SF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이화정 기자 네, 철저한 조사를 하셨군요.

김초엽 작가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들은 정말 잘 짜인 예시이지만 사실은 정말 예시가 부족해요. 많은 경우 남성 캐릭터가 활약하는 영화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뭔가 과거로 갈수록 정말 드물고 조금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그래비티>의 여성 과학자들, 이런 인물들이 조금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기자님이 아직 말씀 안 하신 건 <매드맥스>. 생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가 나오는 SF 장르는 아니지만 아포칼립스 장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정말 현실적인 아포칼립스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그 안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하는 이런 인물들로 그려졌다는 생각은 들었고, 사실 저는 SF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좀 즐겨봐요. 그래서 드라마 시리즈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SF계에는 어떤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 여러 개 있잖아요. <스타트랙>, <스타워즈>, <닥터 후> 이 정도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랜차이즈의 주인공들이 전부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닥터 후>의 닥터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 명의 배우들이 이 주인공을 연기하는데 전부 남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시즌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여성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타워즈>도 마찬가지죠. 남성 주인공들이 주로 이렇게 등장하다가 처음으로 여성 주인공 '레이'가 주인공이 되고, <스타트랙>도 예전에는 물론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이긴 했지만 이렇게 여성 주연들만 등장하는 수준은 또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남성 주인공들이 활약해온 장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여성 인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여성 인물들이 이 SF 장르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사실은 그 기대에 대해서 좀 충족을 시켜주는 첫 주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침 또 「스펙트럼」이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의 연출로 다시 영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김보라 감독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SF의 거대한 세계에서 시나리오를 쓰시느라.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역을 보여준다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나의 작품 나의 창작물로 보인다고 했을 때는 약간 관찰의 눈도 있으실 것 같고, 원작자로서 가지는 기준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스펙트럼」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초엽 작가 제가 김보라 감독님이 「스펙트럼」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영상화하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화정 기자 내가 이렇게 이런 세계를 써놨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은…

김초엽 작가 그리고 주인공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저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뭔가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작가와는 좀 다른 영상적인 상상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코멘트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걱정은 했었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보라 감독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저번에 김보라 감독님이 SF 내부의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이제 같이 인터뷰 비슷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김보라 감독님이 보고 계시던 책 중에 하나가 양자 물리학인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크리스토퍼 놀란에 이어서..

김초엽 작가 어떻게 쓰시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말 넓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은 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독자님들 그리고 관객분들의 마음으로 같이 어떤 영상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네, 또 하나의 독자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김보라 감독님이 지금 엄청 열심히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깨알 같은 에피소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김초엽 작가와 김보라 감독의 만남이 여성 작가와 여성 감독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아직 많이 개척되지 않은 SF 장르를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적인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스펙트럼」 말고 저는 살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가님이 이제 원작자이니까 이렇게 판권을 계약할 때 '지금의 이 여성 캐릭터들을 좀 남성으로 만들면 더 투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제안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 현황이, 제가 지금 수집한 현황이 맞는 건가요?

김초엽 작가 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분명 이런 판권을 계약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갑자기 확 실감이 되더라고요. 소설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작가 혼자 쓰는 것이고 물론 이 소설이 완전히 안 팔리거나 하면 작가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조금 조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 자본의 규모라는 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되게 보수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좀 있었어요.

이화정 기자 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김초엽 작가 관객들이 아주 원하는 것만을 타겟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배우처럼 이렇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배우들을 좀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이화정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전 지구적인 재앙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이렇게 예술 분야에는 좀 더 위축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곳에만 자본이 몰리는, 그래서 여성 서사나 이런 성평등한 서사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조금은 감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초엽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독자분들께 김초엽 작가의 만남을 사전 공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팬분들의 사전 질문을 보면서 작가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월선셋"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가님이 '이번 장편을 집필하실 때 인상적이었던 작가님만의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초엽 작가 제가 이건 정말 인상적이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장편의 배경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레이시아의 어떤 식물들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 조사를 할 때 난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나라마다 이름이 너무 다르고 나라마다 식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화정 기자 같은 식물인데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식물의 종류도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도 있군요.

김초엽 작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아져서, 말레이시아에만 살고 있는 식물들을 학명으로만 써버리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았고요.

이화정 기자 네. 이게 힘들죠.

김초엽 작가 그렇죠. 영어로만 쓰면 또 그것도 이상할 거 같아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엄청 고민하다가 정말 금광 같은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한국의 국립수목원에서 말레이시아의 자생 생물들을 연구한 어떤 도감을 만든 거예요.

이화정 기자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의, 이 엄청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김초엽 작가 '이게 왜 존재하는 걸까?' 저는 되게 의문을 가지면서 도감을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한국의 국립수목원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오직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어떤 비슷한 자생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뜬금없이 이런 도감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소설가가 된 거죠.

이화정 기자 그러니까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의 그런 밑거름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이었을 수도 있겠다.

김초엽 작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화정 기자 그리고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은 정말 돌고 돌아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런 결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피소드는 한국국립수목원에서 말레이시아의 식물들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 존재한다는 것. 그걸 보시면 『지구 끝의 온실』의 그런 묘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품 판권을 구매하시는, 나중에 연출을 하실 감독님도 이 책도 보시면 미술을 구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질문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들을 기다리면서 저도 질문을 하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벡델데이에 너무나 어울리는 김초엽 작가님과 벡델데이 2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가님으로 모신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SF 장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성을 구분 짓고 그것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가 숙제인데 미래 세계를 그리는 SF 장르 안에서 그려지는 존재들, 그러니까 '벡델'이 같은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이나 또 아니면 AI라는 존재를 보면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별을 알 수가 없거나 굳이 성별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젠더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르가 SF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이 SF의 인물들을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큰 즐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상상력을 무한하게 발휘한다는 것들이 주어지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초엽 작가 맞아요, 저도 SF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에서는 가볼 수 없는 곳까지 아주 멀리 가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고민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을 펼칠 때 그냥 너무 자유롭게 멀리 가버리면 우리 현실의 독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즐겁기만 할 것인가. 이렇게 멋진 세계를 여행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속하는 현실의 나에게 너무 불만족스럽다면 이 소설과 현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에게 항상 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조금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어떤 '벡델'이 같은 외계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런 어떤 무성적인 존재, 이건 굳이 성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인간의 성과 관련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존재들이 내가 성별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미 어떤 성을 가진 것처럼 독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직까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펙트럼」은 '루이'가 있잖아요. '루이'가 과연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굳이 설정을 안 하고 만들었지만 독자님들 중에서는 뭔가 '루이'를 좀 더 남성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꼈었고요. 한편으로도 되게 딱딱하게 말하는 로봇이, 『최후의 라이오니』라는 작품에 정말 기계처럼 말하는 기계가 등장하는데, 이 기계가 독자들에게 성별을 가지지 않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별을 가지는 것처럼 인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SF를 쓴다는 게 마냥 현실로부터 아주 자유롭게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것을 SF를 통해서 어떻게 뒤틀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앞으로 저희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SF를 쓰는 작가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저희가 또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들어오는 동안 제가 아까 이름을 찾아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성의 이름들이 '김은아', '최재경', '이희수' 이런 이름들은 어디서 가져오실까. 작가님의 이름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래의 인물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안에서 그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고민을 하실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저는 이름의 뜻보다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를 좀 우선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름 박스 비슷한 게 있어요.

이화정 기자 아 있어요?

김초엽 작가 이런 아이패드에 저장하는 메모에 그냥 어떤 이름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목록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는 인물들을 좀 되도록 다국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한국의 이름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치해 볼 필요는 없지만 외국 이름은 그냥 상상만으로 쓰면 되게 이상한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막 한국인이 다른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했을 때 뭔가 어색한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인물의 국적이 정해지면 실제로 그 국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계속 서치를 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뭔가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가장 인기 많은 아기 이름 이런 통계가 항상 국가마다 존재 하기 때문에요.

이화정 기자 이름만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구별이 되는?

김초엽 작가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름을 정하는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인물들을 어떤 젠더에 굳이 강조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뭔가 이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별 지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어쨌든 그 이름 박스 안에 들어갈 여성들의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이름들이 작품으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 생명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굴 작업들을 김초엽 작가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의 이름은 정말 그 이름 박스 안에 들어가기에 너무 특이하죠.

김초엽 작가 그렇죠. 제 이름이 들어가면 누구나 그것을 저로 읽지 않을까요.

이화정 기자 네. 또 하나의 또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테레오 타입을 갖지 않는 캐릭터 혹은 여성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기울이시는 노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김초엽 작가 이건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많은 이야기 매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되게 마초적인 혹은 이 인물 정말 남성처럼 쓰인 그런 인물들을 여자로 한 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 작품에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만으로 여성 인물의 스펙트럼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성적으로 여겨지는 인물을 남자로 바꿔본다든지 반대로 뭔가 엄청 마피아 같은 그런 인물을 여성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환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인물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네, 작가님에게 이제 질문 들어오는 동안 저희가 작가님에 대한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얘기도 오늘은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길로 오지 않으셨으면 가운을 입고 어딘가에서 연구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과학자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소설이라는 창작보다는 다른 글들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 글쓰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창작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길로 접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초엽 작가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소설이 아니었을 뿐이고 뭔가 에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써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또 전공하게 되면서 나는 뭔가 앞으로 과학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을 쓰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주위 사람들과 소설 창작 워크숍을 만들고 또 작법서를 읽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어떤 취미나 잘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잘하지 않으면 포기해 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저처럼 좀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기타를 쳐보고 싶었다든지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딱 시작했을 때 나에게 별로 재능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그런 타입이었는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했구나, 정말 이런 번쩍이는 재능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설 쓰기는 그냥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제대로 시도조차 안해봤다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쓰기 시작했죠. 소설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쌓아온 많은 스킬과 여러 장르적인 그런 합의가 있는 분야고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면 소설도 비록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정말 우연히 흘러 흘러 오게 됐습니다.

이화정 기자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 이후에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SF 장르 안에서 김초엽이라는 이름이 여러모로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를 확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시작하고 연마할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지푸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질문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캐릭터의 특징의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여성 캐릭터의 서사를 탁월하게 늘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쩌다 장르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작가의 길로 접어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작가 안에서도 장르 소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신 이유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원래 저는 장르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굳이 장르를 가르지 않고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책도 읽긴 읽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장르 소설이라고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판타지 소설을 연재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걸 보고 자랐고.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진지한 메시지만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 즐겁고 어떤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라서 소설을 쓸 때도 내가 뭔가 현실에 기반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쓴 소설들도 대부분 연필이 갑자기 말을 한다든지 판타지스러운 게 가미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갑자기 사랑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SF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환상 소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장르물을 쓰게 됐고, 지금은 SF라는 장르가 저의 배경이나 혹은 제가 주로 작품에 끌고 나가는 그런 미스터리 기법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SF 장르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진짜 작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장르로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작품을 쓰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를 SF를 쓰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는 책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SF 장르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구 끝의 온실』은 상상만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따로 영감받은 게 있는지 이 두 질문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초엽 작가 저는 SF를 쓸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보통 고르는데요. 하나는 먼저 과학적인 소재를 발견하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로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최근에 제시된 과학적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좀 특이한 과학적 소재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내분실』이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 『관내분실』은 제가 이 소설을 구상하던 시기에 '마인드 업로딩'에 대한 과학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아 이것을 소설로 옮겨보자'라고 해서 쓴 작품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주 쓰는 방식은 먼저 이야기를 구상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 혹은 내가 쓰고 싶은 인물 혹은 내가 상상하는 것 중에 뭔가 마음에 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이 장면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SF적인 소재들이 동원이 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작품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시가 『지구 끝의 온실』이 조금 그런 편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지구 끝의 온실』을 쓸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장면이 어떤 고립된 네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과학자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그 바깥의 사람들이 이 고립된 공간을 지켜낸 거예요. 이런 장면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이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또 어떤 소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역으로 구상한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죠.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어떤 전자적인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은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SF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내가 과학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건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과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어차피 모든 작품들을 쓸 때마다 새롭게 공부하는, 보통 자기 전공밖에는 모르거든요. 물론 화학이 맨날 나오는 그런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양한 분야의 소재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자료 조사라는 거는 아무리 본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학이라는 게 SF를 쓰기 위한 방법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무한한 소재의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창작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과학의 새로운 개념들이 무한한 창고가 되고, 아까 그 이름 박스 안에서 이름을 꺼내서 매칭해 김초엽 작가가 그리는 미래 사회가 하나하나 구체화돼서 작품으로 나올 때마다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즐거우실 텐데, 그래서 작가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작가님이 구축하셨던 소설 속 세계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살고 싶은 세계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김초엽 작가 저는 별로 살고 싶은 세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정말요? 어떻게 할까요.

김초엽 작가 그 세계를 만들 때는 되게 재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랑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화정 기자 그렇죠. 잠깐 몇일을 사는 것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뼈를 묻을 곳.

김초엽 작가 한국에서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는 그냥 일하거나 놀러 오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지만 살려고 하면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작품 속의 세계들도 '내가 잠깐 가서 여기를 보고 오기엔 너무 좋지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김초엽 작가님은 그리신 작품들 중에서 '굳이 가서 살고 싶은 데는 없다. 내 집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시간 질문으로 홍양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질문도 궁금하네요. '본인이 쓰신 소설 중에 영화화 되었으면 하는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실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얼른 이 답변 들으시고 영화사에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일단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수록작 중에 얘기를 해보면. 「나의 우주 형에 관하여」 최재경 이모가 영상화 되었을 때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쓰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장면이거든요. 제가 모든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적인 구현을 하지 않는데, 그 작품은 되게 명확히 대비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이후에 쓴 작품 중에서는 10대 소녀인데 일종의 테러를 벌이는 그런 과감한 인물이 있어요. 이제 가을쯤에 나올 단편집에 실리는 작품인데, 이런 10대 소녀이자 테러리스트이면서 한편으로는 춤을 추는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가진 어떤 입체성이 뭔가 굉장히 흥미롭게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정 기자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물이 올 가을에 선물 같이 등장을 하겠군요. 벌써 이렇게 영상화됐으면 좋을 인물로 또 꼽아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최재경' 비행사는 어느 배우가 하면 좋을까요? 기습 질문입니다.

김초엽 작가 저는 이 인물들의 얼굴을 생각을 안 했고요.

이화정 기자 저는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김초엽 작가 제가 글을 쓸 때,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배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나요.

이화정 기자 지금 작가님은 완전히 모든 배우를 열어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최재경'의 얼굴에 배우들을 대입해 보셔도 좋은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작가님에게 개인적으로 희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었던 생각이나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초엽 작가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되게 허무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주한 미래나 마주한 현실 자체는 너무 비관적이고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계기는 변화란 더 행동하는, 그것을 쟁취해 내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내가 마주한 현실에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나는 여기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혹은 뭐라도 바꾸겠다는 태도로 바꿔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어떤 가능성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그냥 미래를 손 놓고 보고만 있으면 그 안에는 희망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작품을 쓸 때도 어떤 세계에 맞서거나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주로 쓰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인물들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독자님들이 이 작품을 보면 뭔가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희망을 쏙쏙 찾아보는 그런 위안을 받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름들이 호명될 때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소설이 첫 장편 소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편과 장편 쓰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전 작가님이 굉장히 밤늦게 쓰신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 장편과 단편이 속도전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또 작업 과정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초엽 작가 일단 장편은 단편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써도 써도 끝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화정 기자 현실적이다.

김초엽 작가 정말 엄청난 난관이었거든요. 제가 창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 작업을 할 때는 뭔가 구상을 좀 길게 하고요. 어떤 이야기 얼개를 어느 정도 거의 짜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초안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 질질 끌지 않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초고를 다 완성하는 편입니다. 장편은 도저히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다음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장편 하나 써야 될까?

이화정 기자 약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유혹도 많이 있었군요.

김초엽 작가 나의 단편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조금 그랬는데요.

이화정 기자 독자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또 장편의 세계로 와서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나..

김초엽 작가 근데 이제 마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됐고요.

이화정 기자 아 역시 이렇게 위대한 김초엽 작가님 같은 작가님도 마감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거는 똑같군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김초엽 작가 네, 이제 장편은 쓰고 났을 때 뿌듯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야기 전체를 딱 완성하고 났을 때 제가 단편을 썼을 때는 '내가 세계를 완성했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거든요. 근데 장편은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하나의 세계를 매듭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이 큰 그런 작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네. 사실 뭐 『관내소설』이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원통안의 소녀』 작가님의 단편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분들은 이 『지구 끝의 온실』이 아마 이 세계들과 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 총합이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김초엽 작가의 장편을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김초엽 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떳떳함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마감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쓰신 장편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여성 캐릭터를 만들었나 나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F 장르를 선택한 건 아까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음, 캐릭터를 만들 때 일단 성별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처음에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과의 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인물을 다 짜고 나서 이 인물이 굳이 남성이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여성으로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물은 제가 예전에는 과학자 인물을 정말 많이 썼는데 내가 가장 편하게 써지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지낸 인물들이 주요 이야기 전개가 되게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미래를 계속 궁금해하다 보니까 앞에 사건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과학자 인물들을 주로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학자가 아니면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사실 내면에는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조금 더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한 10대 소녀 테러리스트 이런 인물도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소녀같이 보이지만 안에 내면에서는 이런 테러를 꾸미는 엄청난 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을 상상해 볼 때가 많은 것 같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인물을 약간 구상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때 '이 장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일까?' 혹은 '어떤 세계를 떠올렸을 때, 이 세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인물은 누구고 가장 곤경에 처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편입니다.

이화정 기자 네. 어떻게 보면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이 지금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평등한 세상이었다면 모두가 주목받았을 그 가려진 인물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김유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와 이에 대응되는 기술들을 소설의 재료로 풀어내고 계신데요. 이런 요소들이 독자에게 공감을 얻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초엽 작가 이건 저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어디까지 멀리 가야 독자님들이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너무 가까우면 너무 익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SF 장르가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새로운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SF 장르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새로운 요소가 처음부터 마구 등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SF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런 장르적인 요소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장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럴 때 제가 세운 원칙이 있는데 이야기의 중심은 인물들을 잡고 가고 인물들이 감정을 따라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끼어드는 좀 색다른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해도 독자님들이 이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요소를 쓰고 싶은데 이게 독자님들에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그 요소들을 일단 넣고 다시 한 인물들의 감정을 좀 강하게 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강하게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자매라든지 이런 중심이 되는 감정을 좀 확 잡아두는 편입니다.

이화정 기자 네, 오늘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해부하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다른 김초엽 작가를 꿈꾸는 작가님들이 이 작법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을게요. 이 질문은 작가님이 대답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한국 영화계에 대한 질문이 작가님의 생각을 여쭤보시는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특히 상업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캐릭터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업 영화를 이끄는 감독들이 대부분 남성이라서 아니면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시나리오 작가의 한계? 또 그것도 아니면 제작자들이 여성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것이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객들이 남성 캐릭터가 활약하는 영화를 더 좋아하거나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작가이기 이전에 영화를 보는 관객이시기도 하실 테고, 지금은 이제 원작자로도 타이틀이 생겼는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한계를 느끼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답이 된 것 같아요.

이화정 기자 요약을 해 주셨네요.

김초엽 작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감독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는 여성 관객들조차도 여성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나 이걸 봤을 때 좀 저평가하는 성향이 분명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분명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조금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여성 관객들이 남성 배우나 혹은 남성의 이야기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저도 분명 그런 분위기 안에 있었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몇 년간 여성 관객들의 '여성 영화를 보자'라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물론 문학계에서는 여성 작가들이 훨씬 더 일찍 활약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여성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작가를 지지하는 분위기는 또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여성 관객이나 여성 독자들의 여성 창작자들을 지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약간 새롭게 느껴지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캐릭터들과 여성의 서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이미 질문하신 분이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여성 관객들 그리고 여성 관객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관객분들이 여성 서사를 더 많이 볼수록 더 재미있어져요.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의 이야기에만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온 관객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점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 보다 보면 더 재미있어지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관객과 창작자가 함께 탐구해가면 더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화정 기자 너무 중요한 말씀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근육이 생기도록 창작자도 그리고 관객들도 연습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 저희 벡델데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벡델데이가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펙트럼』에서 외계의 생명체 '루이'가 '희진'한테 '그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평등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미래의 세계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창작하는 작가가 오늘 우리가 모신 김초엽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김초엽 작가님의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그 디스토피아라도 살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이제 살고 싶은 데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한 번 그 세계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초엽 작가 마스터 클래스를 벡델데이 2021에서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마스터 클래스에 초청돼서 이렇게 모든 에피소드와 작법 기술까지 탈탈 털리신 소감을 한 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 물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나 듣는 질문은 조금 비슷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여성 캐릭터와 창작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클래스가 아니고 토론이나 라운드 테이블처럼 꾸며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저에게도 되게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화정 기자 네. 너무 좋은 찬사를 저희 행사에 해주셨는데, 저희 그러면 보시고 계신 많은 분들은 박수를 치고 계실 거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박수를 한 번 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곧 정말 토론회나 좌담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날을 꿈꾸면서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벡델 심포지엄

김동령 감독 안녕하세요. 벡델데이 2021 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김동령입니다.

신아가 감독 안녕하세요, 신아가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해 '성평등하다', '그렇지 않다'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동안 관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실제로 한국 영화가 얼마만큼 성평등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령 감독 그래서 올해도 벡델데이 심포지엄은 한국영화의 성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포지엄의 첫 순서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에게 한국 영화의 성평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해 봤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벡델 데이의 7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벡델초이스 10' 작품뿐만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극장에서 개봉한 흥행 영화 상위 20편을 함께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객 수를 많이 동원한 흥행 영화들도 성평등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장지윤 연구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얼굴 감지 기술인 'Face API'를 이용해 한국영화에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 7가지 지표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AI 연구원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AI 연구원 다음은 AI가 분석한 흥행 영화와 벡델초이스 10의 결과다. 이번 벡델데이 2021에서는 감정의 다양성, 시간 점유율, 공간 점유율, 안경, 나이, 메이크업, 주변 물체의 종류 7가지 지표로 분석을 했다. 감정의 다양성은 얼굴 감지 기술이 측정한 남녀 캐릭터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분석한다. 감정의 다양성은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화남, 역겨움, 경멸, 두려움, 행복, 놀람, 중립적인, 슬픔이라는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측정한다,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남성 캐릭터보다 여성 캐릭터가 감정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성 캐릭터가 특정 영역의 감정을 더 많이 드러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두려움, 슬픔, 행복, 놀라움과 같은 수동적 감정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화남, 경멸, 역겨움과 같은 적극적인 감정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높게 측정됐다. 이는 여성 캐릭터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감정 상태가 다양하게 감지된 결과로 보인다.

신아가 감독 네, 원래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에서는 남성은 능동적인 감정, 여성은 수동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연구원 시간 점유율. 영화 전체에서 남녀 캐릭터의 빈도 수를 측정한 결과를 시간 점유율이라고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벡델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시간 점유율이 더 높았다. 벡델 영화는 여성 캐릭터들이 주연인 영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성 캐릭터들과의 시간 점유율 비율이 그다지 차이 나지 않았다. 반면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시간 점유율을 훨씬 더 많이 차지했다.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이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중심의 서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령 감독 남성이 주인공일 경우에는 여성이 거의 절반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겠네요.

신아가 감독 확실히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중심의 서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공간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연구원 공간 점유율. 촬영된 스크린에서 배우의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값을 공간 점유율이라 한다. 영화는 시각 매체이며 감독은 자신의 연출적 의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로 화면을 채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화면에 크게 잡아 강조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벡델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공간 점유율이 남성 캐릭터보다 높았다.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공간 점유율이 높았다. 벡델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를, 상업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령 감독 네, 분석 결과를 보면 '벡델초이스 10'에 선정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 서사가 많다 보니까 여성 등장인물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흥행 영화인 경우에는 확실히 남성 서사가 많기 때문에 남성의 얼굴이 더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나이 지표인데요. 어느 나이대의 여성과 남성이 한국 영화를 대표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AI 연구원 나이. 'Face API'가 측정한 남녀 캐릭터의 나이를 분석한 값을 나이 지표라고 한다. 벡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7.4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5.9세로 감지됐다. 흥행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5.2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4.4세로 감지됐다. 남성 캐릭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성 캐릭터는 10대부터 20대에 집중된다. 이것은 남성에 비해 나이 든 여성 배우가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뜻하며 다양한 연령의 여성 서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동령 감독 네. 지금 나이와 관련한 분석 지표를 보셨는데 사실 작년에 벡델데이에서 같은 나이를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여배우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여성 배우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멋진 배역을 앞으로 계속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안경 지표와 메이크업 지표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I 연구원 안경. 여성과 남성 캐릭터의 안경 착용 여부를 분석한 값을 안경 지표라고 한다.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여성 캐릭터보다 남성 캐릭터가 안경을 쓴 평균이 높았다. 작년 벡델영화보다 올해 벡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안경 착용 여부가 훨씬 더 늘어났다. 이는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의 직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 교사, 국정원 요원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의 여성 캐릭터가 많이 등장했고 그러한 캐릭터들의 안경 착용 여부가 높았다.
메이크업. 'Face API'가 감지한 화장 여부를 분석한 값을 메이크업 지표라고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은 메이크업을 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캐릭터 중 눈과 입술이 두드러지게 화장된 정도를 측정했다. 벡델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흥행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주연일 때 여성 캐릭터의 메이크업의 두드러짐이 가장 높았다. 안경과 메이크업과 같은 미적인 영역에서 흥행 영화뿐만 아니라 벡델 영화에서도 여성에게 쓰인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여성 캐릭터에게 미적 규범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아가 감독 네, 저는 특히 이번 결과를 좀 보면 상업 영화에서 여성의 직업이 여러 가지 전문 직종으로 다양해지면서 안경을 착용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요. 물론 안경을 착용한다는 것이 이제 꼭 지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고 이렇게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이 좀 전형적인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직을 표현한다고 할 때에는 보통은 남성 캐릭터를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고는 했었잖아요.

김동령 감독 저는 이제 뭐가 흥미로웠냐면, 상업 영화에서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동등하게 동등한 비율로 등장했을 때 여성의 메이크업이 두드러졌다는 그 분석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신아가 감독 그러니까 여성의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배우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연출 컨셉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출 감독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에서 여성과 남성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주로 등장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연구원 주변 물체의 종류. 각각의 성별의 캐릭터가 어떠한 물체와 함께 등장했는지 분석한 것을 주변 물체의 종류 지표로 한다. 벡델 영화에서 남녀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물체의 종류는 비슷했다. 남성 캐릭터는 타이, 의자, 식탁, 컵, 책과 함께 많이 등장했다. 여성 캐릭터의 경우 의자, 핸드폰, 식탁, 컵, 타이와 함께 많이 등장했다. 한편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는 타이, 의자, 자동차, 핸드폰과 함께 많이 등장했고 여성 캐릭터는 의자, 책, TV, 컵, 타이와 함께 많이 등장했다. 여전히 여성 캐릭터는 가구와 남성 캐릭터는 자동차와 함께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흥행 영화는 물론 벡델 영화에서도 여성 캐릭터에 쓰인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주연인 흥행 영화가 많이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행 영화에서는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AI의 분석 결과를 마치겠다.

김동령 감독 네. 지금까지 AI의 흥미로운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벡델초이스 10'에 선정된 작품만 AI에게 분석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좀 결과가 신선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흥행 상위 20편의 영화도 함께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아가 감독님은 연출자로서 AI 분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아가 감독 저는 남녀의 생활 방식, 어떤 패턴,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물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좀 너무 전형적으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저는 또 가끔 사람들이 영화는 현실을 묘사할 뿐이다, 아니면 반영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영화가 현실에 끼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화가 제시해 주는 이미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가 많다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의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아가 감독 네. 지금까지 AI가 분석해 준 한국 영화를 토대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진행할 순서는 조혜영 평론가님을 모시고 통계에 근거한 한국 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왜 남성, 여성이라는 양성 평등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동령 감독 네, 조혜영 평론가님은 현재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운영위원이시고 작년 2020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된 한국영화 성평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책 보고서를 집필하기도 하셨습니다. 조혜영 평론가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AI 분석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에 관련된 한국 영화의 성평등이 특히 시각적 지표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혜영 평론가 네, 저도 작년에도 이제 발표를 들었었는데 확실히 벡델 데이에 선정된 영화와 흥행 영화를 좀 비교해 보니 물론 벡델 데이에 있는 영화들이 흥행 영화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저는 이제 여성 캐릭터의 옆에 있는 물건 중에 타이가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성이 사실 타이를 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스크린 위에 항상 남성 캐릭터와 자주 동반돼서 등장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러면서 타이나 차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단독신보다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남성들보다 많구나라는 것이 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그러면 지금부터 조혜영 박사님께서 한국 영화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 평론가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해 2020년 한국영화 산업의 성인지 통계를 토대로 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먼저 좀 주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와 다르게 주요한 변인 요소가 있었고,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시기보다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종의 재난이 왔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달라질 수도 있구나',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매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연말에 한국 영화 결산 보고서를 내는데요. 연말에 한국영화 결산 보고서에 성인지 분석 통계가 들어가 있어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아까 양성평등을 넘어서 더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두를 꺼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별, 굉장히 이분법적인 성별에 근거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성별 외에 다른 성별을 사실상 포함시키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한계나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한계가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에서 항상 질문을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여러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창작자가 자기의 물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조립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와 상당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하나의 저의 가설로 세우고 나서 이 통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다 중요한데 '어느 성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인력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근거한 몇 가지 데이터들을 발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 번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인력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같이 노력해 보자,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일종에 각성시키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에 기반한 데이터를 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양성과 포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다양성,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 다양한 영화를 만들자'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인력들이 포함된 영화 현장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혹은 다양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전략이고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한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하는, 사실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 지속했을 때야 비로소 다양성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용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발표 드릴 텐데요. 우선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한국 영화 특히, 극장에서 개봉한 모든 영화를 분석한 그런 데이터이고요. 지금 보면 감독 성비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2016년에 16.4%였다가 2017년, 2018년, 2019년에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20%를 넘게 됩니다. 2016년은 사실상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해였어요. 여성 감독이 가장 많이 극장 개봉 영화를 만들었고, 상업 영화에서도 여성 감독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해였고요. 그리고 더불어 여성 주연 영화도 상업 영화와 흥행 영화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수익 역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해이고, 다양성 수치는 여성 외에 다른 다양한 캐릭터인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캐릭터의 수치도 가장 높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양성과 그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치가 되었던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에 <아가씨>라든가 아니면 <덕혜옹주>같은 흥행작도 나왔었고, 그리고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아니면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같은 영화들이 독립 영화부터 상업 영화까지 굉장히 골고루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성인지적인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던 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런 수치를 봤을 때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해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017년, 2018년은 오히려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악화되었던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하면 어떤 해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맞

조혜영 평론가 춰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조건,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의 전략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배제되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환영받을 만한,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수치는 우연적으로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조건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살짝 이 수치가 좋아졌는데요. 아주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빈도수로 봤을 때도 2018년에는 여성 감독의 영화가 24편이었던데 반해 2019년에는 27편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남성 감독의 영화는 2018년 150편에서 2019년 165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모든 수치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백분율로 몇 퍼센트라고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전해와 흐름을 비교하기가 좋지만 또 한편으로 문제적인 건 많은 분들이 마치 100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성별에 따라서 파이를 나눠 가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파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성 감독이 늘어나면 남성 감독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거의 한 10년 넘게 데이터를 추적해 온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빈도수만으로 보자면 여성 감독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남성 감독도 늘어났어요. 한국영화 시장 전체가, 산업 전체가 사실상 매해 양적으로만 보자면 질적인 평가는 좀 별도이겠지만 양적으로만 보자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분율로 봤을 때 마치 여성 감독이 늘어나면 남성 감독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9년에는 어떻게 보면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나왔던 여성 관객들의 목소리, 우리도 여성 관객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영화 관객들이 우리도 여성이 주인공인 혹은 여성의 삶을 담은 혹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는 목소리들을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내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결과가 2019년에 저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법 영화에서도 여성 감독의 수가 그리고 여성 주연 영화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17년, 2018년에는 아무래도 그 이전에 기획했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해라면 2019년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그런 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2020년을 맞게 됩니다. 2020년을 보시게 되면 여성 감독의 비율이 21.5%이고 남성 감독의 비율은 78.5%로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여성 감독의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과연 정말 성별 불균형이 극적으로 나아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빈도 수로 보자면 분명히 좋아졌어요. 여성 감독의 영화가 27편에서 38편으로 좋아졌고요. 그런데 남성 감독의 영화는 165편에서 139편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전체 개봉 영화 수가 한 30여 편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봉 영화 수의 30% 정도 줄은 건 여성 감독의 영화에서 줄은 게 아니라 남성 감독의 영화에서 대거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센트 비율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 남성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어떤 영화들이 대부분 줄었냐. 흔히 말하는 500만, 1천만을 노리고 있었던 아주 높은 제작비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상업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발표 드린 건 극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OTT로 가게 되면서 남성 감독 영화의 상업 영화 중에서 남성 감독 영화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극장의 빈자리를 오히려 저예산 혹은 중소 예산에 영화에 몰려 있었던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객이 없는 극장을 책임져야 하는 일종의 유리 절벽과 같은 그런 기회를 맞게 됐다, 굉장히 위험한 기회를 맞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독 성비인데요, 이거는 흔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상업영화로 분류되는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영화만을 가지고 조사한 것인데 2017년, 2016년은 정말 이상하게 굉장히 좋았던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1%를 넘었었고 2017년에는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여성 감독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다. 2017년, 성인지 데이터로 보면 거의 최악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남성들이 대부분 주인공인 그리고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완전히 엑스트라 정도로 등장하는 그런 스릴러나 범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혹은 전쟁 영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르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졌던 2017년, 2018년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에 여성 감독의 영화가 단 한 편 있었고요. 2019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투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영화,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보고 관객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서 기획되거나 일정 정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온 영화들이 2019년부터 조금씩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볼 때 10.2%를 넘었고요. 이때 5편이 넘습니다. 2020년에는 13.8%인데 비율상으로는 올라갔지만 편수로는 네 편으로 줄었고요. 전체 남성 감독의 영화는 2019년 44편에서 2020년 25편으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관객 수가 보장되어야만 수익이 가능한 그런 높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미루거나 아니면 개봉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프로듀서 성비 같은 경우에 이어서 보게 되면 2020년에 프로듀서 성비는 오히려 거의 변하지 않는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요. 사실 프로듀서 성비는 아마 보시면 의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업 영화도 굉장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업 영화는 조금 수치가 더 낮아집니다. 프로듀서는 한국 영화에서 그래도 여성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어떤 직군이 아닌가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 프로듀서가 흥행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대표되고, 주목받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두 명의 여성 프로듀서의 성공이 뭔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마치 여성 프로듀서들이 거의 한 4-50%가 되지 않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요.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문제적인, 그리고 조명 감독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적인 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특히 상업영화로 가면 거의 없는, 가끔가다 한 명, 몇 년에 1명, 2명 이런 정도이고요. 저예산 영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여성 프로듀서나 아니면 감독님들이 같이 카메라를 드는 경우들이 많

조혜영 평론가 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행인 건 2018년, 2019년에 그래도 조금 빈도수로도 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영화 아카데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촬영 감독 성비는 한국 사회의 성별과 관련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 뭔가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여겨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이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뭔가 남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은 사실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연 성비를 보면 역시 2019년까지 30%대에서 계속 머물다가 2020년에 여성 주연 영화들이 극장 개봉에서 40% 가장 높은, 한국 영화 100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왜곡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코로나19라고 해서 변했을, 혹은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변화가 분명히 2019년 1월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이것을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주연 성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데이터는 엔딩 크레딧에서 이제 여성이 제일 처음에 딱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개봉 영화와 그다음에 상업 영화 두 개를 비교를 해놨고요. 개봉 영화를 보시면 여성-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가 17.9%로 사실 이 수치는 완전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남성-남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사실 거의 50%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수치가 가능해졌다. 굉장히 비정상이 이상하게 정상인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업 영화를 보시면 2019년에 이 수치가 남성의 50%인 이 수치가 거의 한 10년 동안 반복되어 오던 수치이고요. 2020년에 이게 굉장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남성 주연 영화와 남성 감독 모두 사실 자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자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일종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여성인 영화가 이제 2019년에는 한 편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숫자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놀라운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분명한 변화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르 상업 영화에서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감독과 주연 성별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그런 표인데요. 여성 감독이 여성 주연 영화를 만든 비율은 70%이고, 그다음에 남성 감독이 남성 주연 영화를 만든 비율은 극장 개봉 영화에서 65.3%입니다. 이 수치는 흥미롭게도 이것과 똑같은 분석을 호주의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7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별을 가진 이야기를 창작자가 같은 성별을 가진 이야기를 하는 비율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70%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여성 감독이 남성 주연의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남성 감독이 여성 주연의 영화를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감독이 양적으로만 보자면 같은 성별의 이야기를 만드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려면 여성 감독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적으로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질적으로도 좋은 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앞과 카메라 뒤는 연결되어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 100%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은 2019년까지는 여성 감독이 여성 주연의 영화를 만드는 비율이 65%에 불과하고 오히려 남성 감독이 남성 주연의 영화를 만드는 비율이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뒤집어진 건 코로나19로 인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성 감독이 여성 주연의 이야기를 쓰고 기획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메이드 된 흔히 말하는 영화가 완성되고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못할, 어떻게 보면 성공에 이르지 못할 그럴 확률이 많았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여성 학생 및 감독의 비율을 따로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연극영화과 여성 졸업생은 한 57% 정도 되는데 한국 영화 아카데미, 지금 카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한국 영화 아카데미인데요.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정규 장편 과정만 뽑아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한 32.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영화제인 부산, 전주, 부천과 같은 국제영화제의 여성 감독 비율은 2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극장 개봉으로 가면 11.5%, 상업 영화 여성 감독으로 가게 되면 4.1% 정도 됩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경력의 발전 단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개봉하고 주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자원이 많은 곳으로, 결국은 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을 때, 이런 경로 상에서 여성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연극영화과 여성 졸업 학생의 수가 50%를 넘은 지는 이미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한 2~3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좀 기다려보자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15년이 넘은 지 한참 됐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정도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2019년을 보면 이런 식으로요.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깔때기 같은 그런 모양새를 2019년에 보여주고요. 특히 한국 영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성평등 소위원회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전임 교원이 0%인 문제와 그다음에 여성 입학생 비율이 아직까지도 거의 성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 한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수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 속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구나, 왜 나아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은 2019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영화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40%를 현재 넘었고 제가 알기로는 촬영 과정에서도 성비 균형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입학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영화를 만들겠다고 진입한 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화제나 극장 개봉까지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조혜영 평론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한국영화아카데미 정도 나오게 되면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이미 확정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높아진 수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들을 현장에서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전주 부산 부천 국제영화제 여성 한국 영화 감독 성비 나타낸 분석한 그런 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주 같은 경우가 경쟁 부분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하거나 이제 시작하거나, 아무래도 경쟁은 첫 장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입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이런 여성 감독들을 어떻게 현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게 할 것인가,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지금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장르 영화제라고 하는 그런 특성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국제영화제들이 이런 수치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조금씩 성비 균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미투 운동 이후에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의 일종의 결과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장편 제작 지원의 비율인데요. 다큐 같은 경우는 거의 오히려 여성 감독이 편수로 보자면 훨씬 더 높은, 반을 넘어간 수치를 보여주고, 극장편은 아직까지는 편수조차도 성비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재미있는 건 지원금으로 가게 되면 편수는 높은데 50%에 미치지 못하게 55%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원 금액이 작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까, 이것을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흥행 영화 외에 흥행 영화 30위 안에 드는 영화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2018년이 성인지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보시면 이렇게 어둡고 남자들이 가득한 그런 포스터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나마 중간에 약간 로맨스 영화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저예산 영화들 중심으로 있는데요.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 사실 저예산 영화였는데, 흥행을 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그런 영화들 중심으로 해서 포스터의 색깔이 또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지금 포스터이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사실 저는 장르적 변화도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 코미디 영화들이 흥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2018년에 영화들이 전쟁 영화 혹은 범죄 영화 등 많은 돈을 들여서 찍었던 영화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변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흐름이 상업 영화 내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 영화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82년생 김지영>, <가장 보통의 연애>, <말모이>, 이런 영화들이 등장한 것들을 주목할 수 있고, <걸캅스>도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해에는 다양성 수치, 그러니까 여성 외에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수치도 상업 영화에서 조금씩 다시 2017년, 2018년에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르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성비의 균형 그리고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재현들이 같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020년 흥행 영화 30위 안에 든 영화인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두 편이 비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콘서트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BTS와 트로트 콘서트를 다룬, 그 정도로 사실상 흥행 영화 30위 안에 든 영화들의 흥행력이 상당히 문제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겠죠. 지금 넘어가서 보시면 이 흥행 영화 30위를 대상으로 해서 벡델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한 53% 정도가 나왔고, 전체에서 여성 주연의 영화는 한 편을 빼고는 모두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남성 주연 영화는 그렇지 못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남남 주연의 영화는 35.7%, 남녀 주연의 영화는 한 25%.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실히 누가 주연을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벡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성평등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적어도 인간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냐 이 정도의 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 70%는 기본적으로 좀 넘어야 되는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0% 정도만 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벡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벡델데이가 뽑은 영화들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테스트들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성 스테레오 타입 테스트라고 해서 일종의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이 테스트에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그런 테스트이고요.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다가 2016년도 가장 낮죠. 2020년에 조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AI도 성별에 따른 연령 비율을 조사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것들을 흥행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고. 2009년에서 2018년까지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높고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아까 AI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배우들의 경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여성 주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0년에는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여성 흥행 영화 중에 여성 감독, 여성 주연 영화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30대가 가장 높아지는 이런 변화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성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별을 넘어서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들을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현실과 스크린의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캐릭터의 포용도를 보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접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판타지이기도 하면서 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마블이나 DC도 마찬가지로 시장성을 높이는 혹은 영화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는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포용성, 다양성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영화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공공 정책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앞으로 사실은 여기에 더 덧붙여서 지금은 성별 관점에서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BFI(영국영화협회)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BFI가 바로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 그다음에 주제, 형식들을 포함하는 다양성 표준을 가지고 BFI가 지원하는 펀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준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원 기준 자체가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영화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조혜영 평론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박사님이 발제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통계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통계는 사실 수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영화 산업의 성평등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이 이 보고서와 연구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여성 가산점 제도를 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혜영 평론가 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종의 직접 지원을 하는, 펀딩 기금을 줘서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이 성평등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적용된 건 아니고 주요 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김동령 감독 지금 현재 독립영화 그리고 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요.

조혜영 평론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한 데에는 어쨌든 문체부와 영화진흥원내에서 성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 수립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 발간된 지금 한국 영화가 어디쯤에 와 있나, 성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균형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조사해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보고 있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책이 받쳐줄 수 있는 일종의 양적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양적 기반을 마련해 주자. 숫자부터 높이면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양적 기반이 좋아지면서 질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원을 해보자고 하면서, 1차적으로는 했던 건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남녀 일종의 데이트 키퍼죠. 남녀 동수제를 먼저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100점 만점 심사를 할 때, 100점 만점 외에 100점 안에는 '작품이 완성될 것 같나', '제대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나',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5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줘서 만약에 핵심 창작자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0점부터 5점을, 5점 먼저 다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석을 통해 그것에 따라서 0점에서 5점까지 주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 즉 심사 기준에 일종의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알겠습니다. 조혜영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최전선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아가 감독 이번에는 이어지는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옆에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순서는 방금 전에 조혜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영진위의 정책, 그 뜨거운 이슈죠. 이 이슈를 포함해서 영화 산업 내 감독 직군의 성별 불균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신 분께서는 <미녀는 괴로워>, <광해>, <신과 함께> 등 천만 영화들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님이시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께서는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연작, <발레 교습소>, <밀애>, <화차> 등을 만드신 변영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원동연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연 제작자 네, 지금 조혜영 박사님의 발제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미녀는 괴로워>를 안 만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1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여성 중심의 영화는 <미녀는 괴로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변영주 감독 원동연 대표 그가 제작한 영화 중에 지금 개봉 대기 중인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성 주인공 영화죠. 그래서 저도 잔뜩 기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윤진 배우님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되게 우호적이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백>이 개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를테면 그동안 우리가 해낸 것은 무엇이고, 그 해낸 것에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더 잘 될까 이런 고민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아가 감독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두 분께 질문지를 좀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드렸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이제 두 분이 살짝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신 것 같고, 변영주 감독님께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지 외에 감독님께서 먼저 첫 질문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변영주 감독 그냥 제가 농담으로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아가 감독님이랑 김동령 감독님이 보내신 질문이 한 10개가 넘는데, 그 10개의 질문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흡사 뭐 같았었냐면, 내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이 됐어. 그랬더니 검사가 "A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B하고 친하죠?". "예". "B하고 친한 A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계속 이런 질문으로 연속이 되어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원래 준비하셨던 질문을 놓고 한번 가보죠.

원동연 제작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혜영 박사님한테 조금 죄송한데요. 지금 영진위하고 성평등위원회 같은데서 굉장히 고심 끝에 여성 영화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서 심사위원들도 동수로 만들고 또 여성 영화인들이나 여성 서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는 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코미디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산업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사실 능력 있고 열정 있고 뛰어난 여성 영화인들 스스로를 그 가산점으로 인해 어떤 특혜를 입은 사람들로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 작가들은 거의 90%가 여성이거든요. 90%가 여성인데 방송 공모를 하거나 방송 대본을 받거나 이런 데 있어서 남성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하면 아까 지금 뭐 발제에서도 쭉 나왔지만 연극영화과에서도 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독립영화계에서도 여성들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데, 상업 영화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는 상업영화에서 여성 감독이나 여성 스탭의 수가 독립 영화나 학생 영화에 있어서의 비율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왜 여성 영화인들에게 여성 크레이터들에게 책무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영화인들이 예를 들면 영화라는 게 엔터테이너하고 재미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모든 여성 영화인들을 다 접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런 데서 혜택을 받은 여성 영화인들은 뭔가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재미만 추구하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그 책무를 반기하는 거야 라는 굉장한 의무감을 갖게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상업영화계에서는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 그게 남자든 여자든 죄송하지만 외국인이든 상관없거든요. 외국인이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성 영화인들을 여성 스탭들이 창작자 입장으로 봐서 약자라고 규정하는 게 도대체 여성영화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감독 지금 원동연 대표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하고 하기로 했던 거를 먼저 확 꺼내면서, 이런 건 돌직구가 아니고 몸에 맞는 볼을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얘기에서 저는 원동연 대표 얘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순서대로 가는 건 어때요. 형,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어차피 집에서도 형을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보죠.

김동령 감독 네. 사실 이번 토론회에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조혜영 박사님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봤듯이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이 사실은 성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건 정말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감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에만 많이 머물러 있고, 일단 30억 이상의 예산으로 가게 되면 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오직 4명만이 지금 상업 영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수치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를 좀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유리 천장이 지금 영화 산업에 공고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뚫으려면 여성 감독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영화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 영화가 이제까지 천만 영화가 사실 20편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영화 점유율이 지난 9년간 50% 이상을 상회하는 그 호황을 지금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혜영 박사님 발제에서도 봤듯이 고용 문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헤드급 스탭 그리고 특히 여성 감독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원인부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영주 감독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어떤 한 공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어떤 공간 안에 속해 있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영화의 여성 헤드 스탭의 비율이 얼마라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양한 산업 구조나, 영화 말고 다양한 문화예술 구조가 있는데, 그 전체 비율에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떠냐, 낮냐, 높냐, 비슷하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진심으로 만약 한국의 영화 산업에서 여성 헤드 스텝들의 비율이 전체 비율에서 굉장히 적은 편이라면 그건 한국 사회와 연동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영화 산업의 비율이 낮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만약 높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가 이런 문화 예술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업 전체를 봤을 때 영화의 비율이 그 비율보다 좀 헤드 스텝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 그 이유는 뭘까. 난 그 높은 이유를 찾아서 걔한테 힘을 주고 걔한테 물을 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치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 또는 올해 어떤 개봉하는 장편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를 도움을 주러 갔을 때, 내가 뭐 딱히 고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화제가 됐던 영화들의 감독이 여성 감독의 영화였고, 여성 프로듀서가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여성 헤드 스탭이 이제 기술 스탭 이를테면 촬영 쪽에는 좀 적은 편이죠. 지금 막 한 세 분 정도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수치로 나왔을 때 굉장히 적구나라는 수치와 실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의 격차를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원동연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50대 50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수치는 언제나 그렇게 나오지?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작년, 올해 독립장편 영화로 개봉을 해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영화의 대부분의 감독이 여성 감독이었어요. 근데 몇 년째 그렇죠. 근데 상업영화를 섞는 순간 이게 좀 달라진다. 여기에는 첫 번째 왜 <노매드랜드>를 만든 클로이 자오는 <이터널즈>를 바로 연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고, 또 저 왼쪽에 그런 고민도 있어요. 독립 장편 영화가 상업 영화보다 하위 개념일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독립 장편 영화로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었던 어떤 감독이, 예를 들면 <밍크코트>를 만든 신아가 감독이 상업영화로 한 편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독립 영화를 만들면 '다시 돌아온 건가?', '메인스트림에서 못 견딘 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누구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안에서 되게 명백하게 투쟁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준에 놓는다면 저는 독립 장편 영화의 여성 감독과 여성 작가와 또는 그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를 갖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거름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령 감독 신아가 감독님. 저희가 그 진행자이긴 하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신아가 감독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아가 감독 근데 변영주 감독님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단락의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신 원동연 대표님과 변영주 감독님 두 분이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다고 좀 희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동연 대표님께서는 좀 충돌되는 의견을 가지실 것도 같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견해보다는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동연 제작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가 해방되고 70년이 넘어서 해외에서 차범근 선수를 필두로 조금씩 뛰고 있는데,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구단주한테 가서 한국 선수 왜 이렇게 차별하냐, 아시아 선수들 왜 이렇게 안 쓰냐라고 말하는 것이 프리미어 구단주에게 말이나 먹히겠습니까. 프리미어 구단주는 축구의 최전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불평등이라는 거는 동일 선상에 있는데 그것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그건 정말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되고 정말 산업을 위해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생각인데요. 제가 200억을 넘게 들여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그 소중한 돈을 받아서 제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남성 여성을 고려할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만 제가 고민할 뿐이지 이 사람이 남성이니까 이 사람을 쓸 거고 이 사람이 여성이니까 이 사람은 쓰면 안 되겠고, 그게 제가 프로듀서로서 고려할 여지가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클래스였고 내 선택지가 둘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별하는 게 차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그걸 일반화시킨 통계로 내서 이만큼 여성 헤드 스탭들이 없으니까 이 산업이 여성 스탭들을 차별하고 있다, 성평등을 위배하고 있다는건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변영주 감독 성평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치상 또는 통계상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차이를 준다면 제작자 한 명이 투자사 한 군데가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동연 제작자 그럼에도 상업의 영역에 그런 걸 들이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도 얼마든지 지원을 하든 뭘 하든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상업의 영화로 커머셜 필드로 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 개인 피셜입니다. 왜 독립예술 영화 장편 영화는 여성 감독의 영화 또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 서사의 이야기들이 관객에게 전달도 잘 되고 배급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쪽 상업 영화에서는 이게 왜 또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메인 투자사 쪽의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구태한 지점들이 있다. 반면에 현재 지금도 너무나 어렵게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다큐멘터리를 투자하고 배급하고 홍보하는 팀들은 상대적으로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저는 어느 날 훌륭한 여성 감독들이 전체적으로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동시에 놀랍게도 기적처럼 태어났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녀들의 영화들, 그녀들의 시나리오를 보고 깊은 공감을 하고 '이 정도의 돈이라면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려도 한 15년째 휘청거리고 있어요'라면서 해볼 수 있는 젊은 배급자 젊은 투자자들이 예술 영화 영역에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메인 스트림의 투자 배급사에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보고 '상업적인 걸 좀 하세요'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일 사회적인 태도가 있죠. 사뭇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며 "예, 저도 노력 중이에요."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네가 그럼 말해봐. 상업적인 게 뭔데?", "누가 나오는 영화요."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냐면 좀 더 메인 스트림의 투자 배급의 어떤 영화를 투자하는 마인드가 열리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독조합 행사니까요.
영진위의 그 정책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의 수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왜일까? 실제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평상시에 한번 혼내야겠는 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이런 진보

적인 정책에 대해서 친화적이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에는 뭔가 퉁치는 정책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성의 퍼센티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해야 된다', '여성 숫자를 몇% 이상 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왼쪽에서 또 어떤 말도 듣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개봉한 영화의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제작 지원 심사를 받으러 면접을 갔더니 페미니즘과 영화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심사위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난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저는 15년 전, 16년 전 제가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제 옆에 심사위원이 퀴어 소재의 작품의 감독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었냐면, “인구도 줄고 있는데 굳이 동성이랑 자야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놈의 그지 같은 세상'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오히려 독립 영화나 기획 개발도, 사실은 최전선의 상업 영화들은 기획 개발 지원 기금을 잘 안 받죠. 왜냐하면 투자자 짐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벡델데이의 벡델 테스트처럼 다양한 방식의 어떤 추가된 할당 점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 감독이나 여성 헤드 스탭에 수치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몇 년 전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남성 감독의 영화지만 정말 그 조민경이라는 놀랍도록 훌륭한 배우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 서사 영화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디테일들을 영화인들과 의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책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평등 지수를 영화판에서 올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자면 그 심사를 하는 당사자들, 또 영진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면접 때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영화아카데미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무례한 잘못된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평등 지수를 올려가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어떤 정책이 발현되어지길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령 감독 네, 지금 뭐 변영주 감독님께서 계속 지금 영진위의 성평등 지수, 여성 가산점 제도 쪽으로 계속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데 양적인 평가에 집중했지 사실 질적인 평가는 좀 디테일하게 챙겨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혹시 조혜영 박사님께서 그때 영진위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요.

조혜영 평론가 네, 사실 제가 지금은 영진위의 어디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어쨌든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변영주 감독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분 다 영화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종적인 안을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1안, 2안, 3안, 4안 등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었고 몇 년에 걸쳐서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지금 말씀하신 양적인 것, 질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외의 제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변영주 감독님의 얘기나 원동연 대표님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적인 평가를 해라',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질적인 평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인 성별이 아니라 뭔가 더 다른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 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원동연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구도 '여성을 차별하겠다', '난 여성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영화 현장에 전혀 없습니다. '나한테 뭔가 성불평등할 거야', '난 여성을 차별할 거야'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사석에서 이야기하거나 가볍게 '여자랑 일하는 건 아직도 좀 그래'라거나 속으로 ‘여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뭔가 사업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누군가가 고용할 때 그렇게 내뱉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장르의 다양성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 영화에서 일종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라든가, 상업 영화 안에서도 뭐 다양한 장르,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 혹은 중저예산 영화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과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오고 갈 수 없는 형태인데 그나마 몇몇 독립 영화 남성 감독들은 사실은 오고 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성 감독들이 원해서인가 원하지 않아서인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아까 원동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목소리로 계속해서 공공 정책이라든가 관객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변화, 마블하고 DC는 지금 저렇게 변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정말 '우리는 정의 있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가지고 이러고 있겠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경이 지금 이렇게 유연해지기 때문에 글로벌한 관객들을 더 많이 모으겠다고 하는 목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물론 정의롭겠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한국 영화도 그런 걸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결코 작지 않은 산업이고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라든가 재능을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결국 압박이, '이게 무슨 검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압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 정책을 움직여야겠다, 공공 정책이 개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연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P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의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관련된 통계나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전혀 그런 것들, 성소수자의 인구 통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실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1차적으로 1단계에서 이걸 한 다음 그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저는 변영주 감독님의 이런 말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질적 평가를 포함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럼 심사위원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지금 저는 이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것 플러스 양적인 것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들을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얹혀 가자. 이런 어떤 방향으로 사실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동연 제작자 저는 조 박사님과 영진위 심사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선의로 하셨고, 좋은 의도로 이런 일들을, 이런 정책을 펼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여성 영화인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한국 영화의 큰 변곡점이 한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헐리우드 영화 직배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직배가 되니까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명동에 있는 극장에다가 뱀을 풀면서까지도 '야 헐리우드 영화가 오면 한국 영화가 다 죽는다'라고 해서 모두들 다 반대했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스크린 쿼터가 대폭적으로 축소될 때, 우리 여자 배우분들 빼놓고는 전부 삭발까지 해가면서 광화문에서 반대했지만 결국 그런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없어지면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조금 더 생긴 것처럼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왜 그냥 막 살게 해야 될, 막 놀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펼쳐야 될 우리의 훌륭한 자원인 우리 한국 영화 산업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영화인들에게 왜 책무감을 줍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사회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너희들은 소수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은 여성 영화인들 기저에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야 될 이야기들을 여성 영화인들이 막 스스로 이제 앞에 끌어내야 됩니다. 앞에 끌어내다 보니까 영화들이 너무 다크해지고 그루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대중과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워지고요. 이런 책무감을 여성 영화인들에게 주는 이런 제도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심사위원들에는 박진영이 나오고 양현석이 나오고 싸이가 나오고 유희열이 나옵니다. 다 남자입니다. 심사하는데 심사위원회 성별을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해야 올바르게 사람들을 고르지, 그걸 성비를 맞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미래가 없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 영화인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의 배점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점 가산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로 가산 점수를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변별력을 많이 생기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게 이제 독립 영화라든가 예술 영화 제작 지원 또는 기획개발 제작 지원 같은 메인 스트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나 배급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필요한 영화들에서 그런 정책을 해본다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발표의 과정 또는 진행의 과정 또는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하는데 면접할 때 이상한 말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원동연 대표님께는 그것이 그 어떤 경쟁력을 저하할 정도의 배점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 즉 <이월>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이야기냐라는 것까지도 좀 더 추가됐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원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획 될 때마다 이런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늘지 않죠. 그러니까 상업영화로만 얘기를 해봅시다. 늘지 않죠. 원동연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원동연 제작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필름 메이커들이 이제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루틴하게 맨날 하던 식의 이야기들을 픽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조금 평가해 볼 게 그럼 지금 한국에서 벡델 테스트 한 것처럼 한국에 나와 있는 원천 소스들, 그게 문학이 됐건, 웹 소설이 됐건, 웹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거기서의 성비 불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영화만 유의미하게 현저하게 여성 서사와 여성 캐릭터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웹툰이나 지금 나오는 드라마, 웹소설, 그냥 소설이건 간에 그런 것에서도 이런 게 있다면 이건 하나의 뭐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변명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남자 얘기만 해야지, 남자가 중심이 되는 캐릭터들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감안하겠지만, 저는 상업영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면 여성 헤드 스탭을 쓸 용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무유기하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은 동등한 실력일 경우에 여성을 써달라고 공적인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수치에 대한 걸 어디 연구소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작년과 올해를 보면 출간되는 책 소설의 여성 작가의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상업적인 영역의 글쓰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웹소설이라든가 장르 쪽은 남성 비중이 훨씬 커요. 뭐냐 하면 마치 상업 영화와 독립 예술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나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는, 왜 여성의 이야기이거나 여성 감독의 이야기는 상업적이지 않다고 하는가라는 건, 제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연동되는 게 있다. 만약에 '왜 <벌새>같이 그렇게 좋은 영화가 몇 백만을 못 하지?'인 게 한국의 현실이다로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있다. 바꿔 말하면 여성 감독을 늘려라, 뭐 해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어떤 주요 담론들,

또는 이야기의 방식들, 다양한 서사들을 좀 더 성평등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영화 쪽의 일은 영화 쪽의 일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인 생각을 언제나 해요. 뭐냐하면 제가 이제 10년 전과 비교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요 담론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이야기가 상업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고 서포트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면 난 굉장히 이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년째 영화를 못 만들고 있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건강한 축에 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이를테면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프로덕션,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시켰던건 미투 운동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도 그런 걸 하면 좋다고 했지 의무화 안 했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했던 현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현장이 좋아져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나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의 문화가 흐르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유색 인종인 클로이 자오가 사실은 코로나19 시대가 아니었으면 아카데미에 올랐을까? 못 올랐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메인 스트림 영화들이 주춤거릴 때 독립 예술 영화들이 앞에서 후보가 되어지잖아요. 오히려 좀 그래서 섭섭하죠. 한국의 영화상들도 사실 코로나19 시대를 지켜냈던 독립 예술 영화에 대해서 훨씬 더 헐리우드처럼 평가를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것처럼 언젠가 그 <이터널스> 같은 우리 인생에서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할 예산의 영화를 맡길 정도의 임계점, 그러니까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클로이 자오도 한 번도 장르적으로 자기를 증명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화에 어떤 것들을 보고 가는 어떤 모험심 같은 게 메인 스트림 투자가 생기게 되는 어떤 임계점이 터지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떤 늘어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동령 감독 원동연 대표님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산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특히 여성 감독 또는 여성의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나요?

원동연 제작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표현이 그런데요. 투자자들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날 수 있느냐', 그걸 너무 이렇게 천박하게 보실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생리고 또 그렇게 투자자들이 일정 수익 이상을 내야 그게 리볼빙되면서 이 산업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업에서 이제 그 투자자가 여성 영화를 하면 안 되고 여자가 주인공이면 투자를 철회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30년 경력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류가 있고 어디 나가기만 하면 모두 다 이름을 알게 되는 몇몇 남자 배우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캐스팅하면 조금 시나리오가 모자라거나 그래도 투자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여성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성 캐릭터는 안 돼' 이런 편견은 없는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정말 적은 거죠. 저도 지금 <미녀는 괴로워>, <자백>도 제 영화 인생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20%가 채 안 되는 영화들을 여성 중심의 이야기로 만들어 온 것처럼 그렇게 현저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잘못 이라는 그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여자 영화들은 투자자들이 반대할 거야', '여성 서사는 돈 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잘못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아무래도 장르적인 문제 아닐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유정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야말로 여성 주인공 여성 감독의 영화인데 굉장히 상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장르, 우리나라에서 코미디 잘 만들기로 3등 안에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르 영화나, 예를 들면 김보라 감독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미안, <벌새>를 예로 들면 <벌새>는 어떻게든 상업 영화로 포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고, '너 작년에 어떤 영화 제일 좋아?' 그러면 벌써 1등 한참 뒤에 2등이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상업적인 어떤 것들을 갖는다라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장르적인 그 영화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게 <이터널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장르적이지 않았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그것이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또는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연동되는 것이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한 게 전여빈 배우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죄 많은 소녀>의 그녀를 만났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곳과 저곳을 오고 가면 날아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길 바라기만 했죠.

원동연 제작자 제가 여우 신인상을 줬습니다.

변영주 감독 잘했어,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언젠가 김보라 감독이나 이옥섭 감독 또는 함께했던 배우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부럽다 너희는 웨이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 툭 데뷔하는 감독이거나 어쩌다 한 명 훅 인정받는 배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너희들의 영화가 웨이브처럼 2019년을 장악해 버렸다. 그리고 난 그 웨이브가 멈추지 않고 한국 영화 산업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공적인 영역의 장치도 필요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하고 또는 상업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내며 돌파하는 개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들면 전여빈 배우는 아마 <죄 많은 소녀> 나왔을 때 다들 '상업적이지 않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파해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전여빈 배우 하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립 영화로 우리를 매료시킨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는 일이고, 그 자산이 여성 감독들과 만나고 여성 작가들과 만나는 순간 시너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느 순간 터지는 순간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포트를 정책자

들은 할 것이고, 그리고 감독들이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할 것인가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냥 계속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 2021년에 한국 사회 라는 것이 우리에게 '환경이다' 라는 것 또한 고민을 하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원동연 대표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남성 감독들이 굉장히 흥행이 잘 될 것 같은 모든 요소를 갖춘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변영주 감독 망한 영화들 많으세요. 천만 하나 한 거 아니야? 천만 두 개 했어? 세 개나 있어? 필요 이상 했는데?

김동령 감독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 얘는 끝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가 쌓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 감독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 두 편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감독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유, 이런 여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동연 제작자 지금 감독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하게 나오는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건 정말 여성 감독들에게 '여성 감독들은 데뷔작이 유작이 될 수도 있고 전작이 망하면 나에겐 세컨드 찬스가 오지 않아'가 여성과 남성에게 감독 분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패키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받는 기회를 받는데, 우리가 세컨드 찬스를 받는 거는 그게 남성이라서 또는 그 사람이 전작은 망했지만 시나리오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배우가 캐스팅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어떤 영화의 프로듀서와 스튜디오가 붙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원작이 한국 웹툰계 1등이었고 소설로도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원작, 누구나 다 좋아했었던 그런 원작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전작이 망한 그게 남자 감독이든 여자 감독이건 그 패키지를 보고 '오케이, 저 사람에게 또 하나 기회를 주지'라고 해서 기회가 가는 거지. 남성 감독들에게는 전작이 망해도 또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여성 감독들은 전작이 만약에 흥행이 잘 안되면 가차 없이 세컨드 찬스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피해의식 아닌가 이거는 그런 게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로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투자가 됐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남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패키징을 보고 투자가 된 건데 그 한 단면만 보고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령 감독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3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진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여성 감독이 4%밖에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분명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는 아이템의 문제다, 기획의 문제다, 사실은 공평한 건데 다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 감독이 그 상업 영화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 잘못하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영주 감독 그런데 아마 원동연 대표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한 거에는 사실 우리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의심의 영역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있는 건 아닌가 실제로 이런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 아닌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죠. 이를테면 어떤 감독이 실패했는데 그다음 작품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게 남성 감독이다. 그랬던 이유가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여기 동문회였고, 이런 데이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여기서 성별 불균형이 확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여성들이 하필이면 그때 능력이 애보다 부족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말이니 그 이유를 우리 모두 잘 모르겠으니 한번 찾아보자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원동연 제작자 그런데 저는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상업 영화들, 지금은 30억은 아니죠. 지금 한 50억은 넘어야 제대로 된 상업 영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상업 영화의 제작 편수가 아마 2021년, 2022년은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검증 받은 신인 비율을 따지면 독립 영화 말고 상업 영화의 신입 감독 데뷔율을 따지면 여성 영화 감독보다도 훨씬 더 적을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유의미하게 지켜볼 건 뭐냐하면 지금 드라마 감독의 여성 감독의 비율이 아주 현저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공중파 또는 종편 케이블, OTT까지 드라마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많은 여성 감독들이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실력을, 자기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프로듀서와 자본들이 드라마 영역에서 여성 감독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 tvN 드라마 [광해]나 [빈센조]를 만들었던 여성 감독님을 비롯해서 지금 드라마 쪽에서는 여성 감독님의 약진이 아주 눈부시거든요. 굉장히 눈부시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드라마의 여성 감독이 더 훌륭하고 더 영민하고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 가서 여성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영화의 감독을 준비하시는 여성 감독님들도 드라마에서 지금 활약을 보여주신 여성 감독님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죄송하지만 가만두면 여기 막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책무감 주고 의무감 주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꾸 너는 여성으로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4차원이면 4차원이고, 또라이면 또라이고, 오타쿠면 오타쿠고, 그냥 이 친구들한테 의식을 자꾸 심어주지 않으면 저는 훌륭한 상업 영화 감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걱정은 제작 변수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제 극장용 영화의 상업 영화 제작 편수는 전 세계의 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장 환경 때문에 또 여성 감독님들이 기회를 얻는 게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준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화와 드라마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너 드라마 하는 사람이야? 나 영화 하는 사람이야' 이랬다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이제 경계가 없어지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포맷의 다양함이 확 늘어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의해요 대표님 의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놔두면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 등 갑자기 자유가 박탈 당하면 의식 있는 전사로 태어나진 않는다.

원동연 제작자 고무신 받고 표를 찍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받으면 뭔가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고요

변영주 감독 안 그래 형. 1점에서 5점이야. 제 삶을 봤을 때 3점 4점 받는 걸로 갑자기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지금 감독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슷한 생각이지만 다른 영역은 그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되게 재미있는 반대쪽 사례를 제가 좀 가져와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남녀 고용평등, 그러니까 비율을 평등하게 하겠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하면서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또는 교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정했어요. 그럼 다들 막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뽑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평등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74%가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런 저런 우려 속에서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혜택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모두에게 다양한 종류의 혜택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공공 정책은 다양한 방식의 옳은 혜택이 많을수록 좋은 공공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전 더 나가고 싶어요. 이를테면 독립 장편 시나리오 공모할 때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했거나 이를 테면 벡델 테스트 통과되면 3점, 2점씩 막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적은 퍼센테이지에 다양한 영화를 훨씬 더 부채질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영화를 써도 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커머셜 영역에서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은 더 이래야 한다. 그리고 더 이래야 함에 대해서 영화 산업 안에 있는 각각의 직능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조합도 있고 시나리오작가조합도 있고 촬영감독조합도 있고 제작자협회도 있고 또는 뭐 PD조합도 있고, 이런 곳하고 정말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논의해 가면서 뭔가 현장의 정책들, 공공의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면 난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미 세상은 굉장히 특히 영화 산업에 있어서 현장은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를 생각해봐요. 20세기, 거지 같았던 20세기를 생각해봐. 또는 21세기 초. 이를테면 필름의 시대 때 모든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꽤 많은 기술을 독점한 남성 아저씨들이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장면 나오는 거 맞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나와봐야 알지'. 무슨 영화가 마법의 세계야? 호그와트야?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두르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몇 년 만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HD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은 느린 것 같지만 쑥쑥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는데 올해도 말하네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하세요. 저기 지금 준비하는 작품 중에 여성 감독이나 여성 작가의 영화가 몇 편 있습니까.

신아가 감독 제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할 때 약간 맨 처음 이제 의문점으로 삼았던 게 아까도 나왔던 말이지만 왜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 흔히 말하는 독립예술 영화 영역에서 여성 감독들이 많이 훌륭한 여성 감독들이 많은 반면에 상업영화 쪽으로만 가면 현저히 숫자가 낮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 영역을 좀 다르다고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데요. 상업 영화라는 것은 관객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고 어떤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을 흔히 상업영화라고 하고 그건 어떤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 예술 영화는 그렇지 못한 어떤 공공기관 공적 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찍는다든지 어떤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발선도 다르고, 영화들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점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감독들이 상업 영화 쪽에서의 숫자가 현저히 좀 작아진다고 할 때 저는 그걸 아까 변영주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찌 보면 좀 장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관객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르물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동연 대표님께도 좀 질문드리고 싶고 변영주 감독님께서도 이제 계속 그런 감독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원동연 제작자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00개의 영화사가 있고 100명의 프로듀서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픽업하고 디벨롭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취향과 제 주관으로만 그 아이템들을 제가 픽업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던 저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심사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제안이 들어왔던 기획이나 시나리오에 여성 영화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미니멀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미니멀하고 안에 레이어와 깊이는 굉장히 깊은데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나 또 이야기 자체의 사이즈가 되게 미니멀하고 조금 사회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아까 완전히 엔터테이너, 그냥 우리가 흔히들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킬링 타임용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경우거나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한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여성 영화인들을 옥죄고 있는 저 친구들의 의식의 한 편에 나오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라는 혹시 그런 강박이 있는 건 아닌가. 저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영화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왜 저 친구들은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저런 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기저에 깔려야 될 주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가르치려고 들고 '세상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우리는 연대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쭉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영화 보러 오는 애들이 더 힘들거든요. 극장에 오는 애들 현실이 더 힘들고 위로받고 싶고 자기에게 정서적인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여성 감독분들,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접했던 다수의 여성 감독분들은 그렇게 관객들을 위로해야 되고 관객들을 위무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영주 감독 일단 가장 큰 잘못은 그 여성 감독들이 왜 '리얼라이즈 픽쳐스'에 갔냐는 거예요. 저 회사는 그런 영화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스러운 말처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귀엽게 하는 말인데, 개상업 영화 제작사예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망하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상업영화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의식 있는 시나리오를 쓴 게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의식의 흐름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리얼라이즈 픽쳐스는 아니다. 잘못 갔다. 그 회사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연 대표님이 제작하셨던 영화를 한 편 예를 들면, 저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만들 능력도 없지만 만들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감독은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감독이 '나는 천만만 들면 소원이 없겠어'라는 감독이 있을까요.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영화가 온전히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를테면 여성 감독의 서사가 또는 저의 서사가 마이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쓰더라도 절대 100억이 넘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돼요. 왜냐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의 돈으로 장난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상업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해낼 수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인센티브 좀 받아가지고 빚 잔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각각의 상업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천만을 향한 상업 주의가 있다면 누군가는 내 영화가 온전해지게 될 수 있는 상업적인 고민 상업주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좀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동연 제작자 작가주의를 제가 폄해하거나 그걸 낮춰 부르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감독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상업 영화계에 왜 여성 영화인이 없냐' 현재 없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율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의 생각은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리스펙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케어는 해야 되거든요. 여성 영화인이 케어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 아이템이, 그 프로젝트가 우리가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이 정도면 충분히 리스크가 적다, 이거는 수익이 1천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몇 백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나 캐릭터나 이야기의 서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투자 대비 일정 부분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는 게 보장이 돼야지. 보장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여성 영화인들뿐만이 아니라 신인들이 공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자기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대중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고 되게 가치 있는 이야기고 누군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커머셜로 왔을 때 이게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기획들을 좀 많이 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령 감독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양한 관객도 사실은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예산을 조금 넘어서 한 중형 정도 되는 예산의 영화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약간 너무 천만 영화를 향해서 산업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신아가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극도로 상업적인 영화와 완전히 예술 독립 영화 쪽으로 이분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클로이 자오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노매드랜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널스>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구분이라는 게 한국처럼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 영화에서 예를 들면, 이병헌 감독님도 독립 영화 촬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직업>으로 가셨는데, 충분히 독립영화 안에서도 자기 것을 실험 하면서 진지한 걸 실험할 수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걸 실험할 수도 있고, 뭔가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실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이 되면 상업 영화로 갈 수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 구조 자체가 조금 중형 예산의 영화들이 많이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 감독들이 좀 기용이 되거나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동연 제작자 저는 코로나19가 영화 산업 전반에 굉장한 데미지를 준 건 맞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줬고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게 창작자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단언은 못하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용 영화로 데뷔할 수 있는 감독이나 극장용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의 수는 현저히 적어질 거고, 극장용 영화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팬데믹의 공포를 겪은 그 트라우마를 딛고서 극장까지 찾아오게 할 만큼의 스케일 블록버스터 해야 되고 스케일이 커야 되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를 필두로 한 모든 사운드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아이맥스, 4dx 등등의 모든 시각 효과를 주는 것들, 블록버스터들, 스케일, 액션감 등 극장 관람이 체험이 되는 영화들이 될 겁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되면 독립 영화와 저예산 영화가 설자리가 없어지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왔던 글로벌 OTT, 토종 OTT들이 그동안 극장에서 수익을 대부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극장 구조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글로벌 OTT에 탑재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 영화가 사실은 <기생충>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배급한 것들 전부 다 교민 위주의 아니면 소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 위주의 배급에서 이제 OTT에 탑재되면서 이건 꼭 여성 영화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 영화인이나 또는 다양성 영화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돼 자기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매니아틱한 장르 영화들도 충분히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극장에 대한 판타지가 있고 자기의 작품이 극장에서 빅 스크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투사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일정 부분 포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영역에서 기회가 더 무궁무궁해지기 때문에 여성 영화 감독님들도 저는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거의 대부분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아닌 영역에 기존의 전통의 극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전 다시 조금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고요. 더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영화 산업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부분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제작비를 줄일 것인가. 이제 이 얘기는 특히 독립 예술 영화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인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예술 영화도 적용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독립예술 영화도 주 52시간에 최저임금에 4대 보험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동안 인력 안에서 버티면서 찍었던 독립 영화들이 이제 그 돈으로 찍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 찍지 말자거나, 그러니 불법 노동 행위를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상업 영화도 예술 영화도 그 고민을 통한 좋은 결과를 아직 못 가져온 것 같아요.

원동연 제작자 저도 그 점이 너무 짜증 나는데요. 그게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저처럼 막 100억 대가 넘는 상업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팀이 이 근로기준법을 안 지킨다든지 최저시급을 안 지킨다면 저는 3대를 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영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이거는 정말 영화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조혜영 박사님에게 말씀드린 게 선의가 꼭 선의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선입니다. 왜냐하면 100억짜리 영화를 만드는 영화 노동자의 권리나 1억짜리 학생 영화, 다양성 영화를 만드는 영화 노동자의 권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노동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제작진과 학생 또는 독립 영화를 만드는 서로가 합의한 상태에서 서로의 꿈과 열정을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일부 제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노동을 좀 더 많은 시간 할 수도 있는 걸, 이 독립 영화와 학생 영화의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 친구들이 합의를 전제로 그들이 약간씩 양보한 것을 국가가 법이 강제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돈 없고 근로기준법 다 지키고 시간 다 지키고 최저시급 안 줄 거면 만들지 마. 결국 결과가 뭐냐하면 신인들의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제한해야 될 겁니다. 공간을 줄여야 되고 인물을 줄여야 되고 아이디어를 줄여야 되고 회차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수 영화인들이 엄청나게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에요. 제 전제는 합의가 전제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탭, 지망생들이나 또는 작가나 연출 문화 이런 사람들이 합의하에 '그래, 내가 여기서 경험을 쌓고 유의미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볼래' 합의한 것까지도 국가가 강제해서 너희들 합의 의미 없어, 너희들 일괄적으로 법 다 똑같이 지켜, 저는 이거는 심각한 진입 장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켜줘야 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 으쌰 으쌰 하자'라는 선의가 끝내 또 착취가 되는 경우도 골절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산업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하자 이거죠. 우리는 헐리우드과 다르게 스탭들이 등급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기수 대비 등급제가 돼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로 최저임금이 얼마 얼마 달라지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예산 영화는 낮은 등급의 스탭과 으쌰으쌰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좀 더 다양한 무언가는 없을까 또는 촬영 시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날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는 지금 CG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달라진 환경 안에서 새롭게 제작비를 리즈너블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아직도 고민을 덜하고,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동령 감독이 얘기했던 얘와 얘 사이의 영화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로 만들기엔 이미 그 사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제작비가 너무 세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20~30억대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그 나라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이 좀 더 많은 고민을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령 감독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 영화의 성평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영역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에 걸쳐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오늘은 상업영화 안에서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은 약간 독립 영화와 저예산 부분에 영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약간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요.

변영주 감독 왜나면 독립영화와 저예산 영화가 한국 영화의 희망이니까요. 뉴호프.

김동령 감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아가 감독님 지난번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신아가 감독 네,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평등 문제에 있어 소비자인 대중은 이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영화인이 제작한 영화를 대중이 소비 하는 것이 영화계 곳곳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극복하는데 어떤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원동연 제작자 그런데 영화계 곳곳에 성차별이 남아 있나요? 그게 전제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요.

변영주 감독 아마 있는 부분이 있겠지. 있을 거야.

신아가 감독 사실은 캐스팅 하나 하더라도 솔직히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개런티가 다른 거는 사실은 할리우드뿐만 모든 전 세계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도 여성은 반드시 20대여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영주 감독 그런 것 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모르는 거고 나도 어떤 일을 겪은 적이 있냐면, 나는 사실은 더 이상 성희롱 이런 거 전혀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신인 배우 한 명이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나한테 슬쩍 그러더니 '감독님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시나 봐요.' 이러고 삐죽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자기는 어제도 어디 가서 '야 신인 여성 배우가 가랑이를 버릴 줄도 알아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원동연 대표나 나 같은 경우는 근 한 15년 이 바닥에서 단 한 번도 들은 본 적이 없는 거라서 우리는 그들이 이미 저기 무덤에 묻힌 줄 알았어. 근데 아직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

원동연 제작자 그 뭐 아마 관객이 이 영화를 여성 제작자가 프로듀서가 만들었는지, 아마 감독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고 주연이 여성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이제 홍보 마케팅에서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분명히 알겠지만 아마 관객분들이 제작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경우는 저도 뭐 30년 동안 영화를 만들어 왔지만 제가 제작한 영화가 뭔지 일반 관객들이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찾아주셔서 여성 프로듀서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아지는 건 말씀하셨던 잔존해 있는 성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령 감독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벡델데이라는 것이 사실 벡델 테스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벡델 테스트 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가 남성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벡델 테스트를 지금 현재 통과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영화의 반 정도가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평등에 관해서는 지금 한국 영화가 아주 건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의 성평등, 그러니까 스크린 안에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이제 모두가 다 행복한 모두가 더 평등한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동연 제작자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서사와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는 제 경우에 영화인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류로서도 '이제는 아니야',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랬지',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불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라고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그 서사와 캐릭터에서 유의미한 여성 캐릭터와 또 그 이야기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이야기의 근간을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아니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 속에서 또는 인물 속에서의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고민하고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의무처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만드는 제가 만드는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에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주 감독 사실은 벡델 테스트라는 걸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 했을 거야. 설마 이거 통과 못하는 영화가 있을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통과한 영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된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벡델 테스트에 통과하는 건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였던 거지.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아마 그 사회가 얼마나 어떤 성차별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그 상상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결국 벡델 테스트에 통과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내가 다양한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또는 우리 특히 상업 영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죠. 우리가 예산만 이기고 이렇게 내용에서 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뭔가 내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저는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성을 믿거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산업이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걸 해낼까라는 거를 되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변화는 이렇게 진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뻥하고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멸망은 조금씩 멸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유의미하게 좋아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 특히 여성 감독님들, 제가 올 한 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딱 한마디의 소설 그 문장이 있어요. 그걸로 저는 버티고 있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서진 적은 있어도 파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티면 또 그 다음에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이팅입니다.

신아가 감독 네.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경론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약간 훈훈한 장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벡델데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는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 영화 산업 그리고 영화계에 어떤 평등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 벡델데이가 한국 영화에서의 양성평등 구축과 다양성 가치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주 감독님, 원동연 대표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3부 벡델 라운드테이블 - 벡델리안 어워즈

변영주 감독 안녕하세요, 변영주입니다. '벡델데이 2021' Be Next!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계의 성평등 문화에 기여한 10편을 선정해서 벡델초이스 10을 소개하는데요. 올해 벡델리안에 선정되신 감독,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배우를 모셔서 그 소감과 성평등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태규 배우 네, 토크에 앞서 올해 벡델데이 2021에서는 작년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벡델리안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벡델 영상 공모전과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그 대망의 수상작 발표와 사전에 통보된 수상자들의 수감 수상 소감 영상도 도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영주 감독 봉배우님,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봉태규 배우 요즘에 거의 콤비죠.

변영주 감독 우리 코로나 풀리면 대학도 좀 돌려고 그래요.

봉태규 배우 대학 행사 같은 건 따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변영주 감독 그럼 지금부터 올해 벡델초이스 10에 어떤 영화들이 선정되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상 재생)

변영주 감독 정말 작품들이 쟁쟁합니다.

봉태규 배우 아 좋은 작품들이 많네요.

변영주 감독 작년, 올해 좋았던 작품 다 있어요.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물론 이 10개 작품 외에도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들은 더 있었고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막 "와" 하는 것도 아니고, 통과 못했다고 "우"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영화를 기획하고 만든다면 한국 영화 역시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좋고, 또 만드는 우리도 좋고, 보는 분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태규 배우 그리고 계속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극장 개봉을 해준 영화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벡델데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국 영화에 대한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올해 벡델리안으로 선정되신 감독, 작가, 제작자, 배우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근데 여기는 '두두두두' 이런 거 안하나요?

변영주 감독 네,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 총괄의 민규동 감독이잖아요. 이 인간이 효과음을 원래 싫어해요.

봉태규 배우 그렇죠.

변영주 감독 그래서 <여고괴담2>도 보면 호러 영화 치고는 효과음이 없잖아요.

봉태규 배우 너무 소리가 많이 비어 있죠 영화에. 네, 그럼 그 첫 번째 주인공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나와주시죠. 시상은 벡델초이스 10의 심사를 맡으셨던 신아가 감독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은 고독사 다큐멘터리를 본 뒤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그간 잘 보여주지 않았던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을 조용하지만 사려 깊은 시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인공 진아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거부했던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결과는 앞으로 그녀가 따로 또 같이 잘 지낼 것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담아내 극장 관객들은 물론 최근 넷플릭스에도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작품으로 감독의 다음 필모가 궁금해진다는 평가를 받은 홍성은 감독에게 올해 벡델리안 감독상을 드리겠습니다.

변영주 감독 그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다 나와요.

봉태규 배우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홍성은 감독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감독 네, 저의 너무 부족하기만 한 첫 번째 영화인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의미 깊은 상을 주셔서 제 영화가 덕분에 조금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영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씩씩하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태규 배우 네, 축하드립니다.

변영주 감독 이제 두 번째 벡델리안은 영화 <내가 죽던 날>의 감독이자 작가이기도 한 박지완 감독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나와주시죠. 시상에는 역시 벡델초이스 10의 심사를 맡으셨던 김동령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죽던 날>은 세진의 죽음을 쫓아가며 현수와 세진, 순천댁 세 인물의 서사를 미스터리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다룬 작품이자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촬영장 스탭의 성비 비율 또한 50대 50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주인공 현수는 마땅히 죽음과 함께 사라져야 할 보잘 것 없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길어 올립니다. 약자의 연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로서 작품 <내가 죽던 날>은 영화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담대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각본 역시 직접 쓰신 박지완 감독에게 올해 벡델리안 작가상을 드립니다. 네, 박지완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간단한 수상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완 감독 안녕하세요. 박지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상을 받게 된 것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벡델데이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다음 작품들도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태규 배우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벡델리안은요.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제작한 영화사 더램프의 대표이신 박은경 제작자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시상에는 올해 벡델데이의 프로그래머인 윤단비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박은경 제작자는 2016년 <해어화>, 2017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 2018년 <말모이> 등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굴지의 작품들을 제작해왔습니다. '페놀방류사건'과 '미투운동'을 축으로 초고에 1995년 대기업 말단 여자 직원들이 회사의 폐수 유출을 목격하고 '파이팅'을 외치며 해결해 나가는 영화로 탄생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세 여성 주인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선물이 되었습니다. 더램프의 대표이신 박은경 제작자는 이미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이름처럼 앞으로도 한국영화계에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의 벡델리안 제작자상'을 드립니다.

변영주 감독 이 영화는 정말 코로나 시대의 기쁨이었죠.

봉태규 배우 박은경 제작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제작자 아 이게 원래 제작자상이라는 게 사실은 대표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함께해 준 우리 고아성, 이솜, 박혜수 배우 외 모든 배우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현장을 따뜻하게 항상 힘차게 외쳐줬던 스탭분들 그리고 홍수영 작가님 손미희 작가님, 그 누구보다 이종필 감독님 감사합니다.

변영주 감독 네 마지막에 '음..이종필 감독님'이라는 거는 뭔가..

봉태규 배우 석연치 않다.

변영주 감독 이건 좀 이따가 같이 얘기하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구요. 네 번째 벡델리안은 영화 <빛과 철>의 주인공 염혜란 배우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나와주시죠. 시상에는 역시 올해 벡델데이 프로그래머인 임선애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작품 <빛과 철>에서 염혜란 배우는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이 된 남편을 사랑하는 주인공 영남 역으로 만났습니다.
작품 <빛과 철>에서 염혜란 배우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남편을 간병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영남역을 맡았습니다. 그간 영화는 물론, 드라마, OTT 시리즈를 넘나들며 염혜란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잔상이 오래 남는 배우로 기억되어 왔는데요. 올해의 벡델초이스 10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영화들에서 각기 다른 얼굴들로 나타나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일 때도, 주인공 옆을 지나가는 찰나의 역할 속에서도 기어이 어떠한 얼굴을 만들어내고 마는, 살면서 힘든 순간에 만나고 싶은 선배, 동료, 친구, 어른의 모습과 닮아 있는 염혜란 배우에게 '올해의 벡델리안 배우상'을 드립니다. 네, 배우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구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염혜란 배우 고맙습니다. 제가 벡델 테스트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기준을 듣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랍고 좀 당황스럽고 했었는데요. 제가 출연한 작품들이 그 테스트에 많이 통과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벡델데이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있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태규 배우 멋진 수상 소감이었네요.

변영주 감독 네. 이거 염혜란 배우님을 위해서라도 한 40년 해야겠는데요.

봉태규 배우 빨리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죠.

변영주 감독 그렇죠. 벡델리안 2021 벡델리안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은 벡델 공모전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상식은 현장에서 따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주신 감독님들, 에세에 공모에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는 주최 측에서 푸짐한 상금과 상품 전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는 게 없네요.

봉태규 배우 사실 이 푸짐함이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변영주 감독 항상 사건 사고가 이런 거에서 나오죠. 푸짐한 이런 거에서..
먼저 영상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의 두 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려상은 고선영 감독의 <미주>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미주는 택시 운전을 하는 희연과 택시에 탑승한 승객 미주의 연대를 다룬 작품으로 마스크 너머의 상대에게 무감해지는 세태와 패배 의식이 감지되는 작품들 사이에서 이 작품이 빛나는 것은 희영이 미주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주가 기억나지 않는 희영은 그럼에도 미주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다가가고 그리고 그 작은 호의와 온기는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연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고요. 윤단비 감독님께서 이렇게 심사평을 해 주셨어요. 고선영 감독님의 수상 소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선영 감독 안녕하세요.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미주> 감독 고선영입니다. 미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두 여성이 같은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연대하는 내용입니다. 개개인의 여성들이 모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같은 사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 저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봉태규 배우 다음 장려상의 주인공은 라정인 감독의 <영숙>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영화 <영숙>은 조선 최초의 경제학자였던, 27살에 생을 마감한 최영숙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암울했던 일제 시대에 맨손으로 항거했던 여성들의 서사는 더 많이 발굴되고 회자되어야 한다고 신아가 감독님께서 심사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라정인 감독님의 수상 소감 영상 함께 보시죠.

라정인 감독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숙>을 만든 라정인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벡델데이와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숙>은 100년 전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최영숙처럼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여성과 소수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주 감독 네. 그럼 다음은 두 명의 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우수상 작품은 이다영 감독의 <작년에 봤던 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봤던 새>는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였으며, 자연 개발로 인해 앞으로 사라질 새와 그러한 처지의 여성들과 사람들을 풍요롭게 비교하여 보여주는 수작이라고 이태겸 감독님께서 심사평을 해 주셨습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다영 감독님의 수상 소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다영 감독 안녕하세요. <작년에 봤던 새>를 연출한 이다영입니다. 벡델데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성 감독으로서 벡델데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순간입니다. 영화 속 양수와 선재를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태규 배우 네, 이어서 다음 우수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유진 감독의 <마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굿 마더>는 딸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쿨한 척 구는 마더인 척 살아가던 수미가 동료인 김 선생의 딸 결혼 축하 모임 자리에 갔다 온 후에 동성애자인 딸에게 괜한 서운함과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는 영화인데요. 성 소수자인 딸이 주인공이 아닌 엄마 수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동성애자 딸인 지수만큼 또 한편에서 버겁고 낯설고 외로웠던 수미에게 손을 뻗는 감독의 시선과 그 품에 감탄했다는 심사평을 감독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수상의 주인공이죠. 이유진 감독님의 수상 소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유진 감독 안녕하세요. 저는 <굿 마더>를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벡델데이를 맞이한 행사에서 <굿 마더>가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굉장히 기쁘고요. 일단 <굿 마더>는 저한테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여성 영화인 동료분들 그리고 배우님들을 알게 해준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델데이 수상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 마더>를 기획할 당시에 앨리슨 벡델 작가님의 『당신 엄마 맞아?』 라는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수상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주 감독 아 수상자분들이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푸짐한 거 더 푸짐하게 해서 보내야겠어요.

봉태규 배우 그게 중요하긴 해요.

변영주 감독 마지막으로 영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지금 알았네요 저도. 최우수상에는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해미를 찾아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미를 찾아서>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백교수가 복직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들에 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증언을 모으려는 학생들 사이에 놓인, 선아라는 인물을 따라가며 진행되는 영화로 굳게 닫힌 무거운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성였을, 도처에서 이름을 잃고 외로웠을 해미들에게 지지의 마음을 전하며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미를 찾아서>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의문과 긴장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서사구조와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조준된 영화언어를 구현하여, 보는 이에게 용기와 연대의 힘을 전해준 두 감독과 배우들, 제작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배종대 감독님의 심사평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감독들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에요. 지역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화를 만드는 광주의 지역 영화인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감독님의 수상 소감 영상 함께 보시죠.

허지은, 이경호 감독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편 영화 <해미를 찾아서>를 공동 연출한 허지은, 이경호입니다. <해미를 찾아서>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2018년,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영화인데, 2021년 아직도 닥쳐오고 있는 백래시의 파도에 맞서고 있을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영화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속 인물들처럼 저희도 물러서지 않고 단단히 나아가는 그런 창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봉태규 배우 벡델 영상 공모전 시상은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벡델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는 김하경님, 2등에는 김연화님, 3등에는 박정윤 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를 맡아주신 이태겸, 윤단비, 임선애, 신아가, 배종대 감독님께서 심사 총평에 대체로 여성 화자의 글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세대별로 남성 화자의 글들도 도착해 이번 벡델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심사위원들 역시 성별 간, 세대 간의 성차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에세이에 담긴 주 내용들은 나다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성별 고정관념, 전통적 성 역할에서 오는 편견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영화감독조합 및, 심사위원 일동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책을 냈는데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그 책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내용이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변영주 감독 다시 한 번 벡델 공모전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작품이 영화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작은 주춧돌 역할이 되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올해 벡델리안 수상자 네 분과 테이블에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올해 벡델리안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의 제목이 '차별 없는 한국 영화 그 다음을 말하다' 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우리 봉태규 배우와 진행을 함께 맡은 변영주라고 합니다.

봉태규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태규고요. 올해 벡델 조이스 10의 심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 깊었는데, 이렇게 4분의 벡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기쁘고 사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변영주 감독 네. 이미 몇 년 전에 성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을 쓴 바 있는 봉태규 배우님께서 올해 벡델초이스 10의 심사위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봉태규 배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앞서서 책을 낸 저자이니까요. 작가니까요. 사실 이런 행사가 저에게 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내가 기꺼이 수락해서 빛을 내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고요.

변영주 감독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봉태규 배우 그럼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제 반려인이라고 해야 되나, 제 파트너인 하시시박 작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나은 인간이 됐을 텐데, 많이 배운 것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결혼이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맞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저와 MC를 하고 계시는 변영주 감독님은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에 몸담아 온 연출자로서 영화계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오늘 행사를 함께하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변영주 감독 제가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아 내년에는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영화들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벌새>, <매기>를 비롯해서 뭔가 그 웨이브처럼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내년에도 가능하겠어?'라고 했더니 이게 '파도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인 파도다’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올해 영화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봉을 해준 모든 감독님들, 제작자님들 또는 배급해주시는 분들, 극장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봉태규 배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벡델리안과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각자 벡델리안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성은 감독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 같아요. 이게 뭔가 저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게, 뭔가 벡델리안 선정이 되려면 아예 여성 인권에 대한 영화 라는 어떤 주제의식이 좀 더 뚜렷해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선정을 해 주셔서 굳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여성 영화인으로서 여성 배우와 함께 여성의 서사를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이런 벡델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지완 감독 저의 경우는 사실 영화가 흔하게 만들 기회가 약간 귀해진 시대여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관습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나, 혹은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 당기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중간중간 들었었는데요. ‘Be Next!’라고 되어 있는 상을 주셔서 사실 굉장히 안도감도 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혜란 배우 저는 아까 떨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수상 소감에 저희 <빛과 철> 배종대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이제 벡델리안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사실 제가 삶 속에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먼저 판을 짜거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 제가 선택이 되지는 상황인데 되게 수동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을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배우가 어떤 중년 여배우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제가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은경 제작자 사실 진짜 저도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연락 받았을 때 이종필 감독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던 것 같아요. 저보다 오히려 더 벡델리안에 가까우신 분이셔서 그냥 같이 축하하고, 그냥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 수상 소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영주 감독 네 이제 좀 개별적인 질문을 할 텐데 그전에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영화거나 뭔가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건 대부분의 영화에 당연히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영화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봉을 한 경험을 갖고 계신 홍성은 감독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영화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고독사 다큐멘터리가 영감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고를 쓰면서 어려웠던 과정 또는 촬영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가장 우리 중에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홍성은 감독 제일 아무래도 어려웠던 거는 좀 이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제가 직접 다 겪은 일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선이라던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끌어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의 어두운 면을 너무 다 보여주고 나의 유약한 면을 너무 다 까발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주인공을 보면서 그때 홍성은이 왜 그랬나 이런 게 좀 이해도 되고,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해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역시 좀 너무 발가벗은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은 있었고요. 초고랑 촬영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두 번의 전화 통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진아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 그리고 수진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 때인데요. 원래 처음 초고에서는 두 번 다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집에도 쳐들어가는 거였고, 수지의 집에도 어렵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다 보니까 마치 대면 소통만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뭔가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유선 통화를 하건 문자를 보내건 거기에 진심을 담을 방법은 대면 소통보다 어렵지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결정적인 대화를 다 전화 통화로 바꾸는 그런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 정말 저는 공승연 배우가 너무 좋아서 영화 보면서 ‘와!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봉태규 배우 극장에서 그러신 건 아니죠.

변영주 감독 그렇죠.

봉태규 배우 안 됩니다. 요즘은 더 안됩니다.

변영주 감독 내가 아무리 요즘 막 나가도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봉태규 배우 걱정이 돼서요.

변영주 감독 그런데 뭐랄까 그게 공기까지 전달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캐스팅 과정과 실제 공승연 배우님 성격과 캐릭터의 간극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연기가 아닌 실제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감정이 막 꾹꾹 눌러진 절제된 연기가 돋보여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은 감독 저도 선배 감독님들께 이제 조언을 들을 때 항상 듣는 말이 ‘결국에는 너랑 같이 영화 작업을 하는 배우가 네 운명이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캐스팅이 되고 결정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공승연 배우를 만난 건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뭔가 애를 쓰고 이랬다기보다는 저한테 진짜 그냥 과분하게 주어지는 행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침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고 저도 만나볼까 하고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좋고 배우님도 대본을 받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되게 큰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도 제일 많이 의지하고 또 고마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공승연 배우이고요. 실제 성격은 진아랑 공승연 배우랑 별로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되게 친구들이랑도 잘 교류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진아를 연기하기에는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가끔씩 보이는 어떤 표정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 ‘아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만들기 전 풀이 과정에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만나서 몇 시간씩 앉아서 굳이 시나리오 얘기 안 하더라도 수다도 많이 떨고 사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사실 배우들이 드라마 촬영하시고 이러면 진짜 너무 바쁘고 짬 내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 언제나 영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시간을 기꺼이 내서 같이 길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캐릭터 이야기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둘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캐릭터에 대한 간극을 조금 서로 좁혀 나간 것 같아요. 저도 진아라는 캐릭터에 공승연을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공승연 배우도 자기가 이해 못하던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돼서 둘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만들어간 그런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봉태규 배우 네, 저는 박지완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내가 죽던 날>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장르적이면서 결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하고 투자 난관이 따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어땠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게 제목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 우울한 제목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지완 감독 사실 시나리오는 되게 오래전부터 썼었는데요. 제가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쓰게 되는 게 있고, 그냥 저 혼자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해서 그냥 저의 노트북 안에 이제 긴 세월 동안 꺼내졌다가, 누구한테 읽혔다가, 다시 제가 고쳤다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대인 세진이의 마음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현수에게 제가 더 가까워지었다는 느낌으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서..

봉태규 배우 하드에서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나 보네요.

박지완 감독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바뀐 지점도 있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여서 사실은 같이 하자고 해주셨던 제작자분들이, 읽고 나서 만나자고 했을 때도 사실 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어떤 오해를 했겠거니 하면서 나가서 만났는데 다행히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잘 읽어주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과는 해도 잘 안돼도 즐겁겠다는 마음으로 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뭔가 진행이 되었고, 중간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수정을 원한다거나 하는 지점들이 계속 있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원래 제 속도가 좀 느려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빼고는 사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른 영감을 줘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역시도 이 이야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좀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제 두툼해진 느낌이 되었고, 아까 <내가 죽던 날> 같은 경우도 되게 좋다는 사람과 너무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은 없는 제목이었는데 김혜수 선배님이 이 제목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요.

봉태규 배우 그 말씀이 굉장한 지지가 되겠네요.

박지완 감독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선배님이 손을 꼭 잡고 ‘저도 이쪽입니다’ 하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변영주 감독 주최 측이 굳이 이 질문을 왜 나한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웃었는데요, 2007년 단편 <여고생이다>를 연출하여 주목받으신 이후 2020년 첫 장편 <내가 죽던 날>을 만나기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소회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박지완 감독 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악행을 거듭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우리 박지완 감독은 그 11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줬던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11년으로 따지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다른 영화의 스탭으로 참여하고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 제의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는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아예 영화일 말고 다른 일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때 제 주변에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그 맘때 만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제 다시 만난 친구들이 알려주는 어떤 세계랄까 그런 걸 보고 되게 반성도 많이 했고, 제가 굉장히 게으르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만약에 영화를 찍게 된다면 그것이 첫 영화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이야기와 나의 태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조금은 멋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 태도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일상을 잘 살아내면서 버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변영주 감독 그렇죠. 뭐 버틸 게 없이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여고생이다>라는 단편을 저는 정말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단편 영화여서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보셨으면 좋겠고, 박 감독님 그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 영화의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차기작은 빨라야 된다는 강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봉태규 배우 네,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다 보면 변영주 감독님처럼 연예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요. 길이라는 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변영주 감독 너 나랑 오늘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빛과 철>에서 주연 역을 맡으셨어요. 염혜란 배우님 아까 시상 멘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주인공 옆을 지나가는 찰나의 역할에서도 기어이 어떠한 얼굴을 만들어내고야 많은 배우라는 평을 받으셨는데, <아이 캔 스피크>에서 진주댁이 그랬고, <82년생 김지영>에서 스카프를 맨 버스 승객역이 그랬고, 또 <동백꽃 필 무렵>의 홍자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모두 평단과 관객을 사로잡은 작품들인데 그 작품을 고른 선구안이라는 게, '잠깐 나가도 웬만한 건 안 하지' 뭐 이런 것처럼 배우님만의 작품을 고르는 철칙 같은 게 있습니까?

염혜란 배우 주변에 소문이 좀 났어요. 염혜란이 하는 영화를 해야 된다고. 최근에 너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하게 돼서 저의 운 때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어떤 거창한 기준이 있었거나 뭔가 이러지는 않고 작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본 게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던 거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역할이 저한테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시대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얼굴을 찾고 계시고, 뭔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보던 인물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에 제가 잘 올라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변영주 감독 <빛과 철>은 어떤 선구안으로 선택하신 영화이시고 또 주인공 영남역은 그동안 맡았던 역할 중에 감정의 레이어가 가장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졌는데, 배종대 감독과 촬영 전에 인물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도 궁급합니다.

염혜란 배우 <빛과 철>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단편 영화의 여주인공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편견들이 있었나 봐요. 편견이죠 그것도. 단편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항상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하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었고 관객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단역과 조연을 맡았을 때 뭔가 인물에 대한 게 아쉬울 때 이게 조금만 더 풀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주인공의 이야기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주인공이라서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긴 호흡으로 관객을 만나면서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겠다, 하지만 이게 상업 영화에서는 되지 않으니 독립 영화에서는 나에게 기회가 온 게 너무 귀하고 좋았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배종대 감독님이 저를 만나셨을 때 지금까지 보던 어떤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약간 일적인 고백을 받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잘했으니까 비슷한 역할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봤다는 말이 저한테 너무 고백처럼 좀 설레게 다가왔어요. 제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해내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고요. 좋아하는 장면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인데 연기를 할 때 뭔가 좀 더 공승연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너무 잘 봤는데 그게 안 돼요. 덜어내는 연기가 아직도 안 되고, 뭔가 좀 담백하게 하고 싶은데도 뭔가를 좀 더 표현하려고 하고, 자꾸 모자란 게 좋은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앞서 나가고 하는데 이제 그냥 뭐 <빛과 철>도 다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냥 무표정한 연기, 아무 표정이 없는 듯 보이는 장면이 저는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덜어내는 노력을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을 좋게 보이더라고요.

변영주 감독 사실 저는 이종필 감독이 아마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시기에 그때 가장 좋아했던 영화도 이종필의 영화였고, 단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제일 좋아했지 배우도 이종필이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친구인데 데뷔를 하면서 그렇게 재미있지만 이종필의 어떤 에너지가 그러던 어느 순간 드디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보면서 '이건 이종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되게 매력적이지만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감독.

봉태규 배우 그런 감독은 무슨 감독입니까.

변영주 감독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감독이 겪는 감독이야. 뻔한 감독이라는 뜻이지. 보통의 90프로의 감독을 얘기한 거예요.

봉태규 배우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저도 제 주변에 떠오르는 많은 영화하는 형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 형들 진짜 매력적인데요.

변영주 감독 남들이 보면 출연했던 영화 다 잘 된 줄 알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모른 척하고 그 신분을 속이지.

봉태규 배우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변영주 감독 근데 여하튼 거기다가 여성 주연 3명으로 심지어 시대극이에요. 조선시대 영화보다 이런 몇십 년 전이 훨씬 어렵거든요. 디테일한 것도 그렇고 다양한 난관과 지난한 과정이 따랐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믿고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대표님의 원동력. 자 대표님. 지금 새로운 감독들의 사랑을 한눈에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은경 제작자 열심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택시운전사>로 여성영화협회에서 제작자 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사실은 시나리오는 읽고 있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택시 운전사>로 감사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여성제작자협회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상을 처음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 상을 받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그날 이상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사실 그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또 올해 상을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이상하게 좀 신나는 기분을 좀 느꼈었는데, 처음에 사실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주저했던 이유는 여성 주인공이 3명이어서는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담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야기들이 다 있긴 했지만 멜로적 성격도 좀 강했고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고 사실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종필 감독님을 왜 먼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전국 노래자랑>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종필 감독님을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서, 저는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감독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졸 사원들이 화이팅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좋으셨다고 하셔서 사실은 감독님과 꽤 오랫동안 각색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 일을 하기 전에 그 시대에 직장생활을 정확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고졸 여성 회사원분들이 계셨어요. 되게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밥도 따로 먹고 따로 일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시대이긴 한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 수 있지에 대한 부분과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 일이라는 게 다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영화를 좀 열심히 만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난관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들이 똑같지만 시나리오를 잘 디벨롭하고 투자사에 시나리오를 돌리고 캐스팅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데, 투자사 직원분들이 꽤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사에 꼭 여자 직원분들이 요즘 또 굉장히 투자팀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상하리만큼 되게 사랑받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진행하는 내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후반을 할 때나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애니메이션 만들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영화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좀 행복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영화라는 게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랑 다르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건데 이 협업의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있구나라고 느낀 영화인 것 같고요. 그 센터에 정말 우리 러블리하신 이종필 감독님이 제가 이제 연기는 끊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수장으로서 너무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영주 감독 불과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성 제작자가 모이면 한 테이블 이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도 여성 감독이라고 하는 순간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배우에게도 여성 배우로서 하면 그 순간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성 제작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것도 있지 않나요?

박은경 제작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 앞에 지금 여성 제작자분들,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길을 닦아 놓으신 것도 있고요. 일을 하면서 은연중에 여성 제작자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연인 영화들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말고도 저희 회사에서 약간 홍보를 하자면 <인생은 아름다워>나 이해영 감독의 <유령>도 사실 여자배우분들이 주연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여성 제작자여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딜리버리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판단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폭넓은 거?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은 좀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봉태규 배우 네. 이건 네 분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본인들 작품 외에도 벡델초이스 10 영화 중에서 혹시 인상 깊었거나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 있었을까요?

홍성은 감독 저는 영향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콜> 보면서 좀 재미있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주연 배우님들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배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여자 배우가 힘 있게 끌고 가는 영화이기도 했고, 하나의 장소가 계속 일치해 시간이 바뀌면서 일이 섞이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신선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장르들이 보통은 여성 둘이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또 둘이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들도 날것으로 많이 그려져서 재미있게 봤었고, 특히 극 중에 제가 극중 배역 이름은 모르는데 전종서 배우님이 집에서 탈출해서 치킨 뜯어 먹는 신 보고 저 막 약간 '헉!' 했었거든요. '되게 좋다'. 이렇게 날것으로 여자 주인공이 뭔가 자유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보기에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세기도 했지만 <콜> 꼽고 싶습니다.

박지완 감독 사실 저는 작년 십일월에 개봉을 해서 지금 언급되는 영화들이 다 같이 만들어져 온 거에 가까워서 다 끝나고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변영주 감독 경쟁작이었군요.

박지완 감독 그렇죠. 근데, 저는 엄살을 막 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타이밍에 그 영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다들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서 즐겁게 일단 봤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콜>도 그렇고요. 전 <디바>도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도 첫 영화라고 들었고 신민아 배우에게도 되게 새로운 어떤 도전이었을 텐데, 사실 듣기로는 거의 스포츠 영화를 찍는 것처럼 준비하셔서 찍었지만 심리 호러 같은 장르의 얘기로 풀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감명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염혜란 배우 저는 여기 나와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던 날>을 제일 먼저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봤는데 놀란 게 김혜수 선배님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작 환경에 있어서 이런 배우님께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힘이 실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언제 힘이 생기나 이런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김혜수 선배님이 그런 작품을 선택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저는 너무 울면서 봤는데,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뭔가 범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승연 배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무덤덤한 연기가 연기가 아닌 듯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봤고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도 보기 전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상업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시기가 그렇게 인권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받던 그 시간들이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좀 늙어가는구나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박은경 제작자 저는 다 사실 재미있게 보고 각각의 특색이 있게 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남매의 여름밤>을 너무 행복하게 보았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무슨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본 건 아닌데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를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뭔가 그걸 다 뛰어넘은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영화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냥 <남매의 여름밤>을 되게 사랑하며 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변영주 감독 지금 객석에 그 감독님이 앉아 계세요. 박은경 제작자님한테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세 배우가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셨고 그 세 분들로 시즌2 가실 생각 없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박은경 제작자 너무 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약간 드라마 제안도 사실은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은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좀 잘 남겨뒀다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뭔가 배우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잖아요, 개봉할 때 [유희열의 음악앨범]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세 분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신데, 그냥 이 세 분이 친해진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그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봉태규 배우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은 역사에 남을 만한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홍보 때문에 TV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나가는데,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홍보하기 위해서 나간 TV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박은경 제작자 가끔씩 저도 아직도 들어봅니다.

봉태규 배우 그저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그 영상 보면. 이 질문은 염혜란 배우님께 사전에 질문을 받은 건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대사를 뱉을 때의 느낌이 다양해서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보는 입장에서 즐겁

염혜란 배우 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마다 말하는 느낌이나 이 대사의 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품 선택할 때 전 작품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말투를 다르게 하는? 다 그냥 저로 했겠죠. 제 안에 있는 뭔가 했을 텐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작품을 고를 때 조금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으로 계속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봉태규 배우 그니까 캐릭터나 작품의 분위기가 다른 걸 선택하신다는 거죠.

변영주 감독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는 원래 원작 주인공이 남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으로 바뀌면서 더 좋아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혹시 감독님들 기존의 영화 중에서 이게 여성 주인공으로 바뀌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염혜란 배우께서는 남성 배우가 했던 건데 그거를 내가 하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꿨어야 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영화가 좋았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제작자 입장에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혜란 배우 저는 얼마 전에 본 <자산어보>, 사극에서 여성 캐릭터가 아주 다양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뭔가 사극에서 뭔가 두 여성 간에 그렇게 우정과 학문에 대한 즐거움이나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되게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작품은 영화 <조커> 같은 거를 여배우들이 미친 연기력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변영주 감독 이 사회에서 미치기로 따지면 여성들이 훨씬 쉽게 미친 연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선시대 얘기를, 사극도 그런데요,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지금 사극 하나를 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그 사회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여성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그냥 '판타지야 젠장' 뭐 이러면서 가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굉장히 막히는, 그러니까 그 성리학의 나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 같이 허난설헌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데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예술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홍성은 감독 저는 남자 역할, 남자 배우 역할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여성 역할이지만은 최근에 <크루엘라> 보면서 주인공은 크루엘라지만 이제 악역인 바로네스를 보는데 나중에 바로네스 이 역할 캐릭터로 뭔가 프리퀄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엄마가 계모도 아니었고, 친엄마가 자기 딸을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가는데 저는 묘하게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바로네스가 크루엘라를 절벽에서 밀 때, 물론 악역이 악한 일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저 캐릭터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강요당해서 아이를 낳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희생하기 싫으니까 아이를 희생했던 것뿐이고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이 아이가 또다시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는 이런 저는 내가 바로네스여도 '쟤를 절벽에서 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희열이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못된 희열 같은 느낌이죠. 좀 죄책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네스 프리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은경 제작자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섹시한 여자 악역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세다는 게 꼭 물리적으로 세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조커>나 이런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약간 여성에게는 좀 더 선함이 기대되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거를 약간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봉태규 배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식의 여성 악당은 한국 영화에서 좀 보기 드문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어떤 순간 용서를 해준다거나 뭔가 근데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변영주 감독 박지완 감독님도 대답하셔야죠.

박지완 감독 저도 어떤 특정한 영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모험을 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 어린 남자였다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10대 여성을 보면 사실 내가 저 때 가장 총명하지 않았나 가장 용기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또래들의 모험기 같은 얘기를 네 구체적이진 않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계속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 수도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태규 배우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요. 요즘에 현장에 나가시면 성평등에 관한 문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화들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박지완 감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에 스텝으로 나가 있던 게 <초능력자>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는 남성 비율이 좀 많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저는 제 영화를 찍으러 간 게 2019년에 찍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현장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냥 성비가 여배우들이 더 많기도 해서 거의 50 대 50 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성비가 맞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제가 으레 생각할 때 남자 스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여자 스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음 현장에도 나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출부 막내가 이제 20대 중반에 연출부였는데 그 친구가 가진 어떤 생각들이 확실히 저 때보다는 더 앞으로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고, 굉장히 주저 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연출부 때는 굉장히 자기 점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혹은 더 힘이 실리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봉태규 배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비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팀 파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파트에는 여성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변영주 감독 특히 그 벡델초이스 10에 오른 영화 중에 <디바>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도 그렇겠지만 <디바>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이 여성이기도 해서 뭔가 더 끊임없이 우리가 흔히 그건 남성 스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젠가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입니다.

봉태규 배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민규동 감독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이렇게 세련된 행사를 하셔놓고.

변영주 감독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님부터 현재 준비하고 계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박은경 제작자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소소하게 있고요. 지금 개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세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국희 감독님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있고요. 뮤지컬 영화로 최초는 아니죠. 열심히 시도를 해서 류승룡 배우님, 염정아 배우님과 같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윤석 배우님과 배두나 배우님과 함께하는 강이관 감독님의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개봉 대기 중이고요. 또 이해영 감독님의 <유령>이 설경구 배우님, 이연희 배우님, 박소담 배우님이 나오는 이 <유령>이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어서, 세 작품이 지금 개봉을 대기하고 있고요. 이종필 감독님과 사실 차기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상 받고 뭔가 좀 왠지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군인들이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아 이거 정말 오늘 이 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냥 열심히 좀 새로운 장르들 안 해봤던 장르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냥 제작자로서 성실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감독 향후 계획까지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혜란 배우 저는 지금 드라마 찍고 있고,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제작자님이랑 말씀하신 그 작품에 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는 거라서 그때 발견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해보고 싶은 장르라기보다 요즘 뭐 최근에 본 미드 같은 것 보면 사실 정말 어떻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형사의 모습이 아닌 캐릭터들이 나와요. 정말로 그냥 크로스백을 아줌마처럼 메고 딸을 키우고 있고, 주부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는 형사랑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형사들과는 다른 본 적이 없는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멋있지도 않고 소위 외모적으로 막 멋있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정말 젊은 여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르라기보다 좀 더 그렇게 다양해지면 좋겠다. 저도 그냥 생얼로, 사실 오늘도 숍에 가서 풀 메이크업 받고 왔지만 생얼로 나와서 정말 일하는 엄마로 정말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가 좀 다양해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완 감독 저도 사실은 이 벡델데이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얽매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자유로운 그걸 열어주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역할을 여성으로 반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지정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서 좀 특이한 혹은 더 특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평범하게 불러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아서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홍성은 감독 저는 이런 자리여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좀 모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 자꾸 다큐멘터리에서 뭔가를 찾는 데 거 같은데요. 예전에 [마더 쇼크]라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쇼킹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모성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과 억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좀 정면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그전까지는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나 엄마가 될 거야. 아이가 낳고 싶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일종의 콤플렉스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여자는 원래 모성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런 게 온단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아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뭔가 이상한 뒤틀린 사람인가?

라는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많이 해소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그게 반드시 본능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모성이 좀 더 잘 발현되거나 아니면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열어주는 다큐멘터리였어가지고, 그때 좀 꽃혀서 이제는 슬슬 뭔가 모성에 대해서 막 희생적이고 슬프고 막 이런 쪽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좀 아까 바로네스 얘기처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충분히 막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 않게 흥미롭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변영주 감독 슬슬 정리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아까 이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하거나 내가 아직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빼먹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봉태규 배우 선전포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변영주 감독 없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할까 봐요.

봉태규 배우 네. 벡델데이 2021를 심사위원부터 행사 진행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변영주 감독님과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저희가 두 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방송가에서 콤비로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대학 행사가 다시 열릴 테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시험 한 고 저희가 해봤는데요.

변영주 감독 그런 거야?

봉태규 배우 그럼요, 왜냐하면 다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벡델 테스트를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출연한 영화가 이 벡델 초이스 10에 선정되기를 또 개인적으로 바라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영주 감독 무엇보다도 우리 봉태규 배우가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고 단순하게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심사도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우리 벡델데이 행사는 단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네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에서 그치지 않고 또 2회를 치러냈다는 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만들어낸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벡델데이를 행사를 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벡델데이 행사 준비하는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말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분들, 토론자로 활동하신 모든 우리 한국 영화감독조합의 조합원 친구들 너무 고맙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봉태규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벡델데이 행사가 할 필요가 없는 날, 그러니까 벡델 테스트에 다 통과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런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새로운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벡델데이 행사가 한국 영화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 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무엇보다 상만 받고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토크에도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희 행사 온라인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태규 배우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6길 18, 302호

전화번호 : 02-6080-4422

팩스번호 : 02-6080-4477

E-MAIL : dgk.office@hanmail.net

SNS : @ directorsguildofkorea

@directorsguildofkorea

@koreandirectors

벡델데이 2021

SNS : @bechdelday

@bechdelday